



2019 서울새활용플라자 아카이빙북

2019 Archiving Book of Seoul Upcycling Plaza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비매물 / 무료
ISBN 979-11-88219-55-1

I·SEOUL·U SUP

2019 서울새활용플라자 아카이빙북
2019 Archiving Book of Seoul Upcycling Plaza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2019

서울새활용플라자 아카이빙 북

2019 Archiving Book of Seoul Upcycling Plaza

인사말	GREETING	6
서울새활용플라자 소개	INTRODUCTION OF SUP	8
기관 연혁	SUP HISTORY	10
서울새활용플라자 공간	FLOOR GUIDE	12

새활용 아카데미	UPCYCLING ACADEMY	
새활용상상놀이	Upcycling Imagination Activity	18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The Earth Is Not Disposable	22
프로듀스 모모	Produce Momo	26
길동무 프로젝트 - 나무오리기	Upcycling Woodwork Project	34
찾아가는 자유헌년제	Upcycling Class for School Curriculum	38
업사이클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Upcycling Environment Expert Training Course	42
교사대상 직무연수	Job Training for School Teachers	44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48
새활용브런치	Upcycling Brunch	56
새활용이야기	Upcycling Story	62

새활용 캠프	UPCYCLING CAMP	
상상놀이토	Imaginative Activity Saturday	70
새활용수리소	Upcycling Repair Shop	78
SUPer 젠가대항전	SUPer Jenga Competition	84
SUP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Healing Camp with SUP	88
아버지 커피학교	Father's Coffee School	94
GS숍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바자회	Beautiful Bazaar with GS Shop	98
농부의 시장 '고맙습니다'	'Thank You' with Farmers Market	102

새활용 페스티벌	UPCYCLING FESTIVAL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식	SUP 2nd Anniversary Celebration	110
새로운 럭셔리_윤리와 지속 가능성	New Function of Luxury _ Ethics and Sustainability	12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	Upcycl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Society	132
스케칭 유토피아	Sketching Utopia	138
패션과 사회적 책임	Fash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146
누각이 전해주는 스페인의 새활용 문화	Upcycling Culture of Nukak in Spain	152
새활용 모험놀이터 만들기	Building Upcycling Playground with the Citizens	160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Future of Food for Sustainable Life	170
새활용토이스토리	Upcycling Toy Story	180
아츠업 스튜디오	ArtSUP Studio	182
환상을 감각하다	Sense Fantasy	192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업사이클 도시	Building Upcycle City with Citizens	202

새활용하우스

- 새활용하우스 소개
- 새활용전시 - Zero Waste Life
- 소재해부학교

꿈꾸는공장

- 꿈꾸는공장 소개
- 시제품제작컨설팅

소재은행

- 소재은행 소개
- 소재구조대

입주기업 협력

- 에코페어 _ 현대백화점 판교점
- 서울디자인페스티벌 _ 코엑스
- 에코팝업 _ AK몰 수원점

리엔업사이클숍

- 리엔업사이클숍 개소식
- 리엔업사이클숍 장터

국내외 협력

- 국내협력
- 국내연수
- 국제협력
- 해외연수
- 해외언론취재

UPCYCLING HOUSE

- Introduction of Upcycling House 210
- Upcycling Exhibition: Zero Waste Life 214
- Material Anatomy School 222

DREAM FACTORY

- Introduction of Dream Factory 230
- Prototype Production Consulting 234

MATERIAL BANK

- Introduction of Material Bank 238
- Material Rescue 244

COOPERATION OF RESIDENT COMPANIES

- Eco Fair_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Branch 250
- Seoul Design Festival _ COEX 256
- Eco pop-up_AK Mall Suwon branch 262

RE&UPCYCLE SHOP

- Re&Upcycle Shop Opening Ceremony 268
- Re&Upcycle Shop Marketplace 272

COOPERATION

- Domestic Cooperation 278
- Domestic Training 282
- International Cooperation 286
- Global Communication 310
- Overseas Media Coverage 324

숫자로 보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2019년

2019 of Seoul Upcycling Plaza by the Numbers 330

2019년 새활용의 봄, 여름, 가을, 겨울

Four Seasons of SUP 2019 334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식플랫폼,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서 살아가다보니 무엇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폐해로 야외에서 활동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환경의 범주에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주에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노동환경, 출퇴근을 위한 교통환경, 문화와 레저환경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울은 인구 과밀로 인해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6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4만5천톤의 폐기물 량을 들여다 보면 서울시민들이 좁은 땅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례로 서울의 주택문제로부터 환경문제를 생각해보자.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은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아깝더라도 서울 번두리에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수많은 버스 와 지하철, 택시가 촘촘하게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실어나르며 매일같이 뿜어내는 매연은 서울시민 모두의 호흡기 속에 들러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또한 날로 진화하는 택배서비스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1회용품 포장 쓰레기를 양산하는 주범이지만,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 해결책이 묘연하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공해물질을 만들어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도시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사람이 1Kg의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 식,주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마트에 채소를 배달 시키는 대신 자기 집 근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식자재로 쓴다면 최소한 비닐포장 쓰레기는 없앨 수 있다. 오래된 옷이나

가구도 적정기술을 활용해 수리 수선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면서 생기는 포장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서울새활용 플라자는 이를 위해 성공적인 업사이클 디자인과 기술을 도입 하여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는 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스페인과 영국, 독일 등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초빙 하여 버려지는 폐기물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재미있는 워크샵을 시도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여했으며 이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년 개최되는 서울새활용페스티벌은 시민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흥미진진한 지식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모든 서울시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새활용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 날까지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도전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

Greeting

Seoul Upcycling Plaza, a knowledge platform to make a sustainable society

Seoul is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10 million. As many of these people live in narrow lands, environmental problems are more serious than ever,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work outdoors due to the fine dust damage and many people are stressed. The categories of environment include not only the necessities of life, but also the natural environment, working environment, commuter transport, cultural and leisure environment. Seoul has a low quality of life in all these areas due to overcrowding.

If we look at the 45,000 tons of waste generated per day in Seoul, we can see how fierce the lives of Seoul citizens are in order to carry out Korea's largest economic activity on a small scale. For instance, consider the environmental problem from the housing problem in Seoul. Soaring housing prices have forced young office workers to find a house on the outskirts of Seoul, even if it's a waste of time on the street. The daily exhaust fumes from buses, subways, and taxis that travel closely between Seoul and Gyeonggi-do carrying citizens to and from work stick to respiratory system of residents in Seoul. Also, the evolving home delivery service is the main culprit of mass production of disposable garbage made of plastic and vinyl, but the solution is yet to be determined as many seek a convenient lifestyle.

How can we improve the lives of urban people who create huge amounts of garbage and pollutants but have to live in them? How can we change the reality of one person constantly producing 1kg of garbage per day?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we need to be able to make or solve our own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our food, clothing, and shelter without depending on others. Instead of having vegetables delivered at a mart, if you use vegetables grown near your home as food, you can at least get rid of plastic wrap. Refurbishing old clothes and furniture with the right technology can reduce the packaging and waste associated with purchasing new products. To this end, the Seoul Upcycling Plaza is creating a venue for research and practice with citizens by introducing successful upcycle design and technology.

In 2019, we invited architects and designers from Spain, the UK, Germany and many more to try out fun workshops that make things that can be used in every life out of discarded waste. Many citizens participated with a variety of creative ideas and were seen making serious efforts to apply them to their lives. The annual Seoul Upcycling Festival is expected to grow into an exciting knowledge platform for citizens to find a new way of life to pass on a greener, more sustainable future for their descendants. The challenge and experimentation of Seoul Upcycling Plaza should continue until the day when all Seoul citizens experience and practice upcycling in daily life.

YOON Day-young, Director of Seoul Upcycling Plaza

새활용플라자 소개

Introduction of SUP



* 사진 출처: 서울디자인재단(서울새활용플라자) 제공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쓰레기. 하지만 쓰레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에는 새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가 2017년 9월 5일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순환이 이뤄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새활용 문화의 전 과정을 재미있고 쉽게 체험하고 생활 속에 접목해 환경을 살리는 새활용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환경을 살리며 쓸모없음을 새로움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참여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Garbage that occurs many times a day. But if you think about garbage a little differently, it can be reborn as a new thing. In Seoul, the Seoul Upcycling Plaza, the world's largest upcycling cultural complex, opened its doors on September 5, 2017, where you can broaden your awareness of upcycling, learn and experience firsthand.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where a healthy and valuable cycle is made to save the environment, we create a new culture that helps people experience the whole process of upcycling culture in a fun and easy way and incorporate it into their daily lives.

The Seoul Upcycling Plaza leads people who are used to convenience, to experience a new culture that is a little uncomfortable but saves the environment and the culture that makes useless things new.



기관 연혁

2017

- 03. 31. 서울새활용플라자 완공
- 06. 01. 새활용기업 모집 및 입주 (37개사)
- 09. 05.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 09. 05. 새활용국제컨퍼런스 <업사이클링, 디자인, 그리고 사회
Upcycling, Design and Society>
- 09. 05. 새활용전시회 <지구를 위한 약속展>

2018

- 01.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 04. 24. 새활용전시회 <무한한 새활용 상상展> 개최
- 05. 01. 1회용품 없는 새활용플라자 운영 시작
- 05. 25. 꿈꾸는공장 오픈
- 06. 18. 시민기획단 발족
- 09. 01. 새활용기업 추가 모집 및 입주 (7개사)
- 09. 01. - 30. 2018년 서울새활용페스티벌 개최
- 09. 04. 새활용기업 공동상점 숲퍼마켓 오픈
- 09. 05. 개관1주년 기념식 및 새활용포럼 <자원순환도시, 플라스틱 없는 서울>
- 09. 05. 새활용전시회 <쓰레기 새로 고침展> 개최
- 09. 08. 소재은행 <자동차해체쇼> 행사
- 09. 18. - 19. 새활용국제컨퍼런스 및 워크숍 <업사이클의 생활화Upcycling Everyday>
- 09. 18. 소재은행 오픈 및 시범운영
- 11. 29. 전기셔틀버스 도입
- 12.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19

- 02. 27. 서울특별시와 UAE 환경부 간 폐기물 재활용 정책사례 및 응용에 관한 업무협약
- 06. 05. 새활용하우스 오픈
- 09. 05. - 12. 31. 2019년 서울새활용페스티벌 개최
- 09. 05. 개관2주년 기념식 및 새활용포럼 <청년열린포럼 :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 09. 05. 신한카드아름인도서관 오픈
- 09. 05. 새활용전시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展> 개최
- 09. 28. 마포구 성산동 리앤업사이클숍 개소
- 10. 02. 송파구 마천동 리앤업사이클숍 개소
- 11. 02. 꿈꾸는공장 <리페어카페> 행사
- 11. 05. 소재은행 유료판매 개시

SUP History

2017

- 03. 31. The Seoul Upcycling Plaza was established
- 06. 01. Recruiting and moving in of upcycling companies (37 companies)
- 09. 05. The Seoul Upcycling Plaza was opened
- 09. 05. Upcycling International Conference <Upcycling, Design, and Society>
- 09. 05. Upcycling Exhibition <The Promise for the Earth>

2018

- 01. 10. Certified in Building Energy Efficiency Level 1 (Korea Productivity Center)
- 04. 24. Upcycling Exhibition <Unlimited Upcycling Imagination>
- 05. 01. Operation of Seoul Upcycling Plaza with no disposable items was initiated
- 05. 25. Dream Factory was established
- 06. 18. Inaguration of Citizen Planning Council
- 09. 01. Additional moving of upcycling companies (7 companies)
- 09. 01. - 30. 2018 Seoul Upcycling Festival
- 09. 04. Opening of "SUPer Market." joint store of upcycling resident companies
- 09. 05. One Year Anniversary Ceremony and Upcycling Forum
- 09. 05. Upcycling Exhibition <Trash Refresh>
- 09. 08. Material Bank <Car Disassembling Show>
- 09. 18. - 19. Upcycling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 <Upcycling Everyday>
- 09. 18. Opening of Material Bank and test operation
- 11. 29. Introduction of Electric Bus
- 12. 13. Certification in Barrier Free Living Conditions

2019

- 02. 2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UAE Ministry of Environment signed agreement on waste recycling policy and application
- 06. 05. Opening of Upcycling House
- 09. 05. - 12. 31. 2019 Seoul Upcycling Festival
- 09. 05. Second Year Anniversary Ceremony and Upcycling Forum <Plastic Free>
- 09. 05. Opening of Shinhan Card Library
- 09. 05. Upcycling Exhibition <Zero Waste Life>
- 09. 28. Opening of Re & Up Cycle Shop - Mapo Branch
- 10. 02. Opening of Re & Up Cycle Shop - Songpa Branch
- 11. 02. Dream Factory <Repair Cafe> Event
- 11. 05. Sales in Material Bank initiated

새활용플라자 공간

Space of SUP



| 모던 레스토랑
양질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새활용의 가치와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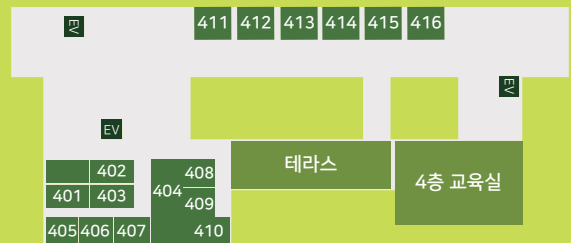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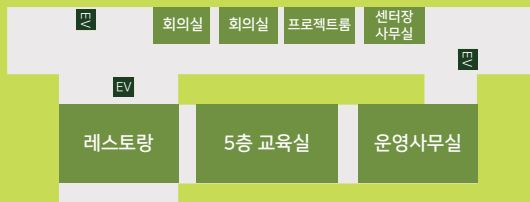
| 5층 교육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다양한 새활용 교육 진행
- 205㎡ (최대인원: 70명)



| 4층 입주기업
새활용 작가, 디자이너, 기업으로 이루어진 스튜디오
새활용 작품 만들기 체험과 상품 판매 진행
약 40개의 새활용 기업 입주
- 운영: 화~일 / 10:00-18:00 (기업별 상이함)



| 4층 교육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다양한 새활용 교육 진행
- 142㎡ (최대인원: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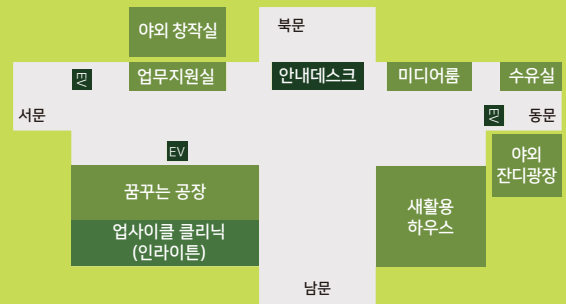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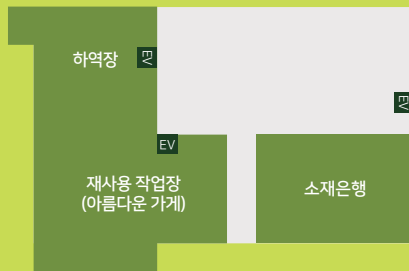


5F

4F

B1

1F



| 소재은행
새활용 소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소재 구입,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소재구조대 체험가능)

| 재사용 작업장-하역장
인근 수도권에서 기증받은 중고 물품을
재분류·가공하여 활용하는 아름다운가게
물류센터 (응답 되실림터)

| 꿈꾸는공장
업사이클 랩랩(Fablab)으로
새활용, 디자인 관련 체험 진행
장비교육 후 예약하여 이용가능
(장비 총 17종류/ 시설 3개 보유)
- 문의: 02-2153-0415

| 업사이클 클리닉(인라이트)
버려진 폰 배터리를 활용한
BETTER RE 파워팩 개발,
청소기 수리 등 서비스 제공
- 안내: www.enlighten.today
- 문의: info@enlighten.today

| 창작실
새활용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대형 제작물 실험·제작소

| 새활용하우스
새활용 작품 제작 시연과
공연, 시민참여 워크숍 행사
결과물을 전시하는 문화공간

| 미디어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다양한
새활용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
- 81㎡ (최대인원: 20명)

| 어린이방·수유실
유아, 어린이와 함께
이용가능한 휴게공간
(동화책 비치)



| 3층 입주기업

새활용 작가, 디자이너, 기업으로 이루어진 스튜디오
새활용 작품 만들기 체험과 상품 판매 진행
약 40개의 새활용 기업 입주
- 운영: 화~일 / 10:00~18:00 (기업별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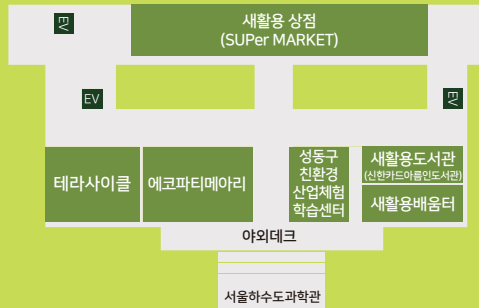
| 카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로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판매하는 휴식공간



3F

2F



| 새활용 상점 (SUPPer Market)

다양한 새활용 상품 판매 및
교육 체험 워크숍 진행
- 운영: 화~일 / 10:00~18:00
- 문의: 070-8826-5335

| 새활용도서관 (신한카드아름인도서관)

재활용-새활용 분야의
여러 도서들이 비치된 공간
- 운영: 화~토 / 10:00~18:00
- 문의: 02-2153-0440
(*도서 외부 대출 불가)

| 에코파티메아리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소품 판매와 자원을 되살리는
착한 디자인 실천
- 운영: 화~일 / 10:00~18:00
(주말: ~19:00)
- 문의: 02-2249-4113

| 새활용배움터

새활용 소재를 활용한
상상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 테라사이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며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 진행
jihun.lee@terracycle.com
- 문의: 070-7787-1400

|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유네스코 지정 글로벌 학습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친환경, 자원 재활용 체험교육 진행
(영상·직접·키오스크존, EM복합기 구성)



서울새활용플라자의 2019년 2019 OF SUP

새활용 아카데미

UPCYCLING ACADEMY

새활용 상상놀이

어린이를 위한 새활용 놀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속 가능한 어린이 문화를 디자인하는 입주 기업 플레이31^{Play31}에서 <새활용 상상놀이> 프로그램과 <소재구조대>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 상상놀이> 프로그램은 깨끗한 에너지,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건강한 생활 등 17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어린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세와 품성으로 배우는 수업이다.

<새활용 상상놀이>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구 위한 17가지 약속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해 배우고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지속가능원칙을 실천하는 품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빈곤, 재해, 환경 등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공동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국제협약으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SDGs를 유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인재의 품성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놀이를 통해서 새활용의 의미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생활 속에서 새활용을 할 수 있도록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좋은 습관이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바닥에 앉기, 움직이며 깃발찾기, 시각정보 기억하기, 재료 뽑기, 다양한 감각의 재료 만지기 등 몸을 사용하는 교육, 다양한 감각자극을 사용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여 뇌가 좋아하는 즐겁고 효율적인 지식 습득을 연구하여 설계한다. 학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활용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지한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기자재를 활용하여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체험 활동을 유도시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쉽고 색다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켜준다.

Upcycling Imagination Activity

Play31, a resident company that produces upcycling play contents for children and designs a sustainable children's culture, plans, develops and operates the programs <Up-cycling Imagination Activity> and <Material Rescue>. The program, <Upcycling Imagination Activity> is designed to teach children to practice 17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cluding clean energy, responsi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healthy living.

<Upcycling Imagination Activity> aims to educate children about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foster habit in which children practice sustainable principles in their daily lives. SDGs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im to pursue to solve global problems such as poverty, disasters, and the environment, expanding education for children and teenagers in developed countries. This program aims to foster future-oriented talent by educating SDGs at the level of children.

Designed for early elementary students, this program assists participant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upcycling through enjoyable activities. It provides a pleasant experience to do upcycling in life and motivates to keep good habits in everyday life. It is designed to provide education using the body, such as sitting on the floor, flag-hunting, remembering visual information, extracting materials, touching materials by various sense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using various sensory stimuli, so that the participants acquire knowledge in a pleasant and efficient way that the brain likes. Participants can discuss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happening around them and naturally recognize the concept of upcycling through this process.

This program utilizes a variety of audio-visual material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interest participants to improve positive awareness of recycling and upcycling. It encourages learners to use hands-on activities to help them learn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easily and differently, an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분리수거 방법과 재활용과 생활용의 의미 차이를 체험하는 수업이다.

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인류를 위협하는 필환경 시대가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분리수거의 올바른 방법을 학습시키는 목표로 기획되었다.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생활용을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게임 교육기자재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재미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참여 가능하다.

The Earth Is Not Disposable

The program <The Earth Is Not Disposable> is a class that experiences recycling metho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ing and upcycling through enjoyable activities.

2019 OF SUP

The problem of waste hidden behi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venience of mankind has become serious and threatening humanity. This program was designed with the goal of learning the correct method of recycling that we can practice first in these times. It aims to educate upcycling, a new method to practice the resource cycle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further,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This program guides people to understand the correct method of recycling and to practice them in real life. We take a look at the plastic waste, which we use and discard indiscriminately 24 hours a day, and see what effects it has on us.

23

This environmental education focuses on generating the interest of learners by utilizing educational game materials. Al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ge can participate in this program.

UPCYCLING ACADEMY



예뵤아~~나 오뵤 너무아플다



내가 왜 아플지 알아봐 줘



프로듀스 모모

<프로듀스 모모> 프로그램은 타자적인 시점으로 생활용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러운 쓰레기를 아름답게 담은 생활용의 가치를 반영하여 각자 마음속에 있는 못난 마음을 의인화한 캐릭터(모모)를 디자인함으로써 생활용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본다.

<프로듀스 모모> 프로그램은 2019년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학습자 연령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인 유튜버 양성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유튜버뿐만 아니라 영상 디자이너, 업사이클러,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과 연계시켜 개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총 4차시 수업으로 1,2차시와 3,4차시 묶음 수업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자들이 생활용의 개념을 인식하고 영상 편집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1차시 ‘모모가 뽀났다’ 수업에서는 환경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집중해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는 성나고 화난 자아가 존재한다. 내면 속의 못난 마음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 불쑥 튀어나오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고민해보자.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겪었을 때 튀어나오는 짜증과 불만, 답답함, 이기심, 귀찮음 등 성난 감정들을 상기해보며 오롯이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해보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성난 나의 모습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보며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나만의 캐릭터 모모와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2차시 ‘모모맨이 와썹’ 수업에서는 지난 차시에 제작한 캐릭터 모모로 생활용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였다. “2039년 7월 26일... 지구는 2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구를 괴롭힐 수 없게 된 모모들은 아픈 지구와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20년 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아픈 지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탐색하였다. 미래의 아픈 지구에서 살아갈 모모를 상상해보며 브이로그 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자막도 삽입해봄으로써 유튜버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았다.

Produce Momo

<Produce Momo> is a project where participants create a video on upcycling from others' point of view. Upper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design their own characters (Momo) that personify the ugly mind in their minds by reflecting the value of upcycling, which transforms dirty waste materials into beautiful products and practice upcycling in real life.

<Produce Momo> was a special summer vacation program in 2019.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foster YouTube, one of the most popular job among the participants' age group and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career education so that the participants can experience various jobs such as video designer, upcycler, and environment experts as well. This program consisted of 4 classes, intended to provide participants enough tim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upcycling and to practice video editing.

In the first session, "Momo is Upset," participants focused on their honest opinion on the environment. Everyone has angry and upset ego in their inner side. Let's take our time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where those egos pop up. Concentrate on the emotions such as irritation, dissatisfaction, frustration, selfishness, and annoyance, that pop up when we encounter various situations in life. After such process, participants discussed how their self-centered attitude affected their surroundings. With such impact and situation in mind, participants figured out what they could do, together with their own Momo character.

In the second session, "Momoman is Here," participants created an upcycling vlog based on their own Momo characters.

"July 26, 2039... The Earth was hurting much more than it was 20 years ago. Momo, who could no longer torment the Earth had to find ways to coexist with the sick planet..."

20 years later, how will the Earth look like? Participants searched for ways to help the Earth suffering from the garbage we have discarded. They imagined Momo living on the sick Earth in the future, and wrote a scenario for their vlog. By editing the video and inserting subtitles with the smartphone video editing app, participants indirectly experienced the process of YouTube.

3차시 ‘모모플레이리스트(모모플리)’ 수업에서는 갖가지 소재와 소품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장면을 녹여내 생생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지난 차시에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었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환경과 공생하며 생존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를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 모모를 통해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해보았다. 환경과 관련된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스토리를 구상하였다. 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소재와 소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배치도 해보며 세팅을 하였으며 구도와 각도를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4차시 ‘모모 무비 파티’ 수업은 모모 시사회에 참여하여 학습자들이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고 함께 감상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용 라이프를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생활용하우스’ 안에는 각종 생활용과 관련된 강연이나 공연, 포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생활용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4차시 수업은 학습자들이 제작한 영상 작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생활용 공연장에서 모모 시사회를 개최하였다. 생활용 공연장에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제로웨이스트에 맞춘 일회용품 없는 파티를 준비하여 포토존과 함께 디스플레이하였고, 미래의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 감독들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열심히 활동한 참여자들과 학부모들께서 생활용 공연장 자리를 빛내주었다. 생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다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져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모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용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영상으로 제작해보며 프로듀스 모모 4회차 수업을 멋지게 마무리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출함으로써 그들의 불안한 정서를 순화시키고 건강한 자아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환경 문제를 접목시켜 학습자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진로교육과도 연계하여 체험 활동에 국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직·간접적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이 <프로듀스 모모>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용을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미래의 선구자가 되길 기대한다.

In the third session, “Momo Playlist,” various materials and props were used to create a lively scene. Compared to the last session where participants created a simple vlog on the story of environment, in this session, participants expressed honest feelings through Momo by putting in the video how they can live together with the environment. Participants wrote a script to capture a true and detailed story about the environment. They directly touched, arranged and set up materials and props needed for the video. They also planned the composition and angle independently and proceeded with filming.

The 4th and last class, “Momo Movie Party,” participants presented the videos produced by them in the Momo movie premiere and enjoy the time together. The “Upcycling House,” a cultural complex pursuing upcycling lifestyle, has an “Upcycling Concert Hall” where various lectures, performances and forums related to upcycling take place. The Momo movie premiere was held at the Upcycling Concert Hall. Entering the concert hall by walking on the red carpet, participants were welcomed as children directors. Going along with the concept of zero-waste, this party was prepared with zero-waste snacks.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who have worked hard from the first to third session, came to watch their videos. They had a time to see how they expressed their stories about upcycling through a video. By searching Momo in their inner side and connecting it to upcycling, participants have completed their fourth session of <Produce Momo>.

Through this program, we wanted to provide an experience of expressing one's own complete image in a non-verbal way to learners who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By expressing their emotions properly, participants were able to treat their emotional disturbance and explore a healthy ego. In such proces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were grafted to guide learners to recogniz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occur not only in themselves, but also around them. In the connection with career education, the program was organiz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jobs directly and indirectly. We expect the participants to be the pioneers of the future in the practice of upcycling in everyday life.

Seoul Design Foundation

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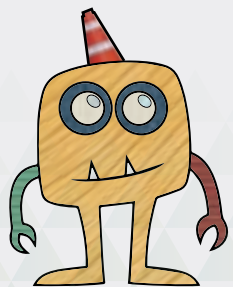


"프로듀스 모모"는 타자적인 시점으로 업사이클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이다. 더러운 쓰레기를 아름답게 담은 업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여 각자 마음 속에 있는 못난 마음을 의인화한 캐릭터(모모)를 디자인함으로써 업사이클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본다.

1차시 모모가 뿔났다	2차시 모모맨이 와썹SUP!	3차시 모모폴리(플레이리스트)	4차시 모모 무비 파티
<p>1회차</p> <p>나만의 원픽 모모</p> <p>업사이클링 재료를 통해서 마음속의 모모 괴물을 만들자</p>	<p>2회차</p> <p>모모 브이로그 제작</p> <p>모모의 브이로그를 제작해 다른사람들에게 소개해보자</p> <p>☑ 스마트폰을 지참해주세요</p>	<p>3회차</p> <p>모모 웹드라마 제작</p> <p>모모를 웹드라마에 캐스팅하여 모모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p> <p>☑ 스마트폰을 지참해주세요</p>	<p>4회차</p> <p>모모 시사회</p> <p>모모의 시사회에 참여해 웹드라마를 일리고 함께 즐기자</p>

1-2 차시 묶음 수업입니다.

3-4 차시 묶음 수업입니다.



• 모모 대표 뽀족이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장소 2층 생활용배움터

날짜 2019.7.19 - 8.9 (매주 금요일)

시간 am 10:00 - pm 12:00

수강료 무료

신청 홈페이지 예약

(20명 선착순 마감)

문의 02-2153-0440, 0441

(화-금 / 9:00-18:00)

모모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

☑ 스마트폰을 꼭 지참해주세요!

☑ 1-2차시 / 3-4차시 묶음 수업입니다.

☑ 최대한 4차시 모두 참석해주세요.







길동무 프로젝트 _나무오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길동무 프로젝트>는 학생 참여 중심의 메이커 교육 활동으로 창작·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길동무 프로젝트>는 초·중등학교에서 사회교육자원 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질을 계발하고 관련 분야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 프로그램이다. 메이커 교육을 통한 협력적 문제 해결 및 창작 활동으로 제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부각되어 이에 적절한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와 장비를 활용하여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기자재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참여·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진로를 원활하게 탐색하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창의·융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Upcycling Woodwork Project

<Upcycling Woodwork Project>,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Education, was planned to spread the cultur of creation and sharing through Maker education activities centered on student participation.

<Upcycling Woodwork Project> is a program that encourages students to develop talents and select the career path in related fields by participating in creative activities that utilize social education resources faciliti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rough Maker education with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nd creative activity, it aims to foster creative and integrated talents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n schools, there is rising importance and attention to Maker education, and thus an appropriate education environment is required. For students to expand potential to express via various medium and tools, there is need for appropriate educational materials but it faces realistic challenges. To supplement such educational conditions of schools,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allow students to visit diverse Maker spaces to appreciate and produce their own works. The program is composed of participatory and hands-on education to help students actively explore career paths and develop creativity and convergence skills.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스스로 배우기’, ‘서로 배우기’, ‘하면서 배우기’, ‘넘나들며 배우기’의 교육 원리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실행하였다.

<찾아가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새활용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자원 순환을 활용하여 새활용 작품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거쳐 각 팀별로 네 가지 교육원리를 토대로 활발한 토론과 액션을 이어 간다.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보기/cash rush game/열쇠고리 만들기/업사이클러1/밀키큐브 만들기/카드지갑 만들기/연필꽃이 만들기/업사이클러2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프로젝트 팀별로 활동 후에 주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모르고 있던 각 팀 활동의 방향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자 팀별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공유회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앞으로 이것을 확장시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년제 학기에 새활용 플라자 입주기업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였다. 입주기업의 작품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새활용의 개념을 확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버려지는 폐자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자 기획되었다.

Upcycling Class for School Curriculum

<Upcycling Class for School Curriculum> is a program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learning by oneself', 'learning from each other', 'learning while doing' and 'crossing learning'

2019 OF SUP

<Upcycling Class for School Curriculum> is a program to help understand concept of upcycling and create upcycling work, utilizing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various project activities, each team continues active discussions and actions based on 4 educational principles. The program is organized under the themes of following: learning about resource circulation / cash rush game / making key chain / upcycler 1 / making milky cube / making card wallet / making pencil holder / upcycler 2. After activities by the project teams, they gather to share the main process and directions of each team's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s of set by each team and raise levels of achievement, a meeting is held to share the honest stories of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 project activities and how they want to learn and grow by expanding them in the future.

39

Organizations at Seoul Upcycling Plaza had visited middle schools that are doing free-grade semester to conduct Maker education. By conducting hands-on experiences, the organizations at SUP aim to expand upcycling concept and raise students' awareness of waste resources that are being discarded.

UPCYCLING ACADEMY





업사이클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업사이클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서부여성 발전센터와 서울생활용플라자가 연계하여 실무중심 전문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 ‘업사이클(새활용)환경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업사이클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의 세부 교육 과정은 의식주 주제별 소재교육, 환경교육, 자원교육, 강사양성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전문 교육과 이미지 메이킹 현장 견학, 작품경진대회 등의 취업 대비 직무소양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수강생들이 서울 생활용플라자 내 소재은행과 꿈꾸는공장에서 만든 작품들로 작품경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품은 서울생활용플라자 내 SUPMarket에 입점되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수료 후 생활용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를 적극 지원하였다.

Upcycling Environment Expert Training Course

<Upcycling Environment Expert Training Course> is a collaboration program of Seoul Woman Up and SUP that is designed to develop upcycling environment experts through professional job training centered on business.

The detailed training courses for the <Upcycling Environment Expert Training Course> include vocational education required on site, such as material education according to necessities of life, environment education, resource education, and instructor training education, as well as job training for employment, such as on-site tours for image making, and work competitions. Actual trainees of this program took part in making pieces in Materials Bank and Dream Factory in SUP. The piece selected for Excellence Award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sell at SUP Market within SUP. We also actively supported after completion of the course to be recruited as an instructor for Upcycling Academy Program.

교사대상 직무연수

<교사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새활용 소재와 업사이클링과 연계된 수업 콘텐츠로, 신선한 기법을 배우며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사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새활용 소재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소재 탐구와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습한 콘텐츠를 학교 방과 후 특강이나 학부모 평생교육연수에 적용시킬 수 있게 다양한 새활용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교육현장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Upcycling Environment Expert Training Course

<Job Training for Elementary/Middle/Highschool Teachers> is a class content related to upcycling materials and upcycling, designed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by learning new methods.

Through <Job Training for Elementary/Middle/Highschool Teachers> program, there was better understanding of upcycling materials and positive changes in perception of sustainable materials research and resources. In particular, by providing various upcycling contents to be applied in after school extracurricular or parents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it helped to apply the contents practically in education settings in future.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은 상반기 연구 개발된 콘텐츠이다. 새활용아카데미(서울새활용플라자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지칭하며 씨앗(Seed)-새싹(Sprout)-묘목(Sapling)-숲(Sup)의 4S로 구성된 프로그램,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은 묘목단계의 프로그램)의 주된 프로그램인 '새활용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강사로서의 태도와 자질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실제 현장으로의 투입을 전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의 연구단계부터 하반기 연구의 시행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단체글로벌ACE에서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을 주관하며 개발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보완 실행하였다.

<새활용강사 양성 과정>은 도슨트양성부분의 10강을 반드시 이수해야 강사양성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도슨트양성부분의 10강이 쓰레기와 재활용, 새활용의 경계에 대한 탐구, 새활용의 새로운 움직임 등 새활용플라자에서 추구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안에서 수강자들은 탐방을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탐방 방문객들의 여정을 분석하여 방문객 여정지도를 작성해 보고, 작성한 여정지도를 토대로 도슨트의 필수 요건-발음, 발성 등의 호흡법 및 청중에 대한 에티켓-을 연습, 파악하며 다른 수강자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비교하는 자극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나는 전달자? 해설자? 도슨트?'라는 강의를 통해 본인만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를 소리내어 표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전문평가위원들 앞에서의 시연을 통해 전문가로 다가갈 수 있었다.

강사양성부분은 교육콘텐츠 기획을 위하여 소재의 얼굴을 살펴보는 강의로 시작하였다. 소재에 대한 탐색과 탐구로 다양한 새활용 소재를 살펴보고, 본인이 기획한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전문강사로 양성되기 위한 교육공학적 접근은 대학의 교육전공자들이 들을 수 있는 양질의 수업으로 교육기획안의 작성방법부터 새활용교육에 대한 문제인식과 가설형성에 이르는 방법론을 익히고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시연하는 단계를 거쳤다.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the first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attempted by the Seoul Upcycling Plaza, is the content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Upcycling Academy refers to all training programs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4S program (Seed-Sprout-Sapling-Sup), of which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s Sapling level program. The program was based on the premise of putting into the real field after training a professional commentator for the main program “Upcycling Story” and completing systematic education to cultivate attitudes and qualities as an instructor. The group, Global ACE that developed the program from the research phase to the implementation the study, hosted the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supplemented them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site.

<Upcycling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s designed to receive the instructor training program only after completing 10 lessons of docent training. This is because the 10 lessons consist of basic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change of social awareness, pursued by the Seoul Upcycling Plaza, such as garbage and recycling, exploration of upcycling boundaries, and new movements of upcycling. In education, participants think of visits as a concept of service design, analyze the visitor’s journey and create a visitor’s journey map. Based on the journey map drawn up, the participants practiced and gasped docent’s essentials-breathing techniques such as pronunciation, vocalization, and etiquette for audience. They also had time of stimulation and sharing to compare their voices with those of other participants. In addition, through the lecture ‘Am I the Messenger? the Commentator? the Docent?’, they had time to think about their identity, find their own voice, express their voice out loud, and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through demonstrations in front of expert evaluators. Through this experience, they were able to get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n expert.

Instructor training section started with a lecture that examines materials for the planning of educational contents. It is a process to examine various new materials by exploring and researching materials and link them to the education designed by themselves. Educational engineering approach to train as a professional instructor is a high-quality class that can be taken by education

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시행단계 모듈은 수강자의 모집, 심사, 수업, 평가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7월 초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중 1, 2차의 심사(서류와 면접)를 거쳐 수강자를 선발하였다. 이력 부분에서 전문강사의 경험이 있는 수강자를 우대하였으나 접수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전공과 경험이 무관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여성군이 대부분이었다. 연령과 경험 부분에서의 편차가 심해 심사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여 수강자를 심사, 선발하였으며 이 부분은 전문강사진에게 사전회의를 통해 전달하여 강의 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평가는 도슨트양성과정이 끝나는 10차시와 강사양성과정이 끝나는 19, 20차시에 시연과정으로 전문평가위원들 앞에서 진행되었다. 도슨트양성과정의 시연은 본인들이 작성한 도슨트 대본을 가지고 탐방루트에 따른 장소를 정해 시연하였고, 강사양성과정은 수강자들이 기획한 교육안을 15분 동안 '도입-전개-마무리'의 세 단계로 압축하여 발표하였다.

도슨트양성과정 이후 20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도슨트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과정으로 기존 탐방을 청강하는 보조 도슨트 10시간, 팀을 짜서 본인들이 직접 탐방을 진행하는 팀 도슨트 9시간, 생활용플라자 내 예약되어있는 탐방을 직접 해 보는 개인 도슨트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양성과정에서는 우수발표자 4명을 선발하여 겨울방학특강에 1차시씩 본인들의 교육기획안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연구부터 시행까지의 8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특히 취미생활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으로 접근하는 성인 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자들에게는 새로운 생활용 직업군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수료 이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전달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에게 많은 기대와 취업 연계부분을 수업초반부터 어필하였다. 내년도 향후 계획의 유동적인 변동과 수료란 취업 연계가 아닌 전문가양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폐기물 엔지니어, 건축가, 화학자들의 주장과 언급으로 출발한 '생활용'은 이제 철학과 미학 등 사유의 상징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생활용이라는 콘텐츠의 잠재적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수료자들은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교육이라는 매개체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majors of colleges, and has gone through the steps of learning, developing, and demonstrating a class model ranging from how to prepare education plan, recognizing problems about upcycling education, and methodology leading to hypotheses formati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stage modules of the program were conducted in four stages: recruitment, screening, class and evaluation of the students. We started recruiting in early July and held a preliminary briefing session. In August, students were selected after 2 rounds of screening (application and interview). In application part, ones with instructor experience was given priority. Yet, most of applicants ranged from 20s to 60s were women who were preparing for the second leap regardless of their majors and experiences in education. Considering the variation in age and experience, students were screened and selected. This was informed to the professional instructor team through pre-meeting for reference.

Evaluation was done as a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expert assessment committee in 10th, 19th and 20th of docent training courses. The demonstration of docent training course was performed by selecting the location according to the tour route with the docent script written by the students. In the demonstration of Instructor training course, the curriculum planned by the participants was presented in 3 stages of 'Introduction-Development-Conclusion' for 15 minutes. There was 20 hours of volunteer work after docent training course; 10 hours for assisting existing docent tour to prepare for deployment on site, 9 hours for conducting own tours in teams, and 1 hour for leading reserved tour in SUP by oneself. In the instructor training course, four excellent presenters will be selected and the classes will be conducted with their own education plan for each session during winter break courses.

There have been many trials and errors during the eight months from the research to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particular, it was the most difficult task to adjust the standards of adult candidates who approached the program as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not as a hobby. The program's graduate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form a new working group. However, despite the detailed delivery of the current situation that could not lead to

서울 새활용 플라자

2019 도슨트 / 강사 양성 교육

SUP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10회)

- 09.03 쓰레기 소리, 변화를 위한 목소리
- 09.05 재활용과 새활용의 경계
- 09.10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새활용 움직임
- 09.17 '나'는 어떤 사람일까
- 09.19 나는 전달자? 나는 해설자? 나는 도슨트?
- 09.24 설득의 상호작용
- 09.26 변화를 위한 목소리
- 10.01 경계를 넘는 첫걸음
- 10.08 자각과 공유
- 10.10 스포트라이트, 출발선 위에서

강사 양성 프로그램 (10회)

- 10.15 소재의 얼굴을 살펴보다
- 10.17 소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 10.22 새활용, 교육으로 보다
- 10.24 새활용, 교육으로 풀다
- 10.29 새활용,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다
- 10.31 새활용, 교육으로 쓰다
- 11.05 새활용, 교육으로 말하다
- 11.07 새활용, 교육으로 체험하다
- 11.12 새활용, 교육으로 액션하다
- 11.14 새활용, 교육으로 듣다

교육기간

2019.09.03 - 2019.11.24
(20회)

교육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배움터

모집정원

40명

모집기간

2019.07.01 - 2019.08.09

수강료

10만원

서류접수 및 면접 기간

1차 서류마감 2019.8.09
2차 면접일정 2019.8.23

교육요일

화요일 목요일

교육대상

일반인

수강자 확정 발표일

서류발표 2019.08.16
최종발표 2019.08.26

교육시간

09:00 - 12:00

신청구분

개인 (1명)

문의전화

02-2153-0440
02-2153-0441

* 강의내용과 날짜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many expected and appealed for direct link to employ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class. There is a need to consistently emphasize the flexibility in plans for next year and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raise experts, not for job employment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Upcycling” started from claims and mentions by waste engineers, architects and chemists. It is no longer a symbolic area of philosophy and esthetics but became an area of concrete and realistic experience.

Training experts in this field is intended to convey the possibility for experiencing the potential functionality of upcycling contents. Program graduates will have to explore and constantly study ways to convey the above possibilities as intended by the program as a medium of education.







새활용브런치

새활용브런치는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사회의 동향에 부합되는 교육으로, 삶과 환경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새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새활용 교양 프로그램이다.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직접 정의 내려보고, 모둠별 토론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재활용과 새활용의 개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더불어, 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 프로그램인 “새활용이야기”에서 소개된 내용에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덧붙여 새활용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점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새활용브런치는 재활용과 새활용의 경계에 대해 탐구하며 새활용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참가자들이 함께 간단한 브런치를 즐기며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버려진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시청각자료를 함께 시청한 후, 투기·소각·매립 등 쓰레기가 처리되는 방식을 학습한다.

또한, 국내외 새활용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새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외에서 유행하는 빈티지마켓의 사례가 있다. 국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옷이나 장신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빈티지 마켓에서 새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헌옷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새활용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새활용에도 나라별, 기후별, 대륙별 세대별 문화적 차이가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

새활용브런치는 와우보드 아이디어 발상 전문 교육기구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디어 발상 첫번째 활동은 재활용의 장단점을 메모지에 적어서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해본다. 두번째로 새활용을 명사, 형용사, 동사를 사용해 직접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설명을 듣고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든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든 새활용의 개념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Upcycling Brunch

Upcycling Brunch i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suits the current social trend where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is emerging, allowing participants to ponder deeply about life and environment and continue to improve awareness and practice of upcycling. By defining and comparing recycling and upcycling in a group discussion, participants are abl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In addition, this program provides a variety of references and data to the contents introduced during the “Upcycling Story,” a tour program around the Seoul Upcycling Plaza. It provides a time to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and importance of recycling and upcycling to identify how they affect our lives and how they can be implemented.

Upcycling Brunch explores the boundaries of recycling and upcycling and assists in developing positive awareness on upcycling. As the title suggests, this program creates a comfortable atmosphere where the participants actively communicate while enjoying a light brunch together. After watching a video on the journey of waste, they learn how garbage is handled: speculation, incineration, landfill, and ocean dumping, and take a look at various cases of upcycling being applied in real life in Korea and abroad.

The main example is a vintage market trending overseas. Vintage markets, where upcycling is actively practiced, are gaining popularity throughout the public by offering clothes and accessories at a reasonable cost. However, due to existing taboo against second-hand clothes in Korea, upcycling culture hasn't yet been active. From those examples, participants can realize how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climate, continents, and generations are applied to upcycling, and think about how upcycling can be practiced in Korea.

Upcycling Brunch utilizes Wow-board, an educational tool for brainstorming, to derive various idea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first activity of ideation process is writing down the pros and cons of recycling on a post-it, and sharing them with the group members. After that, participants define upcycling in noun, adjective, and verb form, and create their own definition of

생활용브런치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다른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과 생활용의 차이와 개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생활용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그렇다가 97%로 매우 높게 답변되었다. 이렇게 생활용 개념화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니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실천 동기를 가지게 되고, 돌아가면 실생활에서 생활용을 꼭 실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UPCYCLING
BRUNCH

생활용의 가치와
재활용과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새활용 브런치

대상	성인 누구나	수강료	5000원(간단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장소	1층 미디어실	신청 방법	서울생활용품라자 홈페이지
일정	9월 30일 - 12월 27일 매주 금요일 am 10:00 - 11:20	문의	02-3153-0440, 0441 화-금 am 9:00 - pm 18:00
*특강	9월 5일 1회 am 10:00 / 2회 pm 2:00 2층 생활용배움터 (이 날은 수강료 무료입니다)		

upcycling This process provides deep and subjective understanding on upcycling that goes beyond passive understanding.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recycling and upcycling during the process of sharing ideas with others. Also, 97% of the participants chose “strongly agree / agree” on a survey question, <I have learned a lot about upcycling through the program>. They said that they were eager to practice upcycling in their daily life since they have gained understanding and motive for upcycling.







새활용이야기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 확산의 거점 공간으로 시민들이 새활용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이다. 2017년 개관 이래로 새활용Upcycling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을 위해 탐방, 교육, 전시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이야기는 도슨트와 함께 새활용플라자 안의 공간 새활용하우스, 소재은행, 꿈꾸는 공장과 새활용 콘텐츠를 가지고 입주한 기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 서울하수도과학관, SR 센터를 요일별로 다르게 연계하여 인근 자원순환 시설을 안내한다. 탐방에 참여한 시민들은 환경문제와 새활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며, 이후 다양한 새활용체험교육으로 참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새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건물 안에 있는 각 공간의 쓰임새와 교육 프로그램, 전시작품 등을 소개한다. 새활용 플라자에는 꿈꾸는 공장, 새활용하우스, 소재은행, 입주기업, 아름다운가게, SUPer MARKET, 전시 등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이 있다.

탐방에 앞서 새활용이 재활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해 놓은 시각자료를 통해 두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고, 새활용플라자 내 작품과 제품의 해설을 더해 폐자원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만나 재구성된 업사이클 과정의 이해를 돕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새활용 폐기물을 결합한 제품인 [꿀벌구조대 Bee119]가 있다. 진공청소기의 폐모터 등을 활용해 도심에 생긴 꿀벌 무리로 인해 벌집제거 과정에서 벌들을 죽이지 않고 옮기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소방관들의 요청으로 기획된 제품이다. 디자인 창작자인 꿈꾸는 공장x인라이튼x어반비즈서울이 협업하여 제작했고 현재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1층에 전시되어 있다.

새활용플라자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들은 폐자원이 소재로 재순환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제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Re-birth된 것들이다. 공간 곳곳에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함축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임을 탐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탐방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곳은 바로 B1층 소재은행이다. 소재은행은 새활용 소재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짓는 곳으로 새활용 디자이너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새활용 소재를 사고 팔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Upcycling Story

Seoul Upcycling Plaza is the world's largest cultural complex for upcycling, where citizens can see and learn about upcycling. Since its opening in 2017, SUP has been operating tours, education programs, and various exhibitions to increase awareness of upcycling among citizens. <Upcycling Story> is a program led by a docent, introducing facilities in SUP including Upcycling House, Material Bank, Dream Factory, and many resident workshops to citizens. This program also associates with Beautiful Store, Seoul Sewerage Science Museum, and SR Center by days of the week to guide through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nearby. The main purpose of the tour is to ensure that citizen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tour have gained awareness on upcycling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other educational programs in SUP.

This program guides visitors to the Seoul Upcycling Plaza through each facility and space of the building, education programs, and exhibition works to ensure that they gain correct perception and awareness on upcycling. There are various facilities and spaces in SUP, including Dream Factory, Upcycling House, Material Bank, Resident Workshops, Beautiful Store, and SUPer Market.

Prior to the tour, participants take a look at a visual material on the comparison between recycling and upcycling and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s. Docent talks about the exhibition work in SUP to help visualize the concept of upcycling, which is a combination of design and waste material.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is Honeybee Rescue - Bee 119, a product that upcycling waste materials are combined. This product utilizing discarded vacuum cleaner motor was designed at the request of firefighters to help them refrain from killing bees in the process of hive removal. Produced by Dream Factory, Enlighten, and Urban Bees Seoul in collaboration, it is currently operated as a consortium and is displayed on the first floor of SUP.

Works installed in SUP are waste materials that have gone through the Re-birth process, being recirculated into usable materials. Implications of the upcycling process throughout the space of SUP and close relationship among them are noticeable while taking a tour around SUP.

탐방에서는 이곳이 새활용 소재공급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임을 강조한다. 소재은행의 소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연8톤 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업체와 협회 등 예비 창업자들에게 소재 중계역할을 하여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 공급망을 구성한다.

콘텐츠 개발, 협동조합, 의류브랜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40개 입주 기업이 3층, 4층에 입주해 있으며 시민들은 새활용 소재 활용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최근 소재은행, 입주기업, 업사이클링 판매 제품의 연간 수익, 새활용 정책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된 새활용도슨트, 강사 양성 20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수강생 중 선발된 4인이 2020년 방학특강 프로그램 새활용 강사가 된다. 수강생들은 환경문제와 새활용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향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탐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오거나 탐방시간 이외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 1층 프론트에 구비되어 있는 셀프탐방지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동선을 계획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제 나라, 연령, 목적이 다양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방문객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타겟팅 분석을 통한 도슨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관람객에게는 전문 영어 도슨트를 제공하고 대상에 맞는 세분화된 도슨트 프로그램을 갖춰 새활용플라자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새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새활용 문화 확산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first place introduced to the visitors is the Material Bank located on the B1 floor. Material Bank links supply and demand of upcycling materials, and not only upcycling designers but also ordinary citizens can buy and sell them.

Tour emphasizes that SUP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upcycling materials. Material Bank is an online-offline platform and is brought in about 8 tons of materials per year are supplied through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It forms a supply network for upcycling materials to prospective start ups such as upcycling entrepreneurs, and associations.

40 resident workshops, consisting of various contents such as content development, cooperative association, clothing brands are located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of SUP and citizens are able to view a variety of contents based on the use of upcycling materials. Significant increase in annual revenue of the sales of upcycling products, resident workshops, and Material Bank, and also, upcycling policy support project, show the recent increase in the interest of citizens toward upcycling.

In addition, four students selected from the Upcycling Docent, Instructor Training program 2019, will become upcycling instructors for the Summer School program in 2020. Participants are citizens who are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nd upcycling. Such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will aid in improving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in the future.

SUP Tour program is currently operated with a first-come-first-served reservation system through the website. However, a self-explanatory guidebook is available at the front desk for visitors who were not abl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tour, so they could explore SUP on their ow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docent program that analyses and considers the country, age, and purpose of the visitors. It is expected for SUP to become an important hub for the spread of upcycling culture by offering detailed docent programs and opportunities for upcycling activity, that suits international visitors visiting with high interest.





2019 OF SUP



UPCYCLING ACADEMY

새활용 캠프

Upcycling Camp

상상놀이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디자이너 및 작가들과 함께 버려진 소재를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새활용 디자인 체험 교육이자 어린이 업사이클러 프로젝트 <상상놀이토>를 진행하였다.

4월 6일 토요일 1회를 시작으로 12월 14일 19회까지 37번의 수업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졌으며, 총 300여명의 학생들이 새활용의 의미가 담긴 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통해 새활용 어린이 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렉도베르소, 엠에이피교육공작소, 글라스본, 유리작가, 하이사이클, 터치포굿, 새움, 아르크마인드, 김태연작가, 위드드론, 오윤우, 쉼어라이트, 새봄, 밀키프로젝트, PLAY31, 쿡바이크, 스플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대표하는 많은 입주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우수한 새활용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참여와 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실행할 계획이며 연간 2만 명의 방문객들 중 약 70%를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새활용의 가치를 담은 더 유용한 학습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Imaginative Activity Saturday

An upcycling design experiential education <Imaginative Activity Saturday> is a children's upcycler project conducted with resident workshops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Starting with the first session on April 6th, 37 classes were held every Saturday until December 14th. This was its second year since 2018. About 300 students participated and had the valuable experience of the upcycling workshop, and that made it possible for this program to become a representative upcycling education program.

Representative resident workshops joined the program, including Rectoverso, MAP Education Workshop, Glass Born, LEE Yuri, Hicycle, Touch4Good, SEUM, arc_mind, KIM Tae Yeon, With Drone Coop, OOWNU, ShareLight, saebom community, Milky Project, PLAY31, Keuk x keuk, and Space Plus Art. It was an excellent experiential program based on upcycling contents, and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In the future, Seoul Upcycling Plaza will plan and hold more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to draw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and make a lot of efforts to serve as a more useful learning place containing the value of upcycling for students who take up 70% of 20,000 visitors per year.

생활용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무전력 휴대폰 스피커 만들기

일시 | 5월 04, 11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1층 555 창작실
강사 | 정미영 교육지원교사

공룡알 유리 조명 만들기

일시 | 5월 18, 25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김민수 생활용 작가

생활용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작은 숲 패턴 재활용 Art

일시 | 6월 01, 08, 15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김민수 작가

병뚜껑 모자이크 Art

일시 | 6월 22, 29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김민수 생활용 작가

생활용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양말 고양이 '나비드' 이야기

일시 | 7월 06, 13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김민수 작가

내 멋대로 시계 만들기

일시 | 7월 20, 27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1층 창작실
강사 | 김민수 작가

생활용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팝아트

일시 | 8월 03, 10, 17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정미영 교육지원교사, 김민수 작가

비닐직물 액자 만들기

일시 | 8월 24, 31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생활용품몰라자 2층 생활용매물터
강사 | 김민수 생활용 작가

생활습관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나비의 꿈

책봉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자연스런 및 자연의 구조물을 만들
목도르봉봉봉봉봉

일시 | 9월 07, 21, 28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새활용플러자 2층 새활용매물터



생활습관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HAPPY HAPPY FACE

일시 | 10월 05, 12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새활용플러자 2층 새활용매물터
강사 | OOH VDOING 및 EDOING 팀

양초로 작동하는 LED램프

일시 | 10월 19, 26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새활용플러자 2층 새활용매물터
강사 | HAKJIN의 자연인 DAE



생활습관이 있는 토요일

상상 놀이도

교육 프로그램

콜라주 상상정원놀이

일시 | 11월 02, 09, 16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새활용플러자 2층 새활용매물터
강사 | HAKJIN의 자연인 DAE

우유팩 미니파우치

일시 | 11월 23, 30 일 [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새활용플러자 2층 새활용매물터
강사 | HAKJIN의 자연인 DAE











새활용수리소

새활용수리소는 새활용주말캠프의 일환으로 입주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를 가지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며, 2019년 10월 12일(토) <장난감병원>을 시작으로 <UP-FUR>가구 수리소, <리페어 카페>, <한복RE&UP>, <Re:服: 헌 옷으로 실크스크란>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입주기업 인라이튼과 함께 한 ‘지구를 살리는 전자제품 되살리기’ 운동인 <리페어 카페>는 11월 2일(토) 오후1시에서 저녁7시까지 6시간 동안 1층 꿈꾸는 공장에서 진행되었다.

<리페어 카페>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사회 혁신 운동으로, 기술장인과 함께 고장 난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행사이며, 참여자들이 각자 가정에서 방치된 고장 난 제품을 가져와 직접 수리해 보는 자가 수리 행사로, 이미 전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라이튼의 기술 장인 5명은 직접 전자제품 분해 해체 쇼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E-waste관련 다큐를 상영하면서, 참여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오래 쓰는 것이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인라이튼의 철학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총 149명이며, 제품 수리 성공률은 68%, 행사 만족도는 95%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향후에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꿈꾸는공장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Upcycling Repair Shop

Upcycling Repair Shop is part of the Upcycling Weekend Camp and is a program to experience various upcycling materials with citizens in cooperation with resident companies. Starting with the <Toys Hospita>l on October 12, 2019, it was held five times in total: <UP-FUR> furniture repair shop, <Repair cafe>, <Hanbok RE&UP>, and <Re:服: Silk screen with discarded clothes>.

Especially, Representative resident workshops joined the program, including Rectoverso, MAP Education Workshop, Glass Born, Lee Yuri, Hicycle, Touch4Good, SEUM, arc_mind, Kim Tae Yeon, With Drone Coop, OWNNU, ShareLight, saebom community, Milky Project, PLAY31, Keuk x keuk, and Space Plus Art. It was an excellent experiential program based on upcycling contents, and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In the future, Seoul Upcycling Plaza will plan and hold more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to draw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and make a lot of efforts to serve as a more useful learning place containing the value of upcycling for students who take up 70% of 20,000 visitors per year.

A total of 149 people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68% succeeded in repairing their products, and 95% showed high satisfaction. Seoul Upcycling Plaza plans to actively pursue contents that can be shared with citizens using Dream Factory.

리페어 카페

@서울 생활용 플라자 2019.11.2. SAT

고장 난 제품을 되살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

REPAIR CAFE

* 리페어 카페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사회 혁신운동으로
기술장인과 함께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행사입니다.
드립커피를 즐기며 집안에 방치된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보세요!

행사개요	신청 방법
일시 2019. 11. 2 (토) 13:00 - 19:00	모집 기간 2019. 10. 14 - 11. 01
장소 서울 생활용 플라자	모집 절차 서울생활용플라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신청
대상 전자제품을 고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문의처 apply@wefixup.world 02-6959-9080
참가비 무료	




SUP X 세움

세움은 전도
생활수리소 인

우리집 가구를 새롭게!

가구수리소

우리집의 **한 가구**를 수리하고 확인하면서 **리폼**하고,
자투리 목재로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요!

일시	2019년 11월 8일(목) / 11월 10일(토) 10:00 ~ 12:00
장소	서울생활문화역 1층 영작실과 텃밭
참여자	우리집 한 가구를 먼저게 번신시키고 싶은 생년남녀 35명
모집절차	<p>1. 사전접수 → 2. 최종선발 → 3. 가구수리 (10:00~12:00) 4. 마감 및 전달 → 5. 상담 → 6. 가구수리소 개강</p>
참가방법	꼭지거나 리폼 하고 싶은 가구사진을 포함한 참여신청서 와 사전접수 이메일(iss07@hotmail.com)로 접수
신청기간	2019년 10월 10일(목) ~ 11/3(일) 20:00
최종선발일	2019년 11월 4일(월) 15:00
참가비	전액 세움에서 지원
문의 및 접수	세움, 집지민 전담 (02-2153-0496)

I-SEOUL-U **SUP**

[illegible]

hanbok

re
and
up

한복 리 & 업

2019.10.19(토) ~ 11.09(토)
SUNGUPSTEEL PLAZA





SUPer 젠가대항전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아나키아, 우드마스터와 손잡고 버려지는 자투리 목재를 활용하여 거대한 젠가를 제작하여 2019 SUPer 젠가대항전을 진행하였다. 2019 SUPer 젠가대항전은 업사이클링 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의 차원을 뛰어넘어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박진감 넘치는 놀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2019 SUPer 젠가대항전에 참가한 64명의 열정게이머들은 폐목재의 놀라운 변신을 직접 확인하고 순발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뽐내며 한껏 들뜬 모습으로 토너먼트식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매 순간 높은 집중력으로 열심히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게임이라는 놀이방식을 서울새활용플라자 교육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도입해보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보여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SUPer 젠가대항전을 진행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SUPer Jenga Competition

Seoul Upcycling Plaza joined up with upcycling start-ups 'Anarchia' and 'Woodmaster to produce huge Jenga pieces with leftover wood supplies and held 2019 SUPer Jenga competition. 2019 SUPer Jenga competition is a program designed to link upcycling of waste resource with exciting games, beyond the experience of making upcycling props.

The 64 passionate game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9 SUPer Jenga competition were engaged in every moment with high concentration to become the final winners in the tournament-style game, seeing firsthand the amazing transformation of waste wood, showing off their agility and creativity.

This program was ver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program to adopt a game format into the SUP education program. It made a great appeal to upper elementary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raising expectations of SUPer Jenga competition being held in the long term.





SUP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10월19일(토) 9시부터 20시까지 4인 기준 가족 15팀을 사전 모집하여 잔디광장, 꿈꾸는 공장, 새활용하우스, 소재은행, 2층 데크 등 서울새활용플라자 곳곳에서 업사이클링 캠핑 용품을 만들어 이색적인 캠핑을 경험해볼 수 있는 ‘SUP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크스크린을 활용하여 온 가족 커플티와 캠핑 의자를 만들어 보고, 소재은행의 소재를 활용한 캠핑 용품 및 새활용 텐트 꾸미기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SUP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족단위 나들이이벤트(아나키아), 업사이클링 캠핑용품만들기(키트 무드등과 우드스피커제작/꿈꾸는 공장), 가렌더만들기(큐클리프), 캠핑의자와 테이블만들기(렉토베르소)로 구성되었으며 메이커 체험교육과 야외 캠프가 어우러진 도심 속에서 이색적인 힐링을 온전히 느껴보는 새활용만의 독특한 주말캠프 모델을 제시해주었다.



Healing Camp with SUP

Seoul Upcycling Plaza hosted “Healing Camp with SUP” with 15 teams of four-member families, from 9pm to 20pm on October 19th. They allowed visitors to have an extraordinary camping experience by creating upcycling camping equipment in various parts of SUP, including the Grass Square, Dream Factory, Upcycling House, Material Bank, and deck on the 2nd floor. The program consisted of a variety of detailed programs in which all members of the family could participate together program, such as making a family matching T-shirt, camping chair using silkscreen, and decorating an upcycling tent with upcycling materials from the Material Bank. The detailed programs included family picnic event (Anarchia), upcycling camping gear workshop (Kit mood light and wooden speaker making workshop/Dream Factory), garland making workshop(Cueclyp), camping chair and table making workshop (Rectoverso). It presented a unique weekend camp model for SUP, where we can fully feel exotic healing in the city center, where the experience of Maker Education and outdoor camps are combined.









아버지커피학교

아버지커피학교는 커피와 인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생활용 문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고 시음하며 미식문화를 쉽게 접하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성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품격 있는 취미를 가지고 싶은 남성분들을 위한 MEN ONLY 커피학교 가비양 아카데미와 서울생활용플라자가 함께 기획하였다.

가비양 아버지 커피학교는 생산적이며 품격 있는 진정한 취미가 있는 남자를 양성하려는 취지 아래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스페셜티 커피회사이며 가비양 커피아카데미는 9년 전부터 커피관련 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한 커피문화의 대표 아카데미이다. 특히 이번에 주 참여자인 아버지들은 본 수업을 통해 섬세한 미각을 다루면서 향상될 수 있는 풍부한 감성과 표현법에 대해 배워보고 촉각을 세워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그간 어린이에게만 집중되었던 서울생활용플라자에 타겟층을 아버지까지 확대하였으며, 일상과 밀접한 식 문화를 커피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생활용 식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Father's Coffee School

2019 Father's Coffee School is a new program with new way of upcycling culture, where coffee is combined with humanity, designed to help fathers make, taste, and upcycle within life at home and outside. This program is carried out in association with men only coffee school Gabeeyang Academy for men who are willing to have a decent hobby.

With the aim of nurturing men with productive and classy hobby, Gabeeyang Father's Coffee School has been running since 1998 to the date. Gabeeyang Coffee Academy is a representative academy among coffee culture, producing about 3,000 students since nine years ago. Main target for the program and this group of participants in particular was to help fathers gain delicate sense of taste and enhance sensitivity on their sight towards their daily lives. It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7th to November 17th. The program was highly valued as it expanded the target of Seoul Upcycling Plaza from children to fathers, and how it enhanced accessibility to upcycling by linking coffee, which is a closely connected food culture.





GS숍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바자회

서울새활용플라자는 11월 03일 플라자 앞 잔디광장과 새활용 거리에서 GS숍과 함께 입주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의 협력을 받아 ‘새활용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GS숍은 수년 전부터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인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지난해 인기 상품이나 리퍼브 제품들을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과 공익 단체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부 활동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새활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서울새활용 플라자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적극적 행위인 ‘새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자회 행사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루만 진행되는 행사였으나 GS숍이 가진 네임밸류 가치 및 행사의 취지와 새활용이라는 호기심이 더해져 오픈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약 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바자회에 참여하였다.

‘새활용 나눔 바자회’에서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의 다양한 제품이 시중가보다 50~8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새활용 거리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비닐봉지가 아닌 개인 장바구니를 들고 참여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재활용과 새활용이 시민들 일상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희망이 보였다. 다만 ‘새활용’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좋은 취지의 행사가 그저 잔디광장과 새활용 거리라는 장소에만 제한되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행사장을 조금 더 확장하여, 새활용플라자 내부로 유도 동선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내부도 체험하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입주기업들의 상품을 같이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면 행사 취지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Beautiful Bazaar with GS Shop

On November 3rd, Seoul Upcycling Plaza held an “Upcycling Sharing Bazaar” with GS Shop on the grass square and upcycling street. GS Shop has been working together with the Beautiful Store for years through “Creating a Warm World,” a program that supports the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to grow and helps them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They have been selling popular products and refurbished products at bazaars and supported neighbors and public corporation with the profit from the bazaar. This year in particular, the event was held at Seoul Upcycling Plaza with an aim to inform citizens about “upcycling”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for dona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Various education program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during the bazaar event to help understand “upcycling,” an active act that protects the environment through resource circulation. Despite the event was held for only a day, many citizens gathered even before the opening hours with their curiosity towards GS Shop and the purpose of the event, which was upcycling. About a thousand of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bazaar.

At the “Upcycling Sharing Bazaar,” various products from the world’s leading brands were sold at 50-80% off of the market price. There was a positive hope that recycling and upcycling had begun to settle in the citizens’ daily lives, with many citizens refraining from using disposable products on the streets and utilizing personal shopping basket instead of plastic bags. However, it was regrettable that events with such a good purpose under the title of “upcycling” were limited to just grass square and upcycling stree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 venue was expanded a little further into Seoul Upcycling Plaza, so experience with facilities and promotion of the plaza itself along with resident companies could have been made.





농부의 시장 ‘고맙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9년 봄을 맞이하여 4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새활용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인 ‘새활용 캠프’ 운영을 시작하였다. ‘새활용 캠프’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새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방안을 체험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써,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업사이클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상상놀이토’, 업사이클링 소재를 만들어 보는 ‘소재구조대’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장터인 ‘농부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주말에 새활용하우스 내부와 새활용 거리에서 새활용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건강한 식자재 및 웰빙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농부의 시장’은 농부들의 땀과 정성에 보답하는 의미로 “고맙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자연에서 얻은 농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즉석요리를 시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행사 현장은 버려진 폐현수막으로 만든 천막, 목재 팔레트와 가구 부품을 이용해 제작한 테이블 및 손글씨로 제작된 농부들의 간판 등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하여 꾸며졌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농부의 시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시민참여 문화 행사 운영 계획에 맞게 장바구니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먹거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릇대여소도 운영하였다. SNS를 통해 입점을 문의한 농부와 셀러들, 그리고 서포터즈로서의 색다른 체험을 원하여 봉사활동 신청을 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였다.

이미 서울 곳곳에서는 ‘농부의 시장’ 같은 주말 마켓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혜화동의 ‘마르쉐’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파머스마켓’처럼 지속적, 정기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농부의 시장이 활발하게 퍼져가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긍정적인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도 단발성이 아닌 향후 몇 년 혹은 그 이상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제2, 제3의 ‘농부의 시장’이 생겨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Thank You’ with Farmers Market

Seoul Upcycling Plaza began to operate ‘Upcycling Camp’ an educational program experiencing various upcycling culture for family visitors every weekend from the spring of 2019.

‘Upcycling Camp’ is design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n value and meaning of upcycling for sustainable Earth and to help experience practicing upcycling in daily life. The program consists of ‘Imaginative Play on Saturday’ an education program of upcycling companies and experts at SUP, ‘Materials Rescue Team’ a hands-on experience with upcycling materials, and ‘Farmers Market’ a market for 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on the first and third weekends of each month, ‘Farmers Market’ that offers the expansion of upcycling lifestyle, healthy food, and well-being diet, taking place inside and outside of the Upcycling House and Upcycling Street, was conducted with the slogan of ‘Thank You’ in return for the sincerity of farmers. It allowed citizens to enjoy a variety of food ingredients and dishes from nature.

The event venue was decorated with upcycling products, including tents made out of discarded banners, tables using wooden pallets and discarded furniture parts, and farmers’ signs with handwritten slogans. Seoul Upcycling Plaza encouraged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Farmers Market’ with appropriate understanding on the purpose of the event by bringing their own shopping baskets and tumblers. A dishware rental corner was arranged for participants’ convenience as well. Farmers, sellers, and many citizen helpers who applied for volunteer work in the hope of a unique upcycling experience participated in the event, enriching the venue.



Weekend markets similar to 'Farmers Market' have already been taking place in various parts of Seoul city. Farmers Markets are actively spreading on a regular basis in various locations, such as 'Marché' in Hyehwa-dong and 'Farmers Market' in Dongdaemun Design Plaza. Such events indicate how civic awareness has been enhanced. It is necessary for Seoul Upcycling Plaza to organize a link program for the next few years or more with unsparing support and continuous attention, in order to secure continuity for second and third 'Farmers Market'.

서울새활용플라자 x 농부의시장
고맙습니다
농부의 열과 함성에 보답하는 건강한 소비 참여
2019.4.6 - 12.22



각종 채소(고추, 양파, 버섯, 토마토, 당근, 콩, 팥, 콩나물, 콩부레 등)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일 시:** 매일 오전 10:00 - 18:00
↓ **장 소:**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 **준비물:** 개인 텀러와 텀러구니 등 지참 (1회용품 안함)

↓ **프로그램 소개**
농부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농부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텀러와 텀러구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차 - 2차 농산물
채소류: 고추, 양파, 버섯, 토마토, 당근, 콩, 팥, 콩나물, 콩부레 등
육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등
기타: 과일, 견과류, 허브, 차 등

↓ **요리하는 농부들**
과연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요리할까요? 농부들이 직접 요리를 선보이며, 참가자들은 농부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요리
농부들이 직접 요리하는 다양한 요리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농부는 재료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농부와 함께 재료를 키웁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x 농부의시장





새활용 페스티벌

UPCYCLING FESTIVAL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식

9월5일 개관기념전 행사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일인 9월 5일은 자원순환의 날로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새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9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새활용워크’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의(衣), 식(食), 주(住), 놀이(樂)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제로 라이프’를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다. 9월5일의 개관2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획 전시인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展’(9월 5일~12월 31일),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위한 시민기획단의 ‘플라스틱 프리 - 청년열린포럼’, 그린디자이너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와 함께하는 ‘0분의 1 그린 티셔츠 그리기 워크숍’, SK텔링크에서 진행한 SK바른폰 플랫폼 런칭 이벤트, 신한카드가 지원한 어린이 새활용 도서관 ‘아름인도서관’ 500호점 개관식 등 다양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약 1,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한 ‘새활용워크’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새활용이라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나누었으며, 시민들이 ‘제로 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까지 의(衣), 식(食), 주(住), 놀이(樂)의 다양한 제로라이프 행사들을 소개하였다.

SUP 2nd Anniversary Celebration

Opening Ceremony on September 5th

2019 OF SUP

September 5th, the opening day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SUP), is the Resource Recirculation Day. To reflect the meaning of waste materials being upcycled into resources with new value, SUP introduced various civic engagement programs on September 5th to 8th. In particular, this year, programs were organized to practice “Zero Life” in everyday life under the theme of clothes, food, life and entertainment. Starting with a ceremony mark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opening on Sept. 5, it was conducted with various hands-on and academic programs, including a special exhibition, the “Zero Waste Life” (Sept. 5th - Dec. 31st), the “Plastic Free - Youth Forum” by the civic planning group for Seoul without plastic, “1/0 Green T-shirts Painting Workshop” with Green Designer YOON Ho-seop, the “SK Barunphone Platform Launching Event” hosted by SK Telink, an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500th “Areumin Library,” a children’s upcycling library supported by Shinhan Card. With more than 1,400 citizens participating, ‘Upcycling Week’ shared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to practice the value of upcycling in citizens’ daily lives and introduced various zero life events from September to December to help citizens continue to practice ‘Zero Life’.

111

UPCYCLING FESTIVAL



2019
서울새활용페스티벌

09. 05
- 12. 31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이 인쇄물은 친환경 재생용지, 공기를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ZERO LIFE!

2019 서울생활용페스티벌

SEOUL UPCYCLING FESTIVAL

생활용유품

9월 5일 - 8일

개관 2주년 기념작
신한이플린트서전 한민서
이우타세츠 워크숍
한민서플린트팀 'SUPlastic Free'
제철용 용광로에서 재료 가열
제로 온도도취
에너지온도 불변을 한집 이플린트
피마노, 에케소

생활용포럼

사회참여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일사이를 적용기술 - 9월

도시정책
일사이를 도시인프라 구축전략과 국제협력 - 10월

미래혁신

세계시민에 참여하는 생태도시 - 11월

📍 서울생활용유품리자 서울서 생활구 생활자생활길 48

생활용페스티벌

의 차
세바나 | 폐선과 사회적 책임
공부현 | 생활용 폐선다마인 공부현

식 식

세바나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현 시 | Bee119 '불뚝구조단'

주 주

워크숍 | 난민을 위한 커뮤니티만
행 시 | 생활용유서소

놀이樂

세바나 | 창의적 조합놀이 만들기
워크숍 | 마츠인 스텝디오
생활용도메스토퍼
한민서플린트팀
한민서플린트팀
행 시 | SUPR행가 대결전
SUPR와 캠페인은 할일일

생활용전시

Zero Waste Life : 의·식·주·놀이

I-SEOUL-U SUP

I-SEOUL-U SUP





개관2주년 기념식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새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 9월 5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문을 열었다. 새활용플라자는 2년 동안 새활용 기업과 공방, 전시실과 상점, 재사용 작업장 등이 입점하여 시민 체험교실과 새활용 제품 전시 등 새활용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새활용플라자 2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서울새활용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의(衣), 식(食), 주(住), 놀이(樂)를 통해 새활용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개관 2주년 기념식은 김의승(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임영진(신한카드 대표이사), 박두준(아이들과 미래재단 상임이사), 김선중(SK텔링크 대표이사), 김상집(성동구청 복지국 국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개관 2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유미호(시민기획단), 김준혁(렉도베르소), 김경준(업사이클리스트), 이경림(ID 스튜디오), 장태원(아름다운가게) 분들에게 서울시장 표창장을 시상하였다.

2nd Anniversary Celebration

Seoul Upcycling Plaza opened in Yongdap-dong, Seongdong-gu, Seoul, on September 5th, 2017, with an aim to spread upcycling culture and create a upcycling industry ecosystem. The SUP has been working to expand the base of upcycling culture, including civic experience classes and upcycling exhibitions, for the past 2 years, with upcycling companies, workshops, showrooms, shops, and upcycling workspace. In particular, Seoul Upcycling Festival, celebrat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SUP, was designed for citizens to enjoy and practice upcycling culture through the concept of clothes, food, life and entertainment. The second anniversary celebration was attended by Kim Eui-seung (head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limate and environment office), Lim Young-jin (CEO of Shinhan Card), Park Doo-joon (executive director of the Children and Future Foundation), Kim Sun-joong (CEO of SK Telink), and Kim Sang-jip (director of the welfare bureau at Seongdong District Office). In addition, the Seoul Mayor's Award was awarded to Yoo Mi-ho (citizens' planning team), Kim Joon-hyuk (Rectoverso), Kim Kyung-joon (Upcyclist), Lee Kyung-rim (ID Studio), and Jang Tae-won (Beautiful Store) for their dedication to revitalizing the SUP.

새활용배움터에서는 신한카드가 지원한 어린이 도서관 ‘아름인도서관’ 500호점이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새활용과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지구환경과 관련된 장서로 꾸려져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도서관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정책이 협력을 이뤄 시민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우수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0th children's library "Areumin Library" supported by Shinhan Card opened at the upcycling learning center of Seoul Upcycling Plaza. The library is filled with books related to the global environment, including upcycl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conservation, and will also introduce education programs for the spread of the upcycling culture. The library is expected to be an excellent model for creating civil education infrastructur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and local public policies.







SK 바른폰 플랫폼 런칭 이벤트

SK Barunphone Platform Launching Event



SK텔링크에서 진행한 ‘바른폰’은 서울생활용플라자가 추구는 ‘웨이스트 제로’의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며 ‘새활용위크’에 참가해 중고폰 재활용 및 새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를 주제로 9월 5일 및 7일 이틀간 전시부스를 마련하였다. ‘바른폰’ 부스는 중고폰에 포함된 희귀금속자원의 시각화를 통해 휴대폰 재사용에 따른 자원 절감과 유해 물질 저감, 환경오염 감소로 중고폰 1대 당 3,250원의 에코코스트^{Eco-cost}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중고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바른폰’ 체험존에서 시민들은 중고폰 수거부터 판매, 정직한 시세조회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전문 솔루션을 통한 개인 정보 완전 삭제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바른폰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중고폰 활용의 새로운 가치를 인지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SK Telink sharing the ecofriendly value of ‘Waste Zero’ pursued by SUP, hosted “Barunphone” exhibition booth on September 5th and 7th under the the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recycling and upcycling of used phones during the “Upcycling Week” of SUP. Through visualizing of rare metal resouuces included in used phones, the “Barunphone” booth intuitively showed that it can save 3,250 won per second-hand phone by reducing resources, harmful substanc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reuse of mobile phones. In the “Barunphone” experience zone, citizens experienced collection and sales of used phones, market price inquiry, and complete elimination of their data on the phone. Through this event, it is expected for the citizens to recognize and practice of new value of using used phone that contribute to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daily life.

개관 2주년 기념일 기간에 청년들에게 재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청년열린포럼을 개최하였다. 서울재활용플라자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서포터즈를 구축하고, 약 3개월 동안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열린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에 참여한 약 80명의 청년들은 각자의 학교 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청년들의 플라스틱 프리에 대한 논점을 다루며 포럼 후 평가회의를 통해 활동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국민대학교 명예 교수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제로라이프의 의미를 담아 1/0 티셔츠 워크숍과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호섭 교수는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재활용의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During the 2nd anniversary celebration of SUP, a Youth Forum was held with a goal of spreading the upcycling culture to young people. The Youth Forum was held through various activities for about three months in conjunction with universities near SUP. About 80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forum shared school activities, discussed their perception on plastic free issue, and sought to improve their activities through a post-forum evaluation meeting. In addition, Yoon Ho-sup, an honorary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and a green designer, hosted a 1/0 T-shirt painting workshop and lecture on the theme of “Zero-Life”. Professor Yoon Ho-seop emphasized sustainable design by introducing design methodologies that can still be beautiful while minimizing waste and having enough awareness on waste problems arising in the design process. Through this forum and workshop, we hope that the upcycling culture could be expanded, and that sustainable future will be realized in the daily lives of young people.







제로푸드

Zero Food

생분해가 가능한 밀로 만든 접시를 사용하거나, 쿠키로 만든 컵 등을 사용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로 푸드를 컨셉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식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제로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본 행사에 가장 큰 가치로 두었다.

With the concept of zero food that prevents food waste from occurring, such as using plates made from biodegradable wheat or cups made from cookies, all participants have a new experience of eating. The greatest value for this event was to provide visitors to SUP and the event to gain a motivation to practice zero-life even after they return back to their daily life.

제로테드

Zero TED

개관기념일에 서울생활용플라자를 방문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적정기술과 업사이클의 연관성을 쉽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명지대, 경기대 등 7개의 대학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적정기술연합동아리^{ATUS}가 초등학생/중고등학생/가족/시민으로 참여대상을 나누어 생활용 제로TED 강연을 개최하여 낯설기만 한 적정기술과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To easily inform students and citizen citizens visiting SUP on the 2nd anniversary celebration day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proper technology and upcycling, the Appropriate Technology Union for Students (ATUS), composed of seven university association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and Kyunggi University,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amilies, and citizens, and held a new zero Ted lecture.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broaden awareness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upcycling.

서울논현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동호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꿈이룸 대안학교까지 42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이날 개관기념일에 참여하였으며 재활용에 대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층/4층 공간 전체에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입주기업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렉또베르소, 밀키프로젝트, 플레이31, 세컨드비, 큐클리프, 오윤우, 업사이클리스트 누각과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재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청년들의 환경벤처기업 얼라이언스 에코퀘스트 부스체험, 융복합적 체험교구인 4D프레임까지 11개의 교육콘텐츠가 체험부스로 마련되었다. 42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1시부터 3시까지 한꺼번에 방문한 학생들이 혼잡하지 않도록 세밀한 동선계획을 세웠다. 이날 방문했던 학생들도 '제로 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衣), 식(食), 주(住), 놀이(樂) 중 놀이(樂)에 해당하는 체험부스는 본 페스티벌에서 가장 생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장면들을 연출하였다.

About 42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2nd Anniversary Celebration. To provide a pleasant and beneficial experience for recycling, experience booths were prepared on the entire the 2nd and 4th floors to introduce various resident workshop contents. 11 educational contents have been prepared as experience booths, ranging from Rectoverso, Milky Project, Play 31, Second B, Cueclyp, Oh Yoon-woo, Nukak of Upcyclist, EcoQuest, and 4D Frame. A variety of experiences were prepared for over 420 students, and detailed movement plans were made to prevent congestion from 1 to 3. Entertainment booth in clothes, food, life, and entertainment, was the most dynamic part of the Seoul Upcycling Festival.







새로운 럭셔리 _ 윤리와 지속 가능성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한 자원에 대한 의식적 소비에 대해 관심을 키워왔고, 이는 내 삶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적 기술, 실크·면·리넨·울 같은 자연 소재, 샘플, 재고, 자투리 등 패션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료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라고 본인의 디자인 철학을 밝힌 독일의 크로스 컬처Crossxculture 대표인 에코 패션 디자이너 모니카 자벨Monika ZABEL이 ‘새로운 럭셔리의 기능인 윤리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서울생활용플라자 1층 생활용하우스에서 의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모니카 자벨Monika ZABEL은 패션을 대하는 소비자 태도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약 10여 년 전과 비교해 의류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소비의 중심에 선 밀레니얼 세대들은 럭셔리 패션에 열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 높은 가격, 품질, 심미성, 희소성 등 제품의 비기능적인 부분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린피스 보고서에 의하면 실험 대상 제품 중 60%의 제품에서 환경에 축적되어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소재의 활용법으로 재단 방법, 폐기물의 활용 및 리패션Re-fashion 그리고 새로운 자원의 개발 및 사용 등의 기술과 재활용 활성화 같은 윤리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9 서울생활용페스티벌 전체 주제인 의+식+주 제로 웨이스트라이프 중에서 <의>에 해당하는 본 세미나는 세계소비시장 2위를 차지하는 패션산업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그 실천방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사례로써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앞으로 생활용 <의>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New Function of Luxury

_ Ethics and Sustainability

About 42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2nd Anniversary Celebration. To provide a pleasant and beneficial experience for recycling, experience booths were prepared on the entire the 2nd and 4th floors to introduce various resident workshop contents. 11 educational contents have been prepared as experience booths, ranging from Rectoverso, Milky Project, Play 31, Second B, Cueclyp, Oh Yoon-woo, Nukak of Upcyclist, EcoQuest, and 4D Frame. A variety of experiences were prepared for over 420 students, and detailed movement plans were made to prevent congestion from 1 to 3. Entertainment booth in clothes, food, life, and entertainment, was the most dynamic part of the Seoul Upcycling Festival.

Referring to a shift in consumer attitudes towards fashion, Monika ZABEL said that apparel sales have doubled since about a decade ago, and the Millennial generation at the center of consumption is enthusiastic about luxury fashion. She said that they show high value for non-functional parts of the product, such as high price, quality, aesthetics and scarcity for luxury brands, but the Greenpeace report, 60% of the products tested contained chemicals that accumulate in the environment and disrupt hormones. Besides, she pointed out that companies should produce products considering ethical aspects such as tailoring method with sustainable materials, waste utilization and re-fashion,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and use of new resources, as well as recycling.

Linear Clothing System

Today's linear clothing system has damaging effect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

이번 서울생활용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을 통해 사회를 혁신하고, 미래 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그린인프라 및 생태 건축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 세션은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 분야 종사 기업, 기관 및 전문가와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을 통한 사회혁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제2부 세션은 적정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래형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 패널토의 형식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요코 아카마^{Yoko AKAMA (RMIT University)} 교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정기술을 통한 사회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곧이어 박헌균 박사^(ETRI_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개인용 담수화 장비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특히 박은현 대표^(웨어라이트)와 김상준 간사^(웨어라이트)는 버려지는 LED 소재를 업사이클링하여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는 제품인 ‘퓨리라이트’를 개발하고 직접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급하여 현지 주민들의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 발병률을 크게 낮춘 사례를 발표하였다. 제2부 세션은 여는 김현수 박사^(KICT_ 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오픈소스 과학기술을 활용한 SOC 고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 송위진 박사^(STEP1_ 과학기술정책연구원)는 사회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사례로 그린인프라와 생태건축 플랫폼 모델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생활 SOC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박미영 박사^(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 협동조합)와 박희제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의 진행으로 참가자들 간의 패널토의가 이루어지며, 적정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정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면서 본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본 포럼의 주제가 실천담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상황과 특색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해결 가능한 적정기술과 업사이클 개념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자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포럼의 연장선으로 서울생활용플라자를 방문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적정기술과 업사이클의 연관성을 쉽게 알리기 위하여

Upcycl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Society

5th Seoul Upcycling Forum was held to present a development paradigm to build platforms such as public services, green infrastructure, and ecological architecture for future life, and to innovate society through upcycl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society. Seoul Upcycling Forum was held in two sessions. First session was to share cases of social innovation through upcycl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for corporations, institutions, experts in the field of upcycl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and university students, and citizens participating. The second session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 panel discussion format to draw up 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genda for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latform establishment for appropriate technology experts.

Professor Yoko AKAMA who was the first speaker of this forum, shared a case of social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technolog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Korea. Soon after, Dr. PARK Hun-kyun presented the appropriate technology business model with the community through the case of personal desalination equipment. In particular, CEO PARK Eun-hyun and executive KIM Sang-joon presented their case in which 'Puri-Light', a water that purifies contaminated water by upcycling discarded LED materials,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directly to Tanzania in Africa to greatly reduce the incidence of waterborne diseases such as typhoid fever among local residents.

Dr. KIM Hyun-soo, who opened the second session, introduced SOC enhancement and public service innovation using open source science technology, and Dr. SONG Wee-jin introduced green infrastructure and eco-building platform models as an example of 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adigm for social innovation.

서울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명지대, 경기대 등 7개의 대학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적정기술연합동아리ATUS와 함께 11월 새활용TED 강연을 개최하여 적정 기술과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Lastly, the panel discussion between the participants was conducted by Dr. SEONG Ji-eun and Professor PARK Hee-je under the theme of “Building a Future Life SOC Platform,” and the event was concluded with experts seeking appropriate technology-based social innovation policies.

As an extension of the forum, appropriate technology as a method to solve problems of the community on their own at a reasonable cost and upcycling should be informed in communities and voluntary actions should be induced. In order to promote this to the society, Upcycling TED lectures are held with Appropriate Technology Union for Students (ATUS) to expand awareness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upcycling to citizens.





2019 서울새활용포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링과 적정기술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09. 26

13 : 30 - 17 : 00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사회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적정기술과 미래형 생활SOC

09.26(목) 13:30~17:00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세미나실

Session 1

적정기술과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13:30 ~ 14:40 (70')

| 발표 1 :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

주 제 : Design and Social Innovation in Asia-Pacific (DESIAP)

발표자 : Yoko Akama 교수

| 발표 2 : 적정기술을 통한 사회혁신

주제 1 : 개인용 담수화장비 사례발표

발표자 : 박현균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제 2 : 버려지는 LED 소재의 재활용과 적정기술로의 응용
안전한 물과 삶의 질

발표자 : 박은현 대표, 김상준 간사

Session 2

미래형 생활 SOC 플랫폼 구축

15:00 ~ 17:00 (120')

| 발표 1 : 연구발표

주제 1 : 사회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린 인프라, 생태건축 플랫폼

발표자 : 김현수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제 2 : 오픈소스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활SOC
고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

발표자 : 송위진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발표 2 : 패널토의

주 제 : 미래형 생활 SOC 플랫폼 구축

발표자 : 성지은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희제 교수 (경희대)

Session 1 . 초청연사



Yoko Akama
RMIT University 교수



박현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박은현
웨어라이트 대표



김상준
국제기아대책기구 간사

Session 2 . 초청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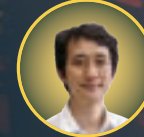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박희제
경희대학교 교수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한국연구재단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적정기술학회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정기술학회

I-SEOUL-U



Seoul Design Foundation

스케칭 유토피아

이번 스케칭유토피아 재활용워크숍은 더 나은 미래사회를 디자인하고자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세대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새로운 디자인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독일 디자인그룹 ‘쿠쿨라 CUCULA’와 청년 예비디자이너들이 재활용을 주제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쿠쿨라 디자인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 ‘유토피아’는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들고자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세상을 의미하며, 제품이 만들어진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개선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인간 삶의 본질에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엔초 마리Enzo MARI’가 주창한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이번 재활용워크숍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김상규 교수와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신창현 교수가 멘토로, 서울생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인 새움 목공방이 기술 지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청년 예비디자이너들인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쳐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 별로 국제적 이슈를 담은 주제를 선정, 재활용 패러다임에 집중한 주제별 연구와 아이디어 도출을 거쳐, 실제 mock-up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유토피아’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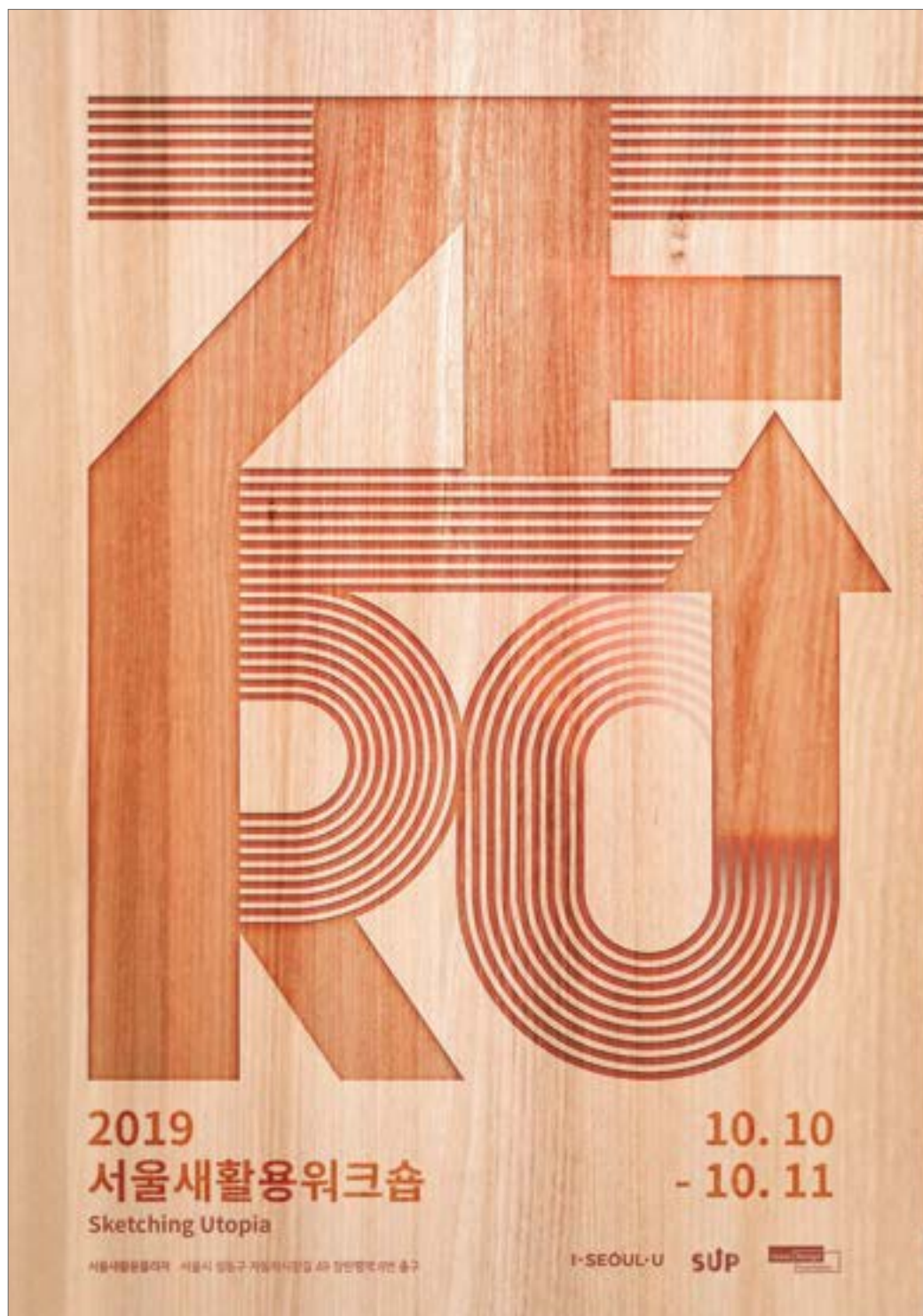
또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모델은 재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한 확산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새움 목공방은 서울생활용플라자 입주기업으로서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진단을 받은 노숙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업사이클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와 일터를 제공하고 있다. 새움 목공방의 연계활동 참여를 통해 쿠쿨라의 운영모델을 우리 현실에 알맞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Sketching Utopia

As an extension of the forum, appropriate technology as a method to solve problems of the community on their own at a reasonable cost and upcycling should be informed in communities and voluntary actions should be induced. In order to promote this to the society, Upcycling TED lectures are held with Appropriate Technology Union for Students (ATUS) to expand awareness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upcycling to citizens. 'Utopia' means a world where everyone values movement on an equal footing to create good products that can be shared by more people, regardless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t was a concept advocated by Italian designer Enzo MARI, who aspired to reach the essence of human life by improving and designing the process, not just the result of the product.

KIM Sang-kyu, professor of desig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HIN Chang-hyun, professor of industrial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Upcycling Workshop as mentors. 'SEUM' a resident workshop at Seoul Upcycling Plaza participated as a technical advisor and supporter. Based on the discussion of various upcycling topics, participants selected a topic containing international issues, and experienced the process of implementing "Utopia" by conducting research, eliciting ideas focusing on upcycling, and building physical mockups.

A follow-up workshop to link the models derived from the workshop to a diffusion program for the expansion of upcycling is planned as well. 'SEUM' is a resident workshop at Seoul Upcycling Plaza, which provides jobs and workplaces by educating furniture building skills to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homeless people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and alcoholism. Participating in SEUM workshop will allow us to explore ways to utilize the CUCULA's operating model as a model that suits our reality.



Sketching Utopia

10.10(목), 10.11(금) 09:00-17:00
서울생활용물라자 1층 꿈꾸는공장

DAY 1 10.10

Drop-in & Intro

09:00-10:00

생활용물 관련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각자의 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Context & Research

10:00-13:00

주제와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Ideation

14:00-17:00

강제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선택해보고 그 개념에 맞는 전작을 개발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주제로 선택할 것인지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직접 워크숍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DAY 2 10.11

Drop-in & Review

09:00-10:00

주제와 연구내용과 아이디어 도출과정을 공유합니다

Prototyping

10:00-15:00

유아다이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Presentation & Retrospective

15:00-17:00

주제와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모든 참가자 서울생활용물라자에 전시합니다

초청인사



Cecilia Sy
COCOLA, Germany



Verena Augustin
CUCOLA, Germany

참가그룹



김성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형현
경기대학교



김영호
서울대

주최 | 서울생활용물
후원 | 서울디자인재단

협력처 | www.livingup.kr | 후원사무국 | 02-2153-0435
















패션과 사회적 책임

복식문화학회는 의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학술연구를 증진하고 회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정기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제 의상 전시회와 전국 대학생 논문 및 의상 콘테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추계 학술대회는 ‘패션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기존의 자원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사이클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울생활용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쉽게 버려지고 쉽게 새것을 취하는 경제적 순환에서 벗어나 자원과 환경을 의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통의 장을 열고자, 친환경 소재, 업사이클링, 공정무역, 지역 생산 등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담은 의식 있는 패션이 새로운 패션의 방법으로 공유됨으로써 기존의 평범한 자원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패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석을 환경적, 윤리적 시각으로 폭넓게 접근하고자 컬처 마케팅그룹 김묘환 대표의 ‘패션으로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 강연과 한국윤리적 패션 네트워크 이미영 대표의 ‘패션의 미래가치, 윤리적 패션’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별세션으로 자연과 사람을 둘러보는 패션브랜드, 업사이클 패션, 환경과 사람이 지속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등 패션의 사회적 책임을 브랜딩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들의 릴레이 강연도 이어졌으며, 2019 생활용 패션디자인 공모전 수상작과 복식문화학회 의상 작품들은 서울생활용플라자 2층에서 약 한 달간(2019.10.11.-2019.11.12.) 전시되었다.

Fash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CCA) was established in 1993 to promote academic research in apparel and related fields and to exchange of expertise, skills, and information among members. CCA regularly conduct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domestic and global academic symposium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dissertation competition and fashion contest among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2019 fall symposium took place in Seoul Upcycling Plaza under the theme of “Fash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holding keynote lectures, session presentations, thesis presentations, and design competition award with business associates in the clothing industry, and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pparel.

This symposium aimed to start communication of sustainable social responsibility that is conscious of resource and environment, away from the economic cycle that is easily abandoned and take on new one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value of existing ordinary resources was given during the symposium by sharing conscious fashion with diverse social and ethical values, such as eco-friendly materials, upcycling, fair trade and local production. In addition, a lecture “First Step to Change the World with Fashion” by Culture Marketing Group CEO KIM Myo-hwan and a lecture “The Future Value of Fashion, Ethical Fashion” by LEE Mi-young, CEO of Korea Ethical Fashion Network, were given in order to take a broader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fashion from an environmental and ethical perspective. Special session was followed by relay lectures by brands that pursue social responsibility of fashion as the direction of the brand, and a variety of works were exhibited for about a month with an award-winning exhibition of the 2019 Upcycling Fashion Design Competition and an exhibition of costumes from the CCA.



2019
서울생활용포럼
패션과 사회적 책임

10.12
10:00 - 17:00

서울생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패션과 사회적 책임

2019 추계학술대회 및 의상전시회

10.12(토) 10:00 ~ 17:00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

SEOUL UPCYCLING FORUM

Session 1

10:10 ~ 11:55

강 연 1 | 패션으로 세상을 바꾸는 첫번째 걸음
김요한(컬처마케팅그룹 대표)

강 연 2 | 패션의 미래의 가치, 윤리적 패션
이미영(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대표)

Session 2

13:00 ~ 16:30

강 연 1 | 자연과 사람을 둘러보는
패션브랜드
계효석(LAR대표)

강 연 2 | 업사이클 패션
이성동(얼킨대표)

강 연 3 | 환경과 사람이 지속가능한
제로웨이스트디자인
신윤예(공공공간)

분과토론 1 |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분과토론 2 | 패션마케팅과 산업

Design contest & Exhibition

13:30 ~ 14:00

새활용 패션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공모전 시상식 | 13:30 ~ 14:00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10.12 ~ 11.11

※장소 : 2층 중앙로비 전시

📍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주최 | 서울특별시, 복식문화학회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복식문화학회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4

I · SEOUL · 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누각이 전해주는 스페인의 새활용문화

서울새활용하우스의 ‘메이커스페이스’공간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업사이클 브랜드인 누각^{NUKAK}의 세미나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해외 업사이클링 사례인 누각의 브랜드 스토리와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성장 전략을 알아보았으며, 세계적인 도시와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마다의 브랜드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누각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현재 인류가 맞이한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범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순환경제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며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새활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는 기업과 국가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활용 제품을 구매하고 새활용 브랜드를 지지하는 작은 행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새활용 문화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하는 확실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렴하여 점점 더 많은 업사이클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 중 스페인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누각이 본 세미나와 워크숍의 주제가 되었다. 누각 스페인의 대표 브론첼레스^{Abreu BRONCHALES}와 누각 코리아의 김경준 대표가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창업자 측면에서 바라본 새활용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브론첼레스는 브랜드 누각을 설립한 디자이너로서 창업 단계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대도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 초점을 두었고,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새활용 산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유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Upcycling Culture of Nukak in Spain

Seminar and workshop with a Spain upcycle brand, NUKAK took place in “Maker Space” of Seoul Upcycling Plaza. NUKAK’s upcycling brand story, growth strategy for a global business, distinctive brand strategies of each country through a partnership with global cities were shared during the seminar. Participants were also given a workshop where they could design and make NUKAK products and learn about the upcycling process.

The United Nations has announc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o address various social issues facing humanity, which has led the world to focus on “sustainability”. In a society focusing on the circular economy, the “upcycling” of discarded resources as new resources are drawing huge attention. In a social atmosphere where there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not only in companies and countries but also at the individual level, the new culture has become a sure-fire form that even smalls must be practiced, in that small acts of buying an upcycling product and advocating for a brand are helping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sequently, more and more upcycling products are on the market in response to such consumer needs. Among them is NUKAK, a global brand that originated from Spain. Abreu BRONCHALES, the CEO of NUKAK Spain and KIM Kyung-Jun, the CEO of NUKAK participated as speakers to share various discourses about upcycl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under.

Abreu BRONCHALES, as a designer who founded NUKAK, shared its brand story of forming a global partnership with global metropolises from the start-up stage to the present. The first session focused on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글로벌 비즈니스로써 성장전략을 공개하며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평소 업사이클링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고 싶었던 시민들과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기획하고자 하는 예비디자이너, 업사이클링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실제로 누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현수막과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누각의 제작과정과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광고현수막의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기획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제작의 전 단계에 참여하여 바인더, 핸드폰케이스, 열쇠고리 총 3가지 종류의 제품을 체험하였다. 쓸모를 다하여 폐기물로 규정된 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완성된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재활용 브랜드는 해당 재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이 재활용 디자인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본 워크숍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거나 빛바랜 폐현수막의 텍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전 과정 참여를 통해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디자이너에게는 제품 제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창업자들에게는 누각 개발 스토리를 통해 실제 재활용 브랜드 개발에 적용해볼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what wa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brand's identity, what direction it was aimed at, and what led to the entry to the new upcycling industry. The second session mainly covered useful content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revealing the background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global partnerships with their global metropolises, and its growth strategies as a global business. Citizens who were interested in the making of upcycling products, pre-designers willing to launch an upcycling brand, and people from a wide range of occupations in the upcycling industry, were the main participants.

The workshop was a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NUKAK by making use of discarded banners and tools used in NUKAK. Workshop participants took part in all stages of production, from the planning stage to consider how to use the advertising banner pattern to the final stage that improves completeness and made three types of products: binders, cell phone cases, and key chains. For upcycling brands that add new value to waste and create finished products, it is required a thorough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material. The key point of the upcycling design is to actively utilize the natur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to expand its functionality. This workshop w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prospective designers who want to enter into the upcycling industry by participating in the entire process of actively using the texture of worn or faded discarded banners over time and for start-ups to learn much know-how tha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development of a new upcycling brand from NUKAK brand story.



2019
서울생활용워크숍
 Upcycling culture of Nukak in Spain

10.24 - 25
14:00 - 16:00

서울생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3 상한영역 2번 출구

I·SEOUL·U sup 

Upcycling culture of Nukak in Spain

누각이 전해주는 스페인의 재활용 문화

10.24(목) - 25(금) 14:00 ~ 16:00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하우스

SEOUL UPCYCLING WORKSHOP

세미나

10.24(목) 14:00 ~ 16:00

01 | 스페인 바르셀로나
업사이클링 브랜드 스토리
(ABREU BRONCHALES)

-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영감,
업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성장전략

02 | 글로벌 대도시와의 파트너십,
각 국가마다의 색깔있는 브랜드 전략
(ABREU BRONCHALES)

- 스페인(헤드쿼터) / 한국(아시아지부),
일본, 호주 / 서유럽국가 등

📍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워크숍

10.25(금) 14:00 ~ 16:00

광고현수막 업사이클링 바인더
'누각 폴리오' 디자인

01 | 업사이클링 소재로서의 현수막 대한 이해
(ABREU BRONCHALES)

+ 간단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김경준)

02 | 나만의현수막재단

워크숍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래픽으로 현수막 재단

03 | 결과물

바인더 '폴리오' / 핸드폰케이스 '까사' / 열쇠고리 총 3개

NUKAK CEO
ABREU BRONCHALES

Upcyclist CEO
김경준

| 소요시간 2시간

| 참여인원 20명

| 대상 업사이클링에 관심있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4

I · SEOUL · U

Nukak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새활용 모험놀이터 만들기

스페인의 업사이클 아티스트 그룹인 바수라마[Basurama]와 플레이 앳[PlayAT] 김성원 소장이 함께 참여하는 '새활용 모험놀이터 만들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첫날 세미나에서는 모험놀이터 개념을 바탕으로 새활용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를 벗어나 마을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소재와 공간을 교육환경으로 관찰하여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틀간 실제 새활용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바수라마는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그룹으로 쓰레기를 해체하고 분해하여 다시 조합하고 배열하면서 발생하는 재미난 요소를 놀이터와 접목시켜 새활용 모험놀이터를 만든다.

10월 29일에 개최된 세미나는 플레이앳[PlayAT]의 김성원 소장과 이유에스 플러스 건축[EUS+Architects] 지정우 소장이 바수라마와 함께 참여하여 도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활용 놀이터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이틀간의 워크숍은 한국에서 새활용 모험놀이터 실현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험하는 시간이었다. 바수라마와 참여자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아름다운 가게 창고에 수집된 옷을 권선기를 활용하여 단단한 밧줄로 만들고 이근세 작가가 만든 구조물과 연결하여 새활용 놀이터를 만들었다. 또한 소재은행의 휴관, 파레트, 케이블타이, 소방호수, 폐현수막 등 버려지는 소재와 버려진 옷 3,000여벌을 결합하여 새활용 모험놀이터로 제작하였다. 새활용 놀이터는 몇가지 기능에 국한되어 제작된 일반적인 기구보다는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한 다채롭고 유연한 활동들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재료를 추가하거나 빼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여 새롭게 고치는 과정이 매우 용이한 점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새활용 놀이터 사례를 최초로 보여주었다.

Building Upcycling Playground with the Citizens

“Upcycling Playground Building with Citizens” workshop took place with Upcycle artist group Basurama from Spain and Kim Sung-won from Play AT participating. On the first day of the seminar, a new perspective was presented to observe and approach the materials and space found in the community as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a new design based on the concept of adventure playgrounds. Based on this, a workshop was held for two days to build an actual upcycling playground.

Basurama is a Spanish architect group that makes upcycling playground by assembling and adding enjoyable elements to waste materials. The seminar, held on October 29th, was a venue to look at the value and potential of the upcycling playground to deal with the city waste problem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across regions and generations, joined by KIM Sung-won of Play AT and JI Jung-woo of EUS+ Architects.

The two-day workshop, held from October 30 to 31, was a time to examine and test the feasibility of upcycling playground in Korea. Basurama and participants utilized winding machine to make tight ropes out of abandoned clothes collected from the Beautiful Store in Seoul Upcycling Plaza. Connected the rope into the structure by LEE Keun-se, an upcycling playground was built. In addition, around 3000 pieces of discarded clothes were combined with various materials such as hume pipe, pallet, and cable ties from Material Bank to create a upcycling playground. Upcycling playground can derive diverse and flexible activities from children that stimulate imagination rather than the general devices that are limited to several functions. The fact that upcycling playground can be easily modified in different ways demonstrated an upcycling playground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of children.

워크숍 참여자들은 놀이터의 주요대상인 아이들에게 폐기물의 가공되지 않은 점이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바수라마의 모니카(Mónica)는 ‘폐기물 재료의 정제되고 가공되지 않는 특수한 점 때문에 감수해야하는 리스크도 있지만 아이들이 리스크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배울 수 있는 조심성과 생활 속 지혜가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망각하고 보이는 안전에만 취중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음과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놀이터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여된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교적 설치와 철거가 쉬운 생활용 놀이터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논의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시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용 놀이터는 도시 내 자원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용 놀이터가 설치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작된 생활용 놀이터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되었으며 버려진 옷이 주요 소재가 되었다. 따라서 눈과 비와 같은 기상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보관 및 유지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생활용 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설치 후 유지 및 활용,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한 다변적 요소까지 총체적으로 논의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할 것이다.

Workshop participants questioned whether unprocessed waste materials were not dangerous for the children, the main target of the playground. Mónica of Basurama responded, “there are some risks that must be taken, but greater care and wisdom in children to learn when they are exposed to risks.” She added that our society is currently focusing on the visible dangers, forgetting that children are exposed to the invisible dangers as well.

Recently in Korea, playgrounds have been disappearing because of the limited use of playgrounds due to noise and various safety issues. There are voices that lack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are infringing on children’s right to play. This workshop was a 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upcycling playgrounds,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install and remove, to become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se problems. In addition, the upcycling playground has shown the potential to develop a system of resource circulation, given that garbage generated in the city can be reused in the city.

However, there are many situation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install upcycling playgrounds in reality. The upcycling playground, which was created in this workshop, with discarded clothes as the main material was installed outdoors, not indoors. Therefore, problems with storage and maintenance have been found when exposed to weather changes such as snow and rain. Exploration and research in various ways including post-installation management, maintenance and utilization, and multi-functional factors taking children’s growth into account, are essential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of upcycling problems.



2019
서울새활용워크숍
BASURAMA&Play AT과 함께하는 새활용 놀이터

10.29
- 10.31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Upcycling Playground with BASURAMA & Play AT

BASURAMA&Play AT과 함께하는 재활용 놀이터

10.29(화) — 10.31(목)
서울재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 / 재활용하우스

SEOUL UPCYCLING WORKSHOP

Session 1. 포럼

10.29(화) 14:00 ~ 17:00

14:00 - 14:50 | 바수라마 재활용 놀이터 프로젝트 사례 소개
발 표 자 | Mónica and Manu(BASURAMA)

15:00 - 15:30 | 모험놀이터가 된 정크플레이 그라운드
발 표 자 | 김성원(PlayAT 대표)

15:30 - 16:00 | 건축가가 바꾸는 학교 놀이터와 재활용놀이터를 보는 시각
발 표 자 | 지정우(숙명여대 교수, EUS+ 건축가)

16:10 - 16:40 | 재활용놀이터 (Upcycling Playground)의 가치와 한계
발 표 자 | Mónica and Manu(BASURAMA)

장 소 | 서울재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
대 상 | 시민 70명

Session 2. 워크숍

10.30(수) 10:00 ~ 17:00

10:00 - 12:00 | 바수라마와 참여자들의 오픈 토크
13:00 - 14:00 | 버려지는 천으로 밧줄 만들기
14:00 - 17:00 | 로프 미로 및 업사이클 놀이터 워크숍
발 표 자 | BASURAMA

Session 2. 워크숍

10.31(목) 10:00 ~ 17:00

10:00 - 11:00 | 버려지는 천으로 밧줄 만들기
11:00 - 12:00 | 업사이클 놀이터 워크숍
13:00 - 17:00 | 업사이클 놀이터 워크숍
발 표 자 | BASURAMA

장 소 | 1층 재활용하우스 및 야외 (로비 및 계단 아래공간)
대 상 | 연극배우, 예술가 시민 등 약 20명

📍 서울재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5

I·SEOUL·U

basurama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서울생활용하우스의 ‘식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생활용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영국 빅토리아앤앨버트 박물관 V&A Museum에서 열린 ‘FOOD: Bigger than the Plate’ 전시의 총괄 큐레이터 캐서린 플로드 Catherine FLOOD,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본부장 박남희, 식경험 디자이너 강은경 세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미래의 식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발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은경 식경험 디자이너의 <무말랭이, 나의 반려채소> 워크숍은 ‘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전통적인 식재료이다.

본 워크숍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무’를 하나의 실로 연결하여 모빌로 만든다. 신선하고 아삭아삭했던 ‘무’는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무말랭이’가 되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반려채소’가 되어간다. 시간에 의해 변형된 식재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먹을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해진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재료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물이 된다. 그러나 본 워크숍에서 ‘무’는 식재료가 아닌 ‘반려채소’로서 기능을 하며 생명을 연장한다. 마치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기능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참가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무’에 대한 통념을 탈피시키면서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식’에 대한 생경한 경험을 하게 된다.

미래학자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식재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많은 양의 대체품이 개발되었지만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식재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은유적으로 역설한 워크숍이었다.

Future of Food for Sustainable Life

2019 OF SUP

Upcycling Forum under the theme of “Future of Food for Sustainable Life” was held in the “food space” of Seoul Upcycling Plaza. In this forum, three speakers, Catherine FLOOD, curator of FOOD: Bigger than the Plate exhibition at V&A Museum in England, PARK Nam-hee, general director of Asian Culture Complex, KANG Eun-kyung, a food experience designer were participated and discussed various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food.

Food experience designer KANG Eun-kyung’s workshop, My Companion, Daikon focuses on “daikon”. Daikon is a traditional ingredient that has been harvested for a long time and still frequently appears on the table today. Participants connect colorful daikon pieces with a thread and to form a mobile. Fresh and crisp daikon pieces get dry with long exposure to the air and become “my companion vegetable” in the process. Our attitude towards modified food ingredient by time is determined by the answers to these two questions: whether we can eat or not. Edibles become food; otherwise, waste. However, in this workshop, “daikon” functions as a companion vegetable, not as food, and prolongs life. It’s like a waste being upcycled and extending its function to a new product. By brea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notion of daikon, participants have a vivid experience of food in a different way. Futurologists anticipate the loss of many kinds of food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by reckless development. It was a workshop that metaphorically emphasized the need for new ideas, and redefinition of the of function and role of the ingredients used to continue “eating”, the essential human act, although various substitutes will be developed.

171

UPCYCLING FESTIVAL



박남희 본부장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개최된 <FoodHack_ 음식을 해킹하라>에 참여한 아시아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지속가능한 음식을 주제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전이였으며 실험적으로 표현한 작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인류세 시대에서 음식과 인간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접근한다. 언해피서킷Unhappy Circuit은 <Learning About Humanity>를 통해 인공지능이 레시피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의 과정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조리된 닭고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간의 '육식성'과 자연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성'에 대해 재고하기를 유도한다. 카를로스 카스테야노스Carlos CASTELLANS & 벨로 벨로Bello BELLO의 <식물연결>작품은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화학적으로 연결하는 매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하고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식물의 활동을 머신 러닝을 활용해 분석하고 에너지 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의 요소와 인간과의 정보전달의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식물로 대변되는 음식과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한다. 이로써 유기물로 구성된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General Director PARK Nam-hee introduced Asian artists and their works at the FoodHack_Hacking Food exhibition at Asian Culture Complex. It was a media-art exhibition where technology and art were fused with the theme of sustainable food.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pproach complex and subtl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food in the Anthropocene era through various forms. Via Learning About Humanity, Unhappy Circuit provided an audiovisual representation of the process of deep learning in which AI learns recipe data and allowed people to experience the chicken cooked from such a process. It leads to a reconsideration of human “carnivorism” and “humanity” to take nature. PlantConnect by Carlos CASTELLANS & Bello BELLO explores the phenomena occurring in the relationship and visually expresses the proce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s by embodying a medium that conn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ts and humans. Plant activities are analyzed using machine learning a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food are reestablished.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lore new perspectives on “food”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human body composed of organic materials.

캐서린 플로드는 V&A Museum에서 개최된 <FOOD: Bigger than the Plate> 전시를 소개하였다. <FOOD: Bigger than the Plate>는 ‘식’이라는 인간의 생득적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적 행위를 퇴비, 농업, 무역, 요리, 식사의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를 객관적이며 관조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보통 우리는 음식을 접시에 담겨져 조리된 형태로 만나게 된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음식을 선택하고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인류세의 시대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뿐 만 아니라 음식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관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식재료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순환경제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식문화의 확산과 대안으로서의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옥수수 녹말로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재배한 버섯 등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런던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에서 자원순환을 위해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다가올 미래, 서울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어떠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Food Bigger than the Plate> 전시는 미래 음식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논의 되었다고 한다면, <FoodHack_ 음식을 해킹하라> 전시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미래의 음식에 대한 문제 의식,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킹할 수 있을지 탐색의 과정을 즐거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용 하우스 ‘식’공간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모델링하고 올바른 실천을 향유하는 미래의 푸드라이프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Catherine FLOOD introduced the exhibition FOOD: Bigger than the Plate at the V&A Museum. The exhibition classifies the willful behavior of maintaining a man's innate act of "eating" into compost, agriculture, trade, cooking, and eating levels and shows each stage in an objective and contemplative way. We usually face food in a cooked form on a plate and do not raise questions on where it came from, and why we chose to eat it. However, in the era of Anthropocene, which cannot avoid responsibility for natural destruction, it is necessary to not only to think about how and what food to eat but also to intervene and actively respond to the whole process of food. Emphasizing the need for spread of food culture that can form a cyclical economic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of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od ingredients, she shared exampl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cyclical economy such as bio-plastics made from cornstarch and mushrooms grown using coffee residue. By sharing cases being practiced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London, it w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discuss the strategi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Seoul in this global trend.

While the exhibition FOOD: Bigger than the Plate discusses the role and function of ar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uture food, the exhibition FoodHack_Hacking Food shows a fun way to explore how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art can hack into the problem of future food and the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In the future, detailed and practical discussions will follow in the "Eating" space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for sustainable resource cycle modeling and the future food life that enjoys the right practice.



2019
서울생활용포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서울생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11.05
13:00 ~ 17:00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음식의 미래

2019.11.05 13:00 - 17:00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새활용 하우스

SEOUL UPCYCLING FORUM

Session 1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경험 워크숍

진행자 : 강은경

워크숍 | 13:00 - 13:30
나의 반려채소, 무말랭이 (My companion daikon)

강 연 | 13:30 - 14:00
음식은 언어 : 소통을 위한 음식 디자인
(Food is language : Design food for communication)

Session 2

국내외 지속가능한 식문화 사례 발표

진행자 : 박남희

강 연 | 14:00 - 15:00
Food Hack_음식을 해킹하라

진행자 : Catherine Flood

강 연 | 15:10 - 16:10
BIGGER THAN THE PLATE: Creating a better food future for people and the planet

Session 3

업사이클링과 식문화의 미래

토 론 | 16:10 - 17:00
업사이클링과 식문화의 미래



강은경
스물바치 스튜디오 대표



박남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부장



Catherine Flood
Victoria and Albert Museum 큐레이터

대상 | 업사이클 분야 관계자 및 기업, 일반시민 참여인원 | 50명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 www.seoulup.or.kr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5

I · SEOUL · U **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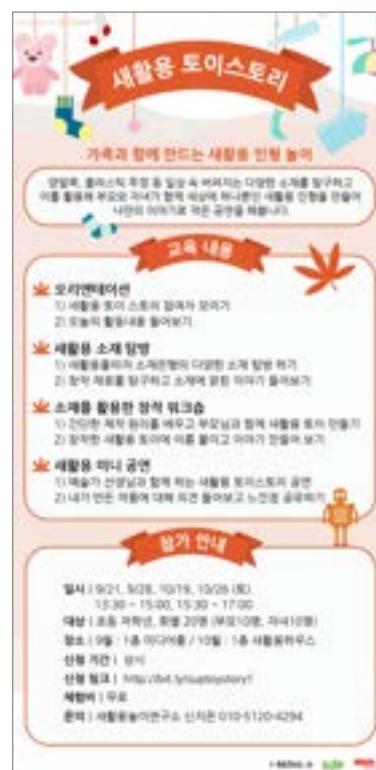




새활용 토이스토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8월20일(화)에서 23일(금)까지, 1일 2회차 프로그램으로 2층 숲속 놀이터 및 1층 새활용하우스 공연장에서 새활용 토이스토리를 진행했다. 새활용 토이스토리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양말목, 플라스틱 뚜껑 등 일상 속 버려지는 다양한 소재를 탐구하고, 이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상에 하나뿐인 새활용 인형을 만들어 나만의 이야기로 작은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저학년들에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새활용에 대해 설명 위주로 진행하는 탐방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공연을 통한 새활용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초등학생들에게 새활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활용 토이스토리

가족과 함께 만드는 새활용 인형 놀이

양말목, 플라스틱 뚜껑 등 일상 속 버려지는 다양한 소재를 탐구하고 이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상에 하나뿐인 새활용 인형을 만들어 나만의 이야기로 작은 공연을 해봅시다.

교육 내용

- ★ 오리엔테이션
 - 1) 새활용 토이 스토리 참여자 맞이하기
 - 2) 오늘날의 활동내용 알아보기
- ★ 새활용 소재 탐방
 - 1) 새활용을까지 소재탐방의 다양한 소재 탐방 하기
 - 2) 장난감을 탐구하고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알아보기
- ★ 소재를 활용한 창작 워크숍
 - 1) 준비한 제작 원자료를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 새활용 토이 만들기
 - 2) 창작한 새활용 토이로 작은 공연을 하고 이야기가 만들어 보기
- ★ 새활용 미니 공연
 - 1) 작품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새활용 토이 스토리 공연
 - 2)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느낀점 공유하기

참가 안내

일시 : 9/21, 9/28, 10/19, 10/26 (토)
15:30 ~ 15:00, 15:30 ~ 17:00

대상 : 초등 저학년, 초등 20명 (부모10명, 자녀10명)

장소 : 9월 : 1층 미디어룸 / 10월 : 1층 새활용하우스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링크 : <http://bit.ly/newusestory1>

세탁비 : 무료

문의 : 새활용플라자연구소 인지도 010-5120-4294

Upcycling Toy Story

Upcycling Toy Story was held at the Forest Playground and Upcycling House of Seoul Upcycling Plaza from August 20th to 23rd, twice a day. Upcycling Toy Story is a program for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to explore various materials that are thrown away in everyday life, such as socks and plastic lids, and use them to make an only upcycling doll and perform small performances with their own stories.

It will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ave a more active understanding of upcycling if an upcycling storytelling program is carried out with a performance as well as a short 30 minute to a 1-hour long tour program.

아츠업 스튜디오

새활용 콘텐츠 전문가 워크숍 'ArtSUP Studio'는 공연 분야 예술가 및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새활용플라자의 소재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표현 방법과 진행 가능한 놀이 · 공연 · 제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새활용플라자 대표 콘텐츠가 될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구성되어 4개월(2019. 08 ~ 2019. 11)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멘토를 맡은 유홍영 예술감독은 인형놀이와 신체 표현 놀이를 접목한 연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설립된 어린이 연극 전문 단체인 <극단 사다리>의 대표이자, 마임이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유홍영 멘토를 중심으로 한 18명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새활용플라자를 탐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활용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4층 교육실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작품의 진행 방향을 설정했다. 그 후,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한 작품 기획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개별 작품을 구성한 다음, 소재 은행에서 창작에 필요한 새활용 소재들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개월 간에 걸쳐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거치면서 작품 구성을 보완하였으며, 음향 및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10회차의 워크숍 기간을 마쳤다.

발표회는 새활용플라자 내외의 5곳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1층 새활용 하우스 극장에서는 주인공이 쓰레기 세계를 유랑하며 부딪히는 매 순간의 어려움을 지혜, 용기, 인내와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의 1인 그림자극 <업사이클링 오딧세아>를 시작으로, 펭귄을 통해 남극의 상황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인형극 <나무를 심는 펭귄>, 그리고 쓰레기로 바다가 오염되어 용왕이 아프자, 해결책을 찾으러 자라가 토끼를 만나러 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어느별 주부전>이 공연되었다.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에 의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목으로 연출하여 재미와 작품성으로 어린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미디어룸에서는 3가지 작품이 공연되었다. 첫번째로 <오박사네 생생 연구소>는 오박사의 연구실을 없애려는

An upcycling content expert workshop 'ArtSUP Studio' is a joint project to develop various art presentation methods using the materials and spaces of Seoul Upcycling Plaza, as well as practicable plays, performances, production programs through collaboration of artist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performance. The project consisted of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and performances that will be the representative contents of Seoul Upcycling Plaza, and took place for 4 months (August 2019 ~ November 2019). Art director YOO Hong-young, who is the mentor of the project, is a representative of <Play Sadari>, a children's theater organization established to foster children's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rough theatrical performances that combine puppet plays and body expression plays and also a mimeist. The 18 participants of the project, led by YOO Hong-young mentor, started off the project by taking a tour of Seoul Upcycling Plaza and set the direction of the work through a workshop in the education room on the 4th floor every Tuesday with the common theme of upcycling. Afterwards, the participants individually organized works based on the cases of the upcycling work planning using discarded items and produced works using upcycling materials from the material bank. Over the course of four months, participants shared their progress and received, complementing the composition of the work, and the last workshop session was completed lastly by creating a sound and performance environment.

Presentation took place at 5 locations in and out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We started with a one-man shadow play "Upcycling Odyssey" about overcoming difficulties encountered by wandering the world of garbage with wisdom, courage, patience, and love. Followed by a puppet play "Penguin who Plants Trees" that makes us think about the situation in Antarctica and

인간들에 맞서 쓰레기들이 연구소를 지켜내는 과정을 담은 연극이다. 인간들은 각종 쓰레기들을 만든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악으로, 재활용과 새활용 되는 쓰레기들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연출가의 익살스러운 말투와 연기는 공연 중간마다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공연 내내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상자인형극장>은 우유팩과 플라스틱 스펀을 이용한 작은 인형극장을 만드는 공연으로 <새활용 놀이>라는 워크숍과 함께 공연되었다. 특히, <새활용 놀이>는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해 놀이 용품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대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연출가가 즉석에서 작품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추억도 함께 선물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인간의 창고에 갇힌 나비가 창고 밖의 태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록 태양이 없는 어두운 창고지만 가슴속에 태양을 안고 사는 삶을 통해 진정한 태양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나비’라는 우화를 원작으로 한 우화극인 <낮은 창고에서>는 오브제 인형과 배우의 몸짓으로 펼쳐지는 한 낮은 창고의 이야기이다. 원작에서 삶의 방식과 인간의 의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 대답을 요구하는 다소 철학적인 내용은 접어두고, 연출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주 음악과 함께 곤충들의 행동 묘사 위주의 공연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연을 진행하였다.

<새활용 음악대와 업사이클링 워크숍>은 새활용 소재로 제작한 악기차를 몰고 관객들과 만나러 가는 컨셉의 ‘새활용 음악대’가 우리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바디퍼커션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하는 공연으로, 2회에 걸쳐 미디어룸 앞 로비와 새활용플라자 남측 입구 앞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한 연주 방법이 필요 없는 악기차를 이용하여 정돈되지 않은 자유로운 소리들이 모여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객이자 연출가가 되어 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유동인구가 제일 활발한 새활용플라자의 동측 입구에서는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잔디밭 앞 인도에서 새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인형을 만들어두고 아이들이 직접 갖고 노는 워크숍인 <블록 인형과 놀아요>를 시작으로, 길 건너편 컨테이너 옆 공간에서는 새로운 시간을 만나면서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쉽게 잊혀져 가는 것의 이야기를 담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연극이 이어졌다. 욕망으로 쉽게 사고 버리고 즐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생명에 대해 적극적인 존중을 실현해 보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업사이클 무브먼트>는 넓고 트인 공간에서 동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기에 잔디밭에서 진행되었고, 컨테이너 안에서는 조화롭던 우주의 화음을 깬 죄로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에 보내진 사리가 노래하는 나무와 함께 자신의 노래를 찾으려는 이야기를 담은 <송:사리(Song Of Sari)>가 공연되었다.

marine debris through penguins, and ended with the play “A Tale of a Rabbit and the Turtle” about a story of a turtle going to a rabbit to find a solution when a dragon king is sick because of the polluted sea. As the titles suggest, directing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garbage, which has been a problem for many years, under the titles that fit the eyes of children, it captivated the audience with fun and value.

Three pieces were performed in the Media Room. First, Dr. Oh’s Live Lab was a play about how garbage protects the lab against humans trying to destroy it, and it expressed humans as evil by emphasizing the negative side of making various wastes and recycled and upcycled waste as good by showing the positive side of the value of recycling and upcycling. The director’s humorous tone and acting were carried out with a warm atmosphere, arousing the laughter of the audience. Second, Box Theater, a performance making a small puppet theater using milk cartons and plastic spoons was performed together with a workshop, Upcycling Play. In particular, Upcycling Play was work to make toys using discarded items, and the director created the work on the spot and presented the children with memories, such as making puppies with a stick balloon.

Lastly, In an Old Warehouse, was a play based on a fable called “Butterfly,” in which a butterfly accidentally trapped in a dark warehouse without sunlight learns the true meaning of the sun through a life with the sun in its heart. It was the story of an old warehouse that unfolds with gestures of an object doll and an actor. Leaving aside the philosophical contents in the original, which calls for an existential answer to questions about the way of life and human obligation, the director performed the performance at the children’s level with appropriate music and mimicking the behavior of the insects.

Upcycling Musicians and Upcycling Workshop was performed twice at the SUP by “Upcycling Musicians” with the concept of driving a musical instrument vehicle made with upcycling materials to meet the audience and performing body percussions, Upcycling Workshop. It was a performance that all of the people passing by could become an audience and a director by gathering unorganized free sounds using the musical instrument vehicle that did not require any special way of playing.

At the eastern entrance of SUP where most visitors pass by,

특히 <송:사리>는 <업사이클 무브먼트>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아 내용에 이어붙여 그림자극과 나레이션을 곁들인 독특한 전개 방식을 선보였다. 해가 진 후 어둑해진 시간에 이어진 퍼포먼스 <거리 위의 목공소>는 거리 위에 버려진 가구 및 나무 쓰레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목수의 이야기를 담은 마임을 바탕으로 한 이동식 공연으로, 늦은 시간까지 공연했지만 가장 많은 관객몰이를 하였다.

남측 입구에서는 인형극 <바다로 간 아이들>이 공연되었다.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를 각색한 이 작품은, 재활용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형과 바디퍼커션이 어우러진 테이블 인형극을 나레이션과 함께 보여주며, 야외 장소의 이점을 살려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관객 참여를 유도하였다. 마지막 장소인 서측 입구에서는 지구의 환경파괴로 다수의 인류가 멸망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인형극 형식의 영상으로 담은 공연인 <쓰고인간>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공연 말미에 연출가가 직접 쓰레기 괴물 인간으로 변장하여 나타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발표회 후 가진 간담회에서 소재은행을 활용한 제작 단가 절감 및 다양한 장르와 여러 연령대의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공연 하나를 완성하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고, 추후에도 창작에 관심이 있는 시민·예술가들에게 작업 및 연습 공간을 개방하여 소모임을 구성하고 운영된다면 생활용품플라자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performance-oriented shows took place. Starting with Block Dolls, a workshop where children play with pre-made upcycling dolls, a play named Lost Things that tells the story of old things being easily forgotten over time was followed.

The Upcycle Movement is an audience-participating performance that encouraged us to take a moment to stop enjoying buying and discarding with desire and feel respect for all life in a world where we live together, was staged on the lawn since it requires dynamic movement in a wide-open space.

Song of Sari, a story about Sari, sent to Earth covered with trash for breaking the harmony of the universe, trying to find her song with a singing tree, was performed inside the container. This performance was presented in a unique style of deployment with shadow plays and narrations by linking the video clip of the performance of the Upcycle Movement to the content.

The Carpenter's Shop on the Street performed at dark after sunset was a movable performance based on mime about a carpenter who gives new life to the abandoned furniture and wood on the streets. It was performed until late, but it attracted the most audience.

At the southern entrance, a puppet show Children Who Have Gone to the Sea was performed. Adapted from the fairy tale "Pied Piper," this show was a table puppet show combining upcycling dolls with body percussion. It has attracted many audiences' attention with devices such as inducing audience participation to narrate and the benefits of the outdoor venue.

At the western entrance, Garbage Monster Human, a performance featuring a puppet show of the story that shows human beings who survived to the end though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of the earth led to the destruction of many human beings was performed. The show aroused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at the end of the show, the director showed himself a performance as a garbage monster.

After the presentation, participants said,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to reduce production unit cost using the materials from the Material Bank and to collaborate with artists of various genres and ages to complete a performance. They also added, "In the future, if the workspace is opened to artists and citizens interested in creation to form and operate small groups, they would be able to use the upcycling program by itself."





2019
새활용 열린극장

11.02
14:00 - 18:00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 이 인쇄물은 친환경 재생용지, 공기를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영기극장

11.2.(토) 14:00-18:00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및 야외

SEOUL UPCYCLING OPEN THEATER

1층 새활용하우스 극장

14:00 업사이클링 오딧세이 | 서인석

16:00 나무를 심는 팽귤 | 희원

17:30 어느별 주부전 | 미손

1층 미디어룸

14:30 오박사네 생생 연구소 | 오경선

15:00 상자인형극장 | 아토
새활용 놀이 | 지웅

16:00 낡은 창고에서 | 아침

17:00 어디쯤 | 젤마

야외 동측 잔디광장

14:30 블랙인형과 놀아요 | 하루

15:00 잃어버린 것들 | 안티고네

16:00 업사이클 무브먼트 | 은하수

17:30 똥·사리 | 사리

야외 남측 중앙문 및 따릉이보관소 앞

14:30 새활용 음악대와 업사이클린 워크숍 | 산

16:00 바다로 간 아이들 | 부영이&산

17:00 새활용 음악대와 업사이클린 워크숍 | 산

17:30 거리 위에 목공소 | 흥

야외 서측 창작실 셔터문 앞

17:45 쓰괴인간 | 한재훈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안평역 8번 출구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 새활용놀이연구소, 무궁무진스튜디오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5









환상을 감각하다

UNIST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사이언스월든ScienceWalden 센터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결’을 감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이른바 ‘환상을 감각하다’라는 주제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그물과 같이 복잡하다. 우리는 그 모든 연결을 자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때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새활용 속 연결 중에는 수명을 다한 물건이 폐기물이 된 후에 소각 또는 매립으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세척 후 재활용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제품으로 새활용 되는 연결도 있다. 자원 순환에 숨은 연결을 찾아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사회에 숨어 있던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 있던 연결처럼 실체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연결, 그 수많은 연결이 만드는 “환상”의 감각을 통해 자아를 돌아보고 타자를 포함한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Sense Fantasy

2019 OF SUP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Science Walden center holds a workshop at Seoul Upcycling Plaza from November 9th to December 31st, under the theme of 'Sense Fantasy,' which means sensing the invisible 'connection' surrounding us and recalling its meaning. Everything including humans is intricately connected like a net, and we live without realizing all the connection. Hence, we treat them as if they are non-existent.

Among the connections to upcycling that we are not aware of is not only the connection to incineration or landfill after the expired items become waste, but also the connection to be cleaned and recycled and, furthermore, upcycling as a new product. It has created another value by finding hidden connections in the resource cycle. Similarly, we would like to look back on us and think about ou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through the sense of the "fantasy," that many connections make, including connections within nature and society, and ones between people that exist but are not visible.

The program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see' and 'listen'. Located in 1F Central Lobby, 'See' is an installation exhibition that reinterprets the meaning of a stereotypical toilet, related to the research of "Dung-based Money," pursued by Science Walden. Flush toilet which currently dominates our lives causes not only water pollution but also human isolation by separating human from human excretion. Science Walden is conducting research to find the hidden connections in the toilets and to find the value of humans. This exhibition displays installation works that embody such attempts by Science Walden.

193

UPCYCLING FESTIVAL

프로그램은 크게 전시 ‘보다’와 새활용 악기를 만들어보는 워크숍 ‘듣다’ 두 가지로 나뉜다.

‘보다’는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중앙 로비에 마련된 설치 작품 전시로, 사이언스월든에서 추구하는 동본위화폐(dung-based money) 연구와 관련해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화장실의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현재 우리 삶에 지배적인 수세식 변기는 수질오염은 물론 배설 행위와 인간을 분리해 인간소외를 불러온다. 사이언스월든에서는 화장실 속에 숨어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사이언스월든의 시도를 구현한 설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듣다’는 참가 희망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선별된 9명의 참여자들이 새활용 악기를 직접 탐색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되었다.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 3회에 걸쳐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미디어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수명을 다한 물건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새활용 작업을 통해 나만의 새활용 악기를 만들고, 이를 연주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자기 주변의 연결에 대해 되돌아보고, 폐기물을 악기로 재탄생시켜 환상 음악을 연주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였다. 워크숍 이후에도 12월 7일(토)에 오픈되는 아카이빙 전시를 통해 워크숍 과정에서 제작된 악기와 워크숍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서울새활용플라자 3층 엘리베이터 옆 유희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Listen' was organized into a workshop format where the participants who were selected through the screening were able to explore and make their own upcycling musical instruments. The workshop was held three times on Saturday from November 16th to 30th at the Media Room on the first floor of Seoul Upcycling Plaza. The purpose of the workshop is to go through the upcycling process, granting a new role to a product that has reached the end of its life, and making musical instruments and to play them. Participants were able to reflect on the connections around them and experience playing music with instruments made out of wastes. Even after the workshop, the musical instruments produced during the workshop and a documentary film of the process of the workshop can be watched through an archive exhibition that will be held on December 7th in front of the library on the second floor of SUP.



2019
서울새활용워크숍
환상을 감각하다

11.09
- 12.31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환상”을 감각하다

1. “幻相”: 실체가 없는 형상 ————— “실체가 없다” 생각하지만
2. “環象”: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 —————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3. “環狀”: 고리처럼 동그랗게 생긴 형상 ————— “연결”에 대해 감각하다

SEOUL UPCYCLING WORKSHOP



SCIENCE WALDEN

환상을 감각하다 “보다”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감각의 재해석을 통해 표현한 설치작품

전시 - 11.09(토) 오픈

장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로비중앙

수세식 번기가 혐의하고 있는 환경(수질) 오염과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태도, 종분위화폐와 환경순환적 경제, 인간으로서의 원초적 배설행위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인간소의 현상 화장실 속 숨은 연결고리들을 담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누는 똥의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진 종분위화폐라는 대안적 소독을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판을 은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환상을 감각하다 “듣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결의 감각을 일깨우는 새활용 소재 악기 만들기과 자유 음악 배우기

워크숍 - 11.16, 11.23, 11.30 매주(토)

장 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미디어룸

11/16(토)

13:00 - 14:30 오리엔테이션

14:30 - 17:30 환상악기 만들기

17:30 - 18:00 클로징 서클

11/23(토)

13:00 - 13:30 오프닝 서클

13:30 - 15:30 환상악기 만들기

15:30 - 17:30 환상음악 합주

17:30 - 18:00 클로징 서클

11/30(토)

13:00 - 13:30 오프닝 서클

13:30 - 15:00 환상음악 합주

15:00 - 16:00 공연준비

16:00 - 16:30 공연 - 새활용공연장

16:30 - 17:00 클로징 서클

전시 - 12.07(토) 오픈

장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숲속놀이터

아카이빙전시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악기와 워크숍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시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장한평역 8번 출구



주최 | 서울특별시, 사이언스월든

주관 | 서울디자인재단, 사이언스월든

홈페이지 | www.seoulup.or.kr 운영사무국 | 02-2153-0435

I · SEOUL · 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업사이클 도시

서울시는 12월 9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업사이클 도시'를 주제로 새활용 각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시민들 약 100여명과 함께 서울새활용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 기업, 학교가 새활용을 주제로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했던 새활용 실천과 공동 협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새활용 정책 모델의 방향을 수립하는 패널들과 시민들의 열린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디자인어워드 독일 if 디자인의 랄프 비그만 Ralph Wiegmann 회장은 작년에 첫 방문 이후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업사이클 디자인에 감탄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해오다 이번 포럼에 기조강연을 위해 두 번째 방문을 해주었다. 선한 의도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나 환경 문제, 불편과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소셜 임팩트 Social Impact 사례를 소개하며, 새활용이 가진 혁신 가치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새활용플라자의 입주기업인 '인라이튼'의 신기용 대표는 마을 안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한국형 리페어 카페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였고, 목공방 '새움'의 양병주 팀장은 많은 기업들과 함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폐가구를 업사이클링 하여 저소득층, 공동체 커뮤니티에 지원하여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환경관련 벤처기업모임인 '에코퀘스트 Eco Quest'의 박준범 대표는 40여 개의 청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활동 중인 업사이클 인큐베이팅의 모범적 사례로서, 기업으로 발돋움한 청년 업사이클 벤처 사례를 발표하였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시민기획단 유미호 단장은 청년들과 함께 진행했던 플라스틱 프리 프로젝트와 용답시장 상인들과의 보자기 장바구니 접기 워크숍 등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 실천과제의 활동과 발전방향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옥정중학교 조경주 수석교사는 찾아가는 업사이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 수업을 진행했던 찾아가는 새활용 교육의 첫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과 연계된 업사이클 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Building Upcycle City with Citizens

Under the theme of ‘Building Upcycle City with Citizens’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on December 9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ld Seoul Upcycling Forum with about 100 experts, activists, and citizens from various fields. This forum shared examples of upcycling practice and cooperation in which citizens, businesses, and schools achiev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er the theme of upcycling, as well as open discussions among panel and citizens that set the direction of the upcycling policy model for Seoul city.

Ralph Wiegmann, president of internationally renowned design award iF Design in Germany, has kept in touch with the Seoul Upcycling Plaza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its upcycling design since his visit last year, making his second visit for a keynote speech in this forum. He presented the meaning of innovation value of upcycling, introducing social impact cases addressing various soci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and narrowing the gaps, going beyond good intentions. Following, Shin Ki-yong, CEO of “Enlighten”, a resident company of Seoul Upcycling Plaza, shared the future and vision of Korean style repair café run by citizens in the village. Yang Byung-joo, team manager of “SEUM” carpenters’ shop, introduced a case in which many companies ran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with Seum and supported lower-income group and communities by upcycling discarded furniture,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work in local communities and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Park Joon-beom, CEO of “Eco Quest,” a group of venture compan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shared the case of youth upcycling ventures that have emerged as companies as an exemplary case of upcycling incubation by forming more than 40 youth startup alliances. Yoo Mi-ho, head of the civic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의·식·주와 놀이를 통해 재활용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인 2019 서울재활용 페스티벌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기업협력, 시민참여, 교육혁신 등 각 분야에서 서울형 업사이클 모델의 혁신 가치를 정의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한발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planning team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shared development directions and the activities of the citizens' practice tasks for reducing disposable plastics, such as Plastic-Free project conducted with the youth and Korean patchwork shopping bag folding workshop with vendors in Yongdap Market. Finally, Cho Kyung-ju, a senior teacher at Okjung Middle School, introduced the first case of free-grade education with a visiting upcycling education program and announced the role of upcycle institutions linked to education.

This event was organized as an event to wrap up the 2019 Seoul Upcycling Festival, a civic participatory festival in which citizens can experience upcycling culture and practice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clothing, eating, living, and enjoyable games. It was an opportunity to define the value of innovation in upcycle model of Seoul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orporate cooperation, civic participation, and educational innovation, offering ideas for policy reflection.







새활용하우스

UPCYCLING HOUSE

새활용하우스 소개

새활용하우스는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써, 업사이클 인식 확산을 위하여 메이커스페이스-식, 새활용 작업장 및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체험형 콘텐츠 전시와 워크숍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들을 위한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이다.

새활용하우스는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업사이클 콘텐츠의 활용과 새활용 브랜드의 시연,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원순환 가치를 전달하는 시민 커뮤니티 시스템이다.

새활용하우스의 중심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식’은 ‘새활용=폐기물+디자인’을 더해 자원의 생명을 연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새활용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주 워크숍 및 다목적 제작 활동과 ‘식·食’ 주제의 워크숍 진행을 위한 음식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입주기업들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새활용 작업장은 새활용 제품 제작과정 시연 및 쇼룸 형태의 오픈 공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품 제작과 수리과정 체험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 이동식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활용 공연장은 공연을 위한 음향시스템을 갖춘 새활용 주제의 공연 및 강연이 열리는 공간인 동시에 플라스틱 팔레트와 기존 전시 자재들을 활용하여 구성되어 유희 시에 시민들을 위한 오픈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Introduction of Upcycling House

Upcycling House is a model house that showcases upcycling lifestyle, and an upcycling multi cultural space consisted of Makerspace - Food, upcycling workspace, and theater, where citizens can engage in hands-on exhibitions and workshops. The main purpose is to promote awareness on upcycling. Upcycling House pursues “upcycling lifestyle,” where products are made with meaning in order to be used in a long-term with deep values. It is a civic community system that delivers the value of a new resource cycl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upcycle contents and brands, cover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which are the basis of life.

“Makerspace - Food,” a central space in the Upcycling House, is a community space that increases added value by adding “upcycling=waste+design.” There is a cooking area for “食” workshops as well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workshops and multi-purpose manufacturing activities to spread upcycling makers culture.

Upcycling workspace, mainly used as a workshop for tenant companies, is an open space in the form of a showroom, providing citizens with experiences and exhibitions on the production and repair of products. The biggest feature of the space is that it is divided with eco-friendly partitions, which enables the space to be used in a greater mobility.

Upcycling theater is a space where upcycling performances and lectures are held with sound systems for performances. At the same time, it is constructed using plastic palettes and materials from previous exhibitions, so that the space can be used as an open rest area for citizens when i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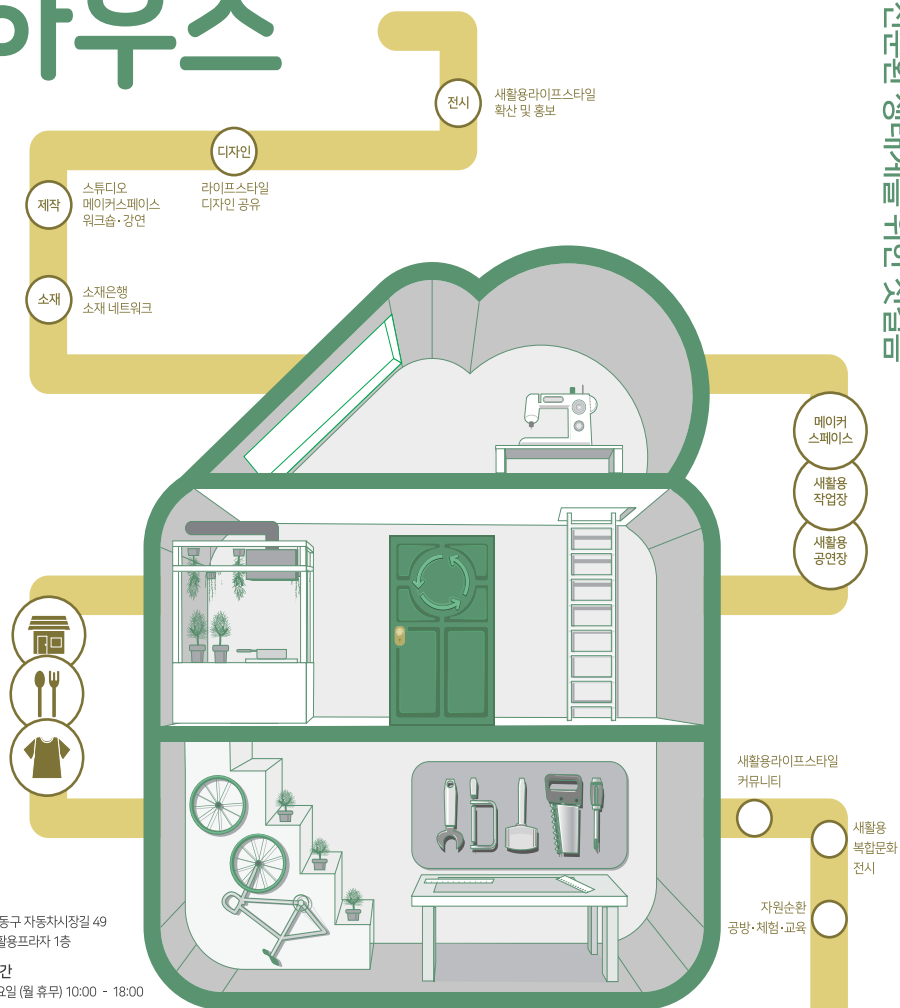
서울 새활용 하우스

서울새활용하우스는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써, 업사이클 인식 확산을 위하여 새활용 작업장, 메이커스페이스, 공연 및 강연장 등으로 구성된 공간이며 체험형 콘텐츠 전시, 워크숍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들을 위한 새활용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새활용하우스는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업사이클 콘텐츠의 활용과 새활용 브랜드의 시연,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원순환 가치를 전달하는 시민 커뮤니티 시스템입니다.

자원순환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

Upcycling = Zero Waste



위치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운영시간
화·일요일 (월 휴무) 10:00 - 18:00

문의
www.seoulup.or.kr | 02-2153-0407



이 인쇄물은 100% 재생지,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I·SEOUL·U SUP





새활용 전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2019 서울새활용페스티벌 새활용전은 “전시-워크숍-세미나”를 연계하여 시민, 전문가, 기업, 공모전, 작가 등 다양한 그룹의 새활용 실천으로 탄생한 콘텐츠를 통해 업사이클 확산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아카이빙 전시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 적정기술 소개와 도시의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업의 제품, 시민 참여 워크숍, 메이커 스페이스, 공연, 전시, 생애 주기별 교육 과정을 문화 전반에 퍼트려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활용플라자 내부 유휴공간의 기존 설치물에 새활용품을 재구성하여 전시 중이다.

진공청소기 원리를 이용하여 폐모터 등의 업사이클 소재로 만든 <Bee119 꿀벌구조대>와 기존 전시에 사용했던 폐자재를 활용하고 요리가 가능한 키친으로 디자인하여 자연정화 식물과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식자재를 키우는 일상의 새활용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자 재구성한 새활용하우스의 ‘메이커스페이스-식’과 같은 새활용 전시품들은, 새활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작품들을 홍보 영상물로 편집하여 전시 인트로와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캡션을 디자인하여 콘텐츠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전시에 적합한 영상 출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선순환 플랫폼을 전달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거리, 생활환경에는 쉽게 버려지고 지나치게 되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 새활용전은 이러한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 보고, 디자인하고자 하는 작가들과 입주기업들의 놀이터와 같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후 전량 폐기되는 물건들이나, 쓰임을 다하고 더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에 집중한다. 그들은 새활용전을 통해서 폐기 용품에 디자인 감성을 더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누군가의 일상 속의 즐거움과 추억이 되는 요소를 만들고자 한다. 시민 모두가 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겠다.

Upcycling Exhibition Zero Waste Life

Upcycling Exhibition of 2019 Seoul Upcycling Festival is an archive exhibition that links “exhibition-workshop-seminar,” showing the process of upcycling spreading through contents created by upcycling practices from various groups, including citizens, experts, businesses, contests and writers. To realize the value of conten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society and practice the resource cycle of the city, the focus is on proposing a model of a new lifestyle by spreading corporate products, civic engagement workshops, makers’ space,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life cycle education courses throughout the culture. Exhibition works are being displayed in idle space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Also, upcycling exhibition displays such as Bee119, made with discarded vacuum cleaners and broken motors, and Upcycling House, conceptual house that practices upcycling lifestyle and daily use of food materials, play a big role in helping people understand upcycling beyond the theory. The works of these resident workshops were edited as promotional video clips and produced for upcycling contents by introducing the exhibition contents.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deliver the Seoul Upcycling Plaza’s virtuous circle platform to citizens through providing with suitable video types.

In the city and streets we live in, there are various items that are easily discarded and passed on. Upcycling Exhibition is like a playground for artists and tenant corporates to look back on these items again and design. They focus on items that have been discard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have served its purpose and no longer have value. Through Upcycling Exhibition,

서울새활용하우스 방문자 및 워크숍 참여자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재참여 의향이 95% 이상을 보일 정도로 긍정적인 응답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새활용을 넘어서 참여자의 수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새활용 플라자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활용하우스만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공간의 기자재 활용과 공간의 이용을 더 자유롭게 한다면 방문자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they add in sense of design to wastes and gives new function that can be joy and memory to someone's daily life. It will need continuous research and practice for all citizen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upcycling and have the opportunity to realize eco-life.

According to survey results of 200 visitors and workshop participants, more than 95% had shown positive feedback on program contents and intention to revisit. Yet,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more active participation. Long-term programs just for Upcycling House should be developed that can offer integrated programs on clothing, food and living. There should also be more utilization of materials and space for citizens to freely use. By doing so, it is expected to have increased number of visitors.



2019
서울새활용페스티벌
새활용전

새활용전

2019. 09. 05
- 12.31

ZERO
WASTE
LIFE

서울새활용폴라라

의·식·주·놀이



이 인쇄물은 100%친환경지,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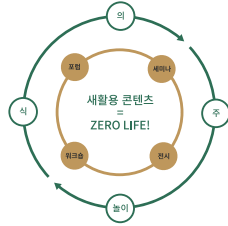
I·SEOUL·U

SUP

Seoul Design
Foundation

ZERO WASTE LIFE

2019
서울생활용페스티벌
생활용전
ZERO WASTE LIFE
의·식·주·놀이



2019 서울생활용페스티벌 생활용전은 생활용플라자의 업사이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의·식·주 전반에 걸친 선순환 생활방식을 추구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 적정기술 소개와 도시의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업의 제품, 시민참여 워크숍, 메이커스페이스, 공연, 전시,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문화 전반에 퍼트려 생활용라이프스타일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생활용전은 “전시-워크숍-세미나”를 연계하여 시민, 전문가, 기업, 공모전, 작가 등 다양한 그룹의 생활용 실천으로 탄생한 콘텐츠를 통해 업사이클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아카이빙 전시입니다. 생활용플라자 내부 유희공간에 기존 설치물을 “업사이클-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ZERO WASTE” 생활방식을 실현합니다.

참여작가 및 작품명

INTRO			
의		신나나 프로젝트 꿈꾸는공장	자전거 타이틀 꿈꾸는 캠프 가죽과 함께하는 ‘생활용’ 캠퍼스용 단물기
단하주단	순백의 장한	양재훈, 김영호	리본 프로젝트
젠니클로켓	옷장을 열어 생명을 다하다	양재훈, 김영호	한 눈에 보는 레이스업
서부여상발전센터 업사이클(생활용)	날개달다	module play	mini folding chair
환경친문양상과장 수료생		서울생활용플라자 세컨드피	소재해부학교/ 서울의 시간과 문제를 그린다
복식문화학회	생활용 패션 디자인 공모전	소설이유	친환경메이커 창작워크숍
식		Corina Sy, Verona Augustine	난민을 위한 가구 디자인
주			
아반비즈서울 x인라이튼 x꿈꾸는공장	Beel19구출릴 구조대		
놀이			
해어라이프	발하는 빛을 남겨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사이언스월드 (구지은,김대희, 윤빛나,임고은)	관상을 감각하다... 보다,듣다
[장제]			소재해부학교
생활커뮤니티	MmmJ (Mega market, Mega upcycling)	이유리 작가 글라스본	상상놀이도
서울생활용플라자	생활용하우스	영애미학교교육직소 여론크마인드	
윤해신 최선덕	상물리예	터치포곳 엑스포베르소 세움	
윤연고 전혜진	자동차 데스크	스름	2019 서울시민예술대학 창작부터 전시까지 ‘환경’ [홍 아름다움에서 재사지까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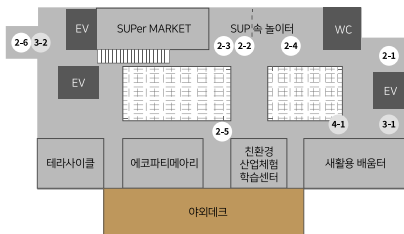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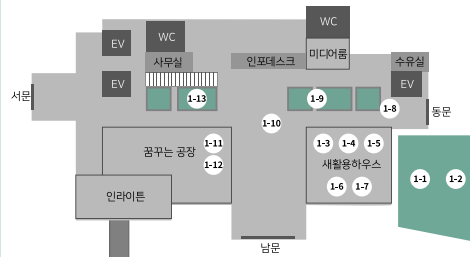
기획 윤연고
디자인 윤해신 박수린
그래픽 황지민 이가은 윤혜정

*전시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1F

- 1-1 꿈꾸는공장
- 1-2 module play
- 1-3 서울생활용플라자
- 1-4 윤해신, 최선덕
- 1-5 윤연고, 전혜진
- 1-6 신나나 프로젝트
- 1-7 해어라이프
- 1-8 생활커뮤니티
- 1-9 소재해부학교, 세컨드피
- 1-10 사이언스월드(보다)
- 1-11 양재훈, 김영호
- 1-12 양재훈, 김영호
- 1-13 어반비즈서울x
- 인라이튼x꿈꾸는공장



2F

- 2-1 사이언스월드(듣다)
- 2-2 젠니클로켓
- 2-3 서부여상발전센터
업사이클(생활용)
환경친문양상과장 수료생
- 2-4 복식문화학회
- 2-5 단하주단
- 2-6 Corina Sy, Verona Augustine

3F

- 3-1 소설이유 휴게공간(동쪽)
- 3-2 상상놀이도 휴게공간(서쪽)

4F

- 4-1 스름 난간(동쪽)

의·식·주·놀이





소재해부학교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소재해부학교> ‘포럼 - 세미나 - 워크숍 - 일반 참여전시’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연극과의 융합 퍼포먼스이다. 버려진 폐자원이 가치 있는 소재가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관찰하는 참여형 쇼와 해체쇼로 구성되어 있다.

쓰임을 다한 생활 가전 및 의류를 해체와 재조립하는 창작 활동으로, 이를 통하여 폐자원의 재생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참가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얻고 구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새활용 메이커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버려진 자원을 직접 해체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 새활용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자들은 폐자원이 다시 사용가능한 소재(재료)가 되는 전 과정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디자인 씽킹 과정을 거치게 된다.

1탄에서는 자전거, 2탄에서는 피아노, 3탄에서는 한복, 4탄에서는 재킷이 해체되어 새활용되었다. 각 회차마다 해체쇼 1차시를 진행한 후 해체쇼와 연계하여 2, 3차시 재조립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차시 해체쇼에서는 공연을 통해 폐자원이 소재화되는 전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계된 재조립 워크숍에서는 해부된 소재를 활용하여 토론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리디자인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새활용 가능한 소재로 분해되고 제작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쓰임으로 탄생되어 다양한 용도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은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Material Anatomy School

2019 OF SUP

The Seoul Upcycling Plaza's <Material Anatomy School> has a play with a process of 'Forum-Seminar-Workshop-General Participation Exhibition' and combined performances, through which one can observe the process of how waste becomes valuable material. Through creative activities to dismantle and reassemble household appliances and clothing, participants were able to experience creative and convergent thinking in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regenerate waste resources and gaining and implementing diverse knowledge to devise their own ideas and solve problems.

This program is for students above high school who are interested in upcycling makers to disassemble wastes abandoned in real life and recreate them as upcycling works through design processes. Participants get to experience the whole process of wastes into reusable materials, generate idea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pcycling through the design thinking process.

<Material Anatomy School> had 4 events of Disassemble-Upcycle bicycle, piano,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jacket. Each event had the 1st disassembling show, followed by 2nd and 3rd redesigning workshops. At the disassembling show, participants were able to see and experience the entire process of transforming wastes, and the associated redesigning workshop consisted of curriculum that share ideas, discuss and redesign using the disassembled materials. Participants' interests and motivations were aroused as the wastes discarded in everyday life were disassembled and produced into reusable materials. This program intended to raise awareness that wastes can be recreated as new uses and used in varying purposes, and to encourage upcycling in real life.

223

UPCYCLING HOUSE

쓰임을 다한 것들의 해체와 재조립 프로그램

소재 해부학교

대 상 | 대학생 / 회당 20명 내외
기 간 | 2019년 9월 21일 - 22일

활동내용	활동일정
<p>예제소 만국과리 융합 페포먼스로 보는 소재해부과정 with 북BOOK(국립 예술여행 연구단)</p> <p>워크숍 1교시 - 해체 된 소재들을 나열하여 토론 및 제작 아이디어 공유 2교시 - 아이디어를 토대로 생활용 시계 - 조명 제작 wit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원섭교수 (조형대학 디자인학과)</p>	<p>9월 (소재 : 피아노)</p> <p>예제소 9월 7일 13:00-14:30 (신청은 80명 사전접수)</p> <p>워크숍 1교시 - 9월 21일 13:00-16:00 (신청은 20명 사전접수) 2교시 - 9월 22일 13:00-16:00</p>

I-SEOUL-U SUP 서울생활융플라자







꿈꾸는공장

DREAM FACTORY

꿈꾸는공장 소개

꿈꾸는공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방문객, 입주자, 관련 종사자 등 시민이 모이고 교육하고 만들고 고치는 업사이클 펍랩(Fablab)으로, 생애 주기별 교육과 시민 참여형 문화 확산의 두 가지 목표를 통해 ‘꿈이 현실이 되는 혁신공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아동기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꿈꾸는공장 내의 총 17개의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과 시제품 제작 지원, 새활용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실제 경주도 해보는 워크숍, 지역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바다 또는 강 등 수면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리봇 프로젝트, 그리고 입주기업 및 다양한 기관들과의 거버넌스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약 8,700여 명이다. 참여자들의 90%는 꿈꾸는 공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활용에 대한 개념과 인식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지만, 교구의 획일화와 조금 더 심도 있는 안전교육을 편성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 본다는 큰 장점을 바탕으로 한 장비 교육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95%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였으나, 하루의 수업으로 공장 내의 모든 장비를 교육받고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아쉬웠고, 추가적으로 장비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 특히 3D 관련 모델링 교육과 3D 프린터 또는 3D 펜을 이용한 프로그램 요청이 대다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만들기 프로젝트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험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간단한 체험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면 저연령층의 재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개관 이후 해마다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있어 체험 프로그램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꿈꾸는공장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커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을 대표하는 메이커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실행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Introduction of Dream Factory

Dream Factory is an Upcycle Fablab where citizens, including visitors, occupants, related workers of Seoul Upcycling Plaza, gather, educate, create, and repair. It is being operated with the vision of “innovative space where the dream becomes true”, through two goals: education by life cycle and spread of citizen participation culture. For the various generations from children to elders, there was training on the use of a total of 17 equipment in Dream Factory and support for production prototype. Besides, there were a workshop to make cars using upcycling materials and have a race and a Re-bot Project to collect wastes floating on the river or sea that intended to help solve the trash problem in the community. Governance activity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resident organizations and other institutions were also conducted.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n 2019 is about 8,700. 90% of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in terms of improving concept and awareness of upcycling through various programs in Dream Factory but also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educational materials and organize and supplement a more in-depth safety education.

In the satisfaction survey on equipment education based on the great advantage of the hands-on activities using equipment that is not easily accessible to citizens, 95% of the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However, they replied that it was difficult to be trained and use all the equipment in the factory in one day of class. In addition, there were most software requests for better use of equipment, especially 3D related modeling training and program requests using a 3D printer or 3D pen. Lastly, there were some opinions that it was regrettable that there were no projects for kindergarteners and low-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f there is a simple experience project that does not require



dangerous tools,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t rate of the young generation will increase further.

Since its opening, the number of visitor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Experience programs take big part in leading to their revisit. Experience programs by other tenant companies are limited. On the other hand, Dream Factory has a great advantage of the space that can realize various projects. To continue to be maker experience area representing The Seoul Upcycling Plaza, Dream Factory needs constant execution and generous support.



시제품 제작컨설팅

‘Bee119 꿀벌구조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디자인창작소 <꿈꾸는공장>과 입주기업 <인라이트(대표 신기용)>, 그리고 도시양봉분야의 청년벤처기업 <어반비즈서울(대표 박진)>과 손잡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6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업사이클 분봉기를 개발했다. 도심 주택가에 비정상적으로 구축된 벌집으로 인해 119의 출동이 잦아지면서, 정작 방재서비스 품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소방방재청>에서 도시양봉가 그룹 <어반비즈서울>과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사회혁신기업 <인라이트>에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소방관의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15만 건으로 전체 65만 건의 24%를 차지한다. (2017, 소방방재청) 매년 3~6월이면 도심에 생긴 꿀벌 무리로 인해 소방관의 출동이 빈번하다. 소방관의 잦은 협조요청으로 어반비즈서울 (대표 박진, 이하 어반비즈)은 소방관의 벌집제거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특히 소방관이 출동할 경우, 꿀벌, 말벌 등 벌의 종류에 상관 없이 벌을 죽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벌을 죽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꿀벌 포획기(Bee Vac)를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디자인창작소 <꿈꾸는공장>과 입주기업 <인라이트(대표 신기용)>과 손잡고 개발하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진공청소기 폐모터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 소재로 개발되었다.



Prototype Production Consulting

2019 OF SUP

The total number of South Korean firefighters dispatched to remove hives is 150,000, accounting for 24 percent of the total 650,000 cases. (2017, Fire Prevention Agency) From March to June every year, fire-fighters are frequently dispatched by bees in the city. Due to frequent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firefighters, Urbanbeesseoul (CEO Park Jin, Urban Biz) realized difficulties in removing the hive. In particular, when firefighters are dispatched, they have confirmed that bees are killed regardless of the type of bees such as honeybees and wasps. Thus, developing the honeybee-catcher(Bee Vac) in collaboration with the design creation center of Seoul Upcycling Plaza <Dream Factory> and the tenant company <Enlighten (CEO Shin Ki Yong)>. This product was developed with upcycle materials, such as wasted vacuum cleaner motor.

235



소재은행

MATERIAL BANK

소재은행 소개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새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새활용 소재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도에 구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의 체계화 및 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

또한 에코서울을 위한 새활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새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유통에 중개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전개했다.

3월~6월(1단계)에는 온.오프라인 통합 시범운영을, 7월~10월(2단계)에는 가격 정책 연구 및 판매홍보를 진행하였으며, 11월~12월(3단계)에는 가격 적용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행하였다.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상설로 어린이 소재구조대/1365 소재구조대와 새활용워크 및 캠프, 해체쇼 같은 주말 기획 행사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누적 참여인원은 약 3,000명이다. 참여자들은 소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재조사, 발굴, DB구축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소재은행 사용자들에게 적정성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는 연구결과와 현실 가격과 상이하게 동떨어진 소재 발생에 대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판매 DB가 반드시 필요하며 업사이클 소재 특성상 특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 가격 적용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이 공통적으로 나왔으며 신규소재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혹은 안내가 필수적이고 현재 소재거래 사이트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었다. 또한 더 많은 업사이클 기업 혹은 기관(타 센터, 유사기관)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DB구축을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Introduction of Material Bank

In 2018, Seoul Upcycling Plaza Material Bank was established to operate on/offline upcycling material platform that aims to create a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improve awareness of upcycling. In 2019, a strong foundation was built for systemization and stabilization of its operation via test operation.

To create an upcycling ecosystem for eco-Seoul, the Material Bank acted as an intermediary in distribution so that the people involved in upcycling can freely buy and sell the materials and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ilot projects to lay the foundation for an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to create a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In 3 steps, we have had on/offline integration test operations, pricing policy research and sales marketing, and actual sales through price application.

We also had citizen participating education programs such as Children's Material Rescue, 1365 Materials Rescue, Upcycling week & camp, and disassembling shows. These were weekend events liked education programs, and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s about 3,000 who have shown a very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at they had a new experience in materials.

We surveyed Material Bank users on the appropriateness of committee organization for materials research, development and DB establishment. The result was that there is a need for sales DB to narrow the gap between research results and material generation that does not meet the actual price. Another common result was lack of objectivity in price application due to characteristic of upcycling materials in which no specific units exist. There were opinions that mailing service or guidance for new materials is essential and that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the material trading site is not systematic, which is too complicated and needs to be simplified. Also, there was a suggestion to collaborate with more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은 업사이클 산업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새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소재은행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upcycling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for more effective DB establishment.

Seoul Upcycling Plaza Material Bank has a critical role in both industri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of upcycling. Going forward, stable and continuous research and actions on Material Bank must be supported in both of these perspectives to create an appropriate upcycling ecosystem.







소재구조대

플레이31 Play31에서 기획한 <소재구조대> 프로그램은 버려지는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직접 해체, 분류하여 누군가 소중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소재 은행에 저금하는 체험 활동이다. 제품의 구조와 소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히고 폐자원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봉사가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소재구조대> 프로그램은 생활용플라자 지하 1층에 위치한 '소재 은행^{Material Bank}'에서 이루어진다. '소재은행'은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폐기물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소재로 탄생시켜 관리하는 곳이다.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체험존에서 플레이31은 소재를 구출하는 <소재구조대>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소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소재가 마련되어 있는 '소재은행'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재활용 소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 및 개발되었다. 학습자들이 제품의 구조와 소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직접 소각되는 자원을 소재화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폐자원 순환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재를 체험하며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는 수업으로, 해체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적능력과 조작 능력을 함양하는 노작교육 형태로 진행한다. 학습 내용에 환경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적 사고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Material Rescue

Another program organized by Play 31 is <Material Rescue>, an experience program where participants disassemble and classify discarded toys and daily necessities and save them in Material Bank for others to use. This program is a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volunteer activity where people can learn not only about the structure and material of products but also contribute to the regeneration of waste resources.

<Material Rescue> program takes place in the “Material Bank”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Material Bank” cleans and processes wastes and create new materials and manages them so that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upcycling businesses or any individuals make use of them. Play 31 hosts <Material Rescue> program every Friday at the experience zone,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entrance. <Material Rescue> classes are held at the “Material Bank” where various materials are provided for participants to see, touch and experience.

This program was planned and developed with the aim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upcycling materials and spread upcycling culture. With upper elementary students to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participants can learn about the structure and material of the product. Participants have a special experience in transforming wastes that are incinerated in most cases and can be active contributors to the circulation of waste resources. As a class where students can gain interest in upcycling and its value, it is conducted in the form of work-oriented education, based on the technical skills required for disassembling to foster intellectual and operational skills. Design thinking and value based on the environment can be experienced through hands-on experience.





입주기엄 협력

COOPERATION OF RESIDENT COMPANIES

에코페어

_ 현대백화점 판교점

서울생활용플라자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입주기업의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 판교점 10층 토파즈홀 및 하늘정원에서 6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5일간 ‘에코 페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26팀의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작품 전시, 체험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하였다. 행사 참여자들 중 약 750여 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5% 이상이 행사에 매우 만족하고, 업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결과물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5세 아이도 따라 하기 쉬운 정도로 매뉴얼이 잘 구성되어있어 전 연령대 참여가 가능했으며 체험 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교육적 취지가 잘 담겨있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co Fair

_ Hyundai Department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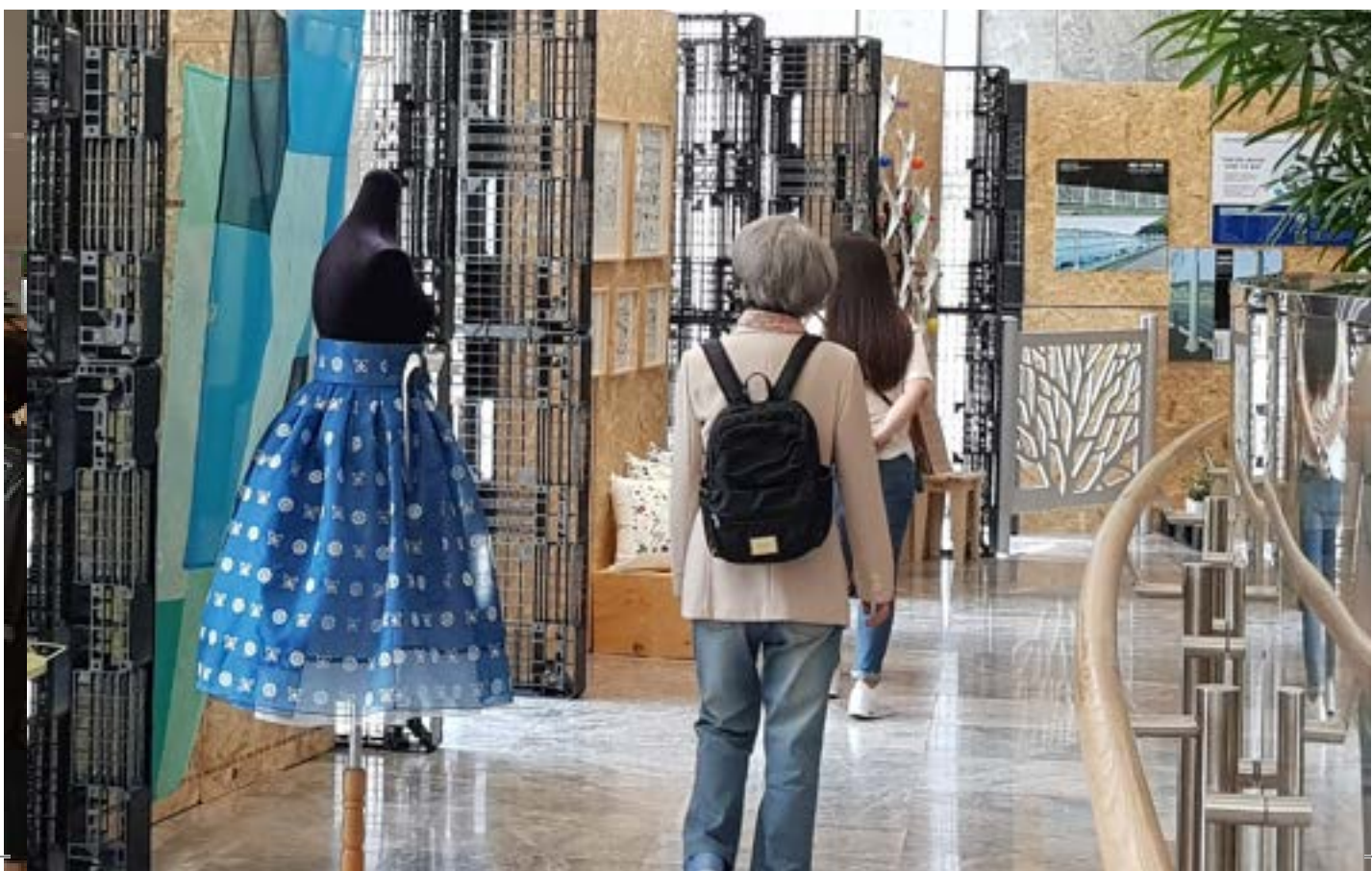
Pangyo Branch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upcycle industry for resident companies and to promote and revitalize their business, Seoul Upcycling Plaza held an “Eco Fair” event from June 5th to 9th at the Topaz Hall and Sky Garden on the 10th floor of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branch. Twenty-six resident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event, operating their own exhibition booth, experience and sales boo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atisfaction survey of about 750 participants in the event, more than 95% said that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event, acqui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upcycling and were willing to actively use the products in their daily lives. Some said that the manual was so organized even a 5-year-old child could follow the activities and that it w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all ages. There were opinions that it would be nice if such programs, where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and acquire educational knowledge, were held more often.









서울디자인페스티벌

_ 코엑스

서울디자인페스티벌^{SDF}은 1976년부터 축적되어 온 <월간 디자인>의 콘텐츠와 국내외 디자인분야 네트워크를 기반하여 2002년 처음 개막한 디자인 전문 전시이다. ‘디자이너 프로모션’을 모토로 디자이너, 디자인 브랜드,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디자인의 동향을 선보이고, 국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한국 디자이너들의 세계 진출을 돕고 세계 디자이너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교류의 장으로 역할 해 온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은 2019년 제18회를 맞아, 12월 4일(수)부터 8일(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3층 Hall C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입주 기업 6팀은 각각 독립적인 부스를 사용하였으며, 입주기업별 정체성을 살린 디스플레이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관람객이 많이 오는 행사인 만큼 높은 홍보 효과와 함께 전년도에 비해 업사이클 제품들의 입지가 커졌음을 실감하였고, 업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Seoul Design Festival _ COEX

2019 OF SUP

Seoul Design Festival (SDF) was first held in 2002 based on the contents of Design, which has been accumulated monthly since 1976, and a network of design fields in and out of Korea. With the motto of “designer promotion,” it is designed to showcase the tren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ign with designers, design brands, and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esign. SDF has helped Korean designers to advance to the world and introduces world designers to Korea, and its 18th was held at Hall C on the 3rd floor of COEX, Seoul for 5 days from December 4th to 8th. Six resident companies from Seoul Upcycling Plaza used their independent booths and received positive responses through a display utilizing their identity. As SDF lures a large number of visitors, it was able to realize the expanded position of upcycling produc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long with higher promotional effects. This event raised expectations on the expansion of public awareness on upcycling.

257

COOPERATION OF RESIDENT COMPANIES









에코팝업

_ AK몰 수원점

수원 AK몰은 12월 13일(금)에서 15일(일)까지 ‘실험적인 디자인에 익숙하고 물건의 쓰임새를 새롭게 하여 아름다움의 기준을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에 두는 착한 혁명가들의 허브’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기간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업하여 ‘에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하였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입주기업 6팀 중 2팀은 1일 2회차, 회당 1시간으로 간단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방문했다가 체험하게 된 참여자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었다.

**Eco pop-up
_AK Mall
Suwon branch**

2019 OF SUP

Suwon AK Mall held an event on December 13th to 15th under the slogan of “A hub of good revolutionaries who are familiar with experimental designs and place the standard of beauty on prot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by renewing the use of objects.” During this period, Seoul Upcycling Plaza opened a pop-up store named “Eco Merry Christmas” in collaboration with the resident companies. Two of the six teams participated in the event conducted a hands-on program to make simple products twice a day and one hour class. A meaningful memory was given to the participants who visited the event as a family.

263

COOPERATION OF RESIDENT COMPANIES





리엔업사이클솜

RE&UPCYCLE SHOP

리앤업사이클숍 개소식

Re&Upcycle Shop Opening Ceremony

성미산 리앤업사이클숍 개소식

2019년 9월 28일, 마포구 성미산로 3길 2(성산동)에서 ‘성미산 리앤업사이클숍’의 개소식이 열렸다. 리앤업사이클숍은 자원 순환의 실천을 마을단위까지 확장하기 위한 생활문화 확산 거점으로, 성미산 리앤업사이클숍은 그 첫 번째 결실이다. 이 날 성미산 마을공동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성미산 리앤업사이클숍을 방문해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Re&Upcycle Shop Opening Ceremony _ Seongmisan Branch

On September 28th, 2019, an opening ceremony of “Re & Up Cycle Shop - Seongmisan Branch” was held at Seongmi-ro 3-gil, Mapo-gu. Re & Up Cycle Shop is a hub for spreading upcycling culture to extend active practice of resource circulation to village units, and this branch is the first pioneer for that. About 100 citizens visited Re & Up Cycle Shop at Seongmisan for the opening ceremony, providing a glimpse into citizen's interests and expectations on upcycling.



송파 리앤업사이클숍 개소식

2019년 10월 2일, 송파구 문정로246(마천동)에서 ‘송파 리앤업사이클숍’의 개소식이 열렸다. 송파구 관내 모든 동의 주부들을 회원으로 하는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는 구청 및 자원순환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해온 만큼 개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개소식에서 구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 모두의 기대와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Upcycle Shop Opening Ceremony _ Songpa Branch

On October 2, 2019, an opening ceremony for “Re & Up Cycle Shop - Songpa Branch” was held at 246 (Macheon-dong) in Munjeong-ro, Songpa-gu. As the Songpa-gu Housewives Environment Council, which consists of housewives in Sonpa-gu, has been working to build a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by forming a network with compan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district offices, many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opening ceremony. With about 200 citizens visiting the opening ceremony, expectations and willingness of both district officials, businesses and citizens were confirmed.







리앤업사이클숍 장터

Re&Upcycle Shop Marketplace

성미산 리앤업사이클숍 장터

Re&Upcycle Shop Marketplace _ Seongmisan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와 재활용 제품 홍보를 위해 재활용 장터를 각 리앤업사이클숍에서 진행하였다. 리앤업사이클숍 개소식이 있던 9월 28일, 성서중학교에서 열린 마을 운동회와 연계한 10월 26일, 리앤업사이클숍에서 11월 23일 총 3회 진행된 장터에 총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수리/수선 체험 및 교육 부스를 열고, 재활용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등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자리였다.

In order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to spread the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and promote upcycled products, an upcycling market was held at each Re & Up Cycle Shops. A total of 250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market, which was held three times: on September 28 when the Re & Up Cycle Shop opened, on October 26 in conjunction with the sports festival at Seongseo Middle school, and on November 23. The site was designed to let citizens know the meaning and value of upcycling by opening repair experience and training booths and promoting and selling upcycled products.



송파 리앤업사이클숍 장터

송파 리앤업사이클숍 장터는 10월 2일 개소식 현장에서, 11월 9일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2차례 진행됐다. 각각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리수선을 체험하거나 배우기도 하고 재활용 제품을 보고 구입하기도 했다. 특히 성내천 물빛광장은 평소에도 주말장터가 열리는 곳인데 재활용 및 수리수선 장터가 열리는 것에 다음 장터 일정을 문의하는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Re&Upcycle Shop Marketplace _ Songpa

Marketplace at Re & Up Cycle Shop - Songpa Branch was held twice: on October 2 at the opening ceremony and on November 9 at Waterlight Square in Seongnaecheon. More than 100 citizens experienced or learned about repair and bought upcycled products. In particular, the Waterlight Square in Seongnaecheon is a place where weekend markets are usually held. Thus, citizens were very satisfied, asking about the schedule of the next market.





국내외 협력

COOPERATION

국내협력

Domestic Cooperation



부천시청 자원순환 정책 견학

Visit from Bucheon City Hall Resource Circulation for policy development

2019년 5월 28일, 부천시청의 정책연구회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 16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자원 순환정책과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체계를 견학하였다.

On May 28, 2019, 16 government officials and officials from the policy research group of Bucheon City Hall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o take a look at the resource circulation policy and operating system of Seoul City.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 견학

2019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제환경국장 등 6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입주기업과 새활용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이들은 새활용에 대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까지 두루 살피고 돌아갔다.

Visit from Gwangsan-gu, Gwangju, for policy development

On September 20, 2019, 6 people, including the director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affairs at Gwangsan-si, Gwangju Metropolitan City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hose who showed interest in resident workshops and upcycled products took a close look at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for upcycling.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담당자 견학

Visit from Seoul Energy Corporation

2019년 10월 28일, 서울시의 에너지절약실천사업을 담당하는 단체 관계자 40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참여자들은 자원을 적게 쓰고 아껴 쓰는 것을 넘어 새롭게 쓰는 새활용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On October 28, 2019, 40 officials from a group in char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nergy conservation project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he participants said it was a meaningful time to share the value of upcycling, beyond spending less resources.



국내연수

Domestic Training



서울미술고등학교 진로탐색 교육

Career exploration training with Seoul Art High School

2019년 7월 11일, 서울미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9명이 진로 탐색교육을 위해 서울생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들은 9곳의 입주기업과 함께 오전과 오후 각각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미래직업과 재활용을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서울미술고의 내년 진로체험도 서울생활용플라자에서 진행 하겠다 할 정도로 교사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On July 11, 2019, 199 first-year students from Seoul Art High School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for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Together with 9 resident workshops, they participated in desired education programs, and had time to connect their future jobs with upcycling. The student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and space, and the teachers' satisfaction was high enough that they were willing to continue this program in the following year.



서울관광재단 MICE기자단 연수

2019년 9월 20일, 서울관광재단의 MICE 대학생 기자단 연수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MICE 얼라이언스의 유니크베뉴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기자들에게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직접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편의성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Seoul Tourism Foundation 'MICE' Reporters Training

On September 20, 2019, the Seoul Tourism Foundation's training session for a group of MICE college students was held at Seoul Upcycling Plaza. Since the Seoul Upcycling Plaza is registered as a member of MICE Alliance's Unique Venue run by the Seoul Tourism Foundation, it was a time for reporters to share the meaning and value of space and experience its convenience while using the facility of SUP.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UAE 에너지환경부 차관보 일행 방문

Visit from UAE Deputy Minister of Energy and Environment

2019년 6월 20일, UAE의 에너지환경부 차관보 일행이 서울생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시는 청와대에 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Nayhan)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UAE 에너지환경부와 ‘폐기를 재활용 정책사례 및 응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방문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셰이프 알 사라 차관보를 필두로 총 6명이 방문해 서울생활용플라자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차관보를 비롯한 방문단은 생활용플라자의 운영시스템과 입주기업의 아이디어들을 전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싶으며 UAE에서 운영하는 환경분야 국제 시상식인 ‘자이드상’에 출품하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On June 20, 2019, a group of the UAE deputy energy and environment minister visited the Seoul Upcycling Plaza. On February 27, 2019, Seoul signed a “Business Agreement on Waste Recycling Policy Cases and Applications” with the UAE’s Ministry of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e watch of MOON Jae-in Korean president and Mohammed BIN Zayed Al-Nayhan, Crown Prince of Abu Dhabi and Deputy Supreme Commander of the UAE Armed Forces at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Office. As a follow-up measure, 6 people, led by Vice Minister Safe Al-Sarah,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he visiting group, including the vice minister, said they would like to shar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and the ideas of resident workshops in a global level, advising to submit to the “Zayed Award,” an international award ceremony for environmental affairs run by the UAE.



스웨덴 IKEA 본사 글로벌리더 방문

2019년 7월 2일, IKEA의 스웨덴 본사 글로벌 리더 2명과 일본 측 매니저 1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글로벌 리더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진 IKEA의 직무급 중 하나로서 일반 글로벌 기업의 국제분야 이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IKEA의 세계 최대 판매점이 국내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반품과 재고의 후속 처리에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방문으로 이들은 IKEA의 글로벌 워크숍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운영방침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Visit from the Global Leader of IKEA headquarters in Sweden

On July 2, 2019, two global leaders of IKEA's Swedish headquarters and a Japanese manager visited the Seoul Upcycling Plaza. A global leader is said to be one of IKEA's job functions with a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serving as an international director of a general global company. The visit was organized to discuss cooperation with Seoul Upcycling Plaza on the follow-up of return and inventory coming from one of the IKEA's largest retailers located in Korea. They express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operation policy, to the extent that they said they would like to hold IKEA's global workshop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市 시의원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방문

2019년 7월 8일,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 시의원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5명이 서울생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오스틴시는 북미 최대의 복합문화축제인 SXSW(South by Southwest)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음악, 교육, 산업 등 복합박람회를 축제형식으로 발전시킨 역량을 갖춘 도시이다. 이들은 생활용을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일 자리 창출과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했고, 생활용 페스티벌의 국제박람회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Visit from city councilors and chambers of commerce, Austin, Texas, U.S.

On July 8, 2019, five officials from Austin City Council of Texas and the U.S. Chamber of Commerce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ustin is the host city of South by Southwest (SXSW), the largest cultural festival in North America, with the capacity to develop multi-faceted exhibitions such as music, education, and industry into a festive format. They looked at upcycling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job creation and the development as an industry,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oul Upcycling Festival as an international exposition as well.



독일 iF 디렉터 랄프 비그만 방문

2019년 7월 25일,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하나인 iF의 디렉터인 '랄프 비그만(Ralph WIEGMANN)'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 전반을 둘러본 그는 “업사이클은 독일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그 최선이 실현되고 있었다”며 운영체계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Visit from Ralph Wiegmann, director of iF Germany

On July 25, 2019, Ralph WIEGMANN, the director of iF, one of the world's top 3 design awards,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Looking around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he praised the operating system of SUP. He said, “I thought Germany was the best at upcycling, but it was Seoul, who was doing it the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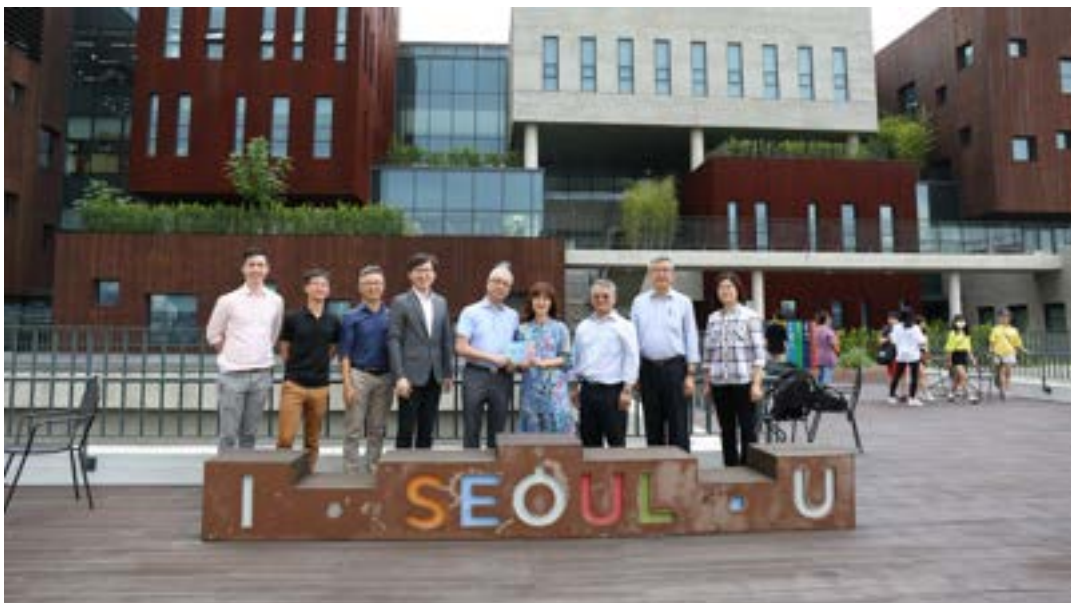


홍콩시 환경국 부국장 등 공무원단 방문

2019년 7월 30일, ICLEI의 초청으로 홍콩시 환경국의 부국장 등 공무원 7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효과적 대처방법인 새활용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함께 산업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 체계를 둘러봤다.

Visit from government officials of Hong Kong, including deputy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On July 30, 2019, seven officials, including the Deputy Director of Hong Kong City Environment Bureau, visited the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ICLEI. They toure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in various way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support on start-ups in an industrial manner, along with a policy approach to the efficient handling of waste problems occurring in the city.



UAE 에너지환경부 폐기물실무담당관 방문

Visit from UAE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s Waste Working Officer

2019년 8월 27일, UAE의 에너지환경부의 폐기물실무담당관 등 3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지난 6월 차관보 방문에 이은 실무방문으로 UAE에서 진행될 업사이클센터 구축에 따른 실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며 UAE의 폐기물 정책수립과 UAE의 업사이클센터 구축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On August 27, 2019, three people from the UAE's Ministry of Energy and Environment,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Following the visit in June, they visited SUP to gather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upcycle cente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UAE. They complimented the Seoul Upcycling Plaza's system on waste disposal and requested for active cooperation for UAE's waste policy and upcycle center establishment.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주지사단 방문

Visit from Governor of North Sumatra, Indonesia

2019년 9월 25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의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30명이 서울생활용플라자를 찾았다. 북수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의 34개 주 중 7번 째로 인구가 많은 주로서 주의 정책이 인도네시아 다른 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에디 라흐마야디 Eddie RACHMAYADI 주지사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활용을 검토하며 향후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과 방문을 당부했다.

On Sept. 25, 2019, 30 officials, including the governor of North Sumatra, Indonesia, visited the Seoul Upcycling Plaza. North Sumatra is the seventh most populous state in Indonesia's 34 states, and its policy has a huge impact on the other states in Indonesia. Governor Eddie RACHMAYADI reviewed upcycling as a solution to the waste problem and called for cooperation and visits to establish future waste policies.



에스토니아 탈린市 시장 방문

2019년 10월 2일, 북유럽의 인기있는 관광지이자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市의 시장 등 4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미하일 콜바트 Mihhail KÕLAVRT 시장은 고려인 3세이자 에스토니아 태권도 협회장을 장기간 역임하는 등 자신의 한국적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차세대 정치유력자 중 하나이다. 방문단은 탈린市의 공업중심적 특성과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탈린 기술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자원순환 체계와 적정기술을 결합한 '새활용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Visit from the mayor of Thalín, Estonia

On October 2, 2019, four people, including the mayor of Tallinn City,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n Northern Europe and the capital of Estonia,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Mayor Mihhail KÕLAVRT is one of the next-generation political heavyweights, proud of his Korean ethnicity. The visiting group showed a lot of interest in the "upcycled product," combin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the appropriate technology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since Tallinn is industrial centered and has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with high-quality science and technology.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방문

2019년 10월 8일, 에스토니아 순환경제산업연합회 회원 26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자국에서 순환경제산업의 한 축들을 맡고 있는 기업인들이 서울의 자원순환 사례 중 하나로 이곳을 찾아왔다. 이들은 산업적 지속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새활용 시민교육에 깊은 감명을 표현했고, 다양한 새활용 제품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Visit from the officials of member companies of the Circular Economic and Industrial Union

On October 8, 2019, 26 members of the Estonia Circular Economy and Industrial Union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Entrepreneurs taking significant roles in the cyclical economy industry in their countries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s a representative case of Seoul's resource cycle. They shared a deep impression on the civic education of upcycling under the theme of resource circulation, designed to achieve industrial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They were also impressed at various upcycled products as well.



쿠웨이트 석유공사 임직원 방문

2019년 11월 7일, 쿠웨이트 석유공사의 임직원 10명이 서울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의 임직원이지만 화석연료 이후의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운영체계 전반에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

Visit from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officials and staff

On November 7, 2019, 10 executives and employees of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Despite they ar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 petroleum company, they expressed deep sympathy with the entire operating system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in that it is crucial to prepare for the post-fossil fuel era in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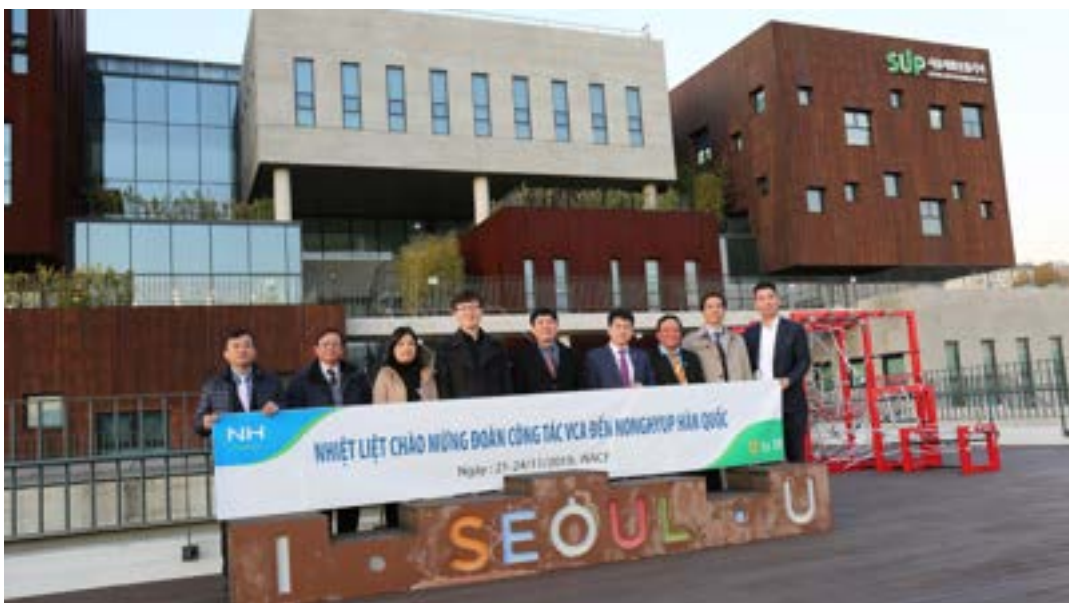


베트남 VCA(농업협동조합) 부회장단 방문

2019년 11월 22일,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의 레 반 응히 부회장 등 7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아직은 농업이 주된 산업인 베트남은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들 조합의 연맹인 베트남협동조합연맹은 국가기관으로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자원순환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전반을 둘러본 뒤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베트남의 업사이클 체계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Visit from Vice Chairman Group of the Vietnam Cooperative Alliance (VCA)

On November 22, 2019, seven people, including Vice Chairman of the Vietnam Cooperative Alliance (VCA),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s agriculture is the main industry in Vietnam, various cooperatives exist. VCA is a state-run federation of those unions. Hence, the vice chairman of VCA corresponds to the vice minister-level official of Korea. After touring the entire operation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they asked for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n upcycle system in Vietnam, appreciating for the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태국 타마셋대학교 연구진 방문

2019년 12월 17일 태국의 유명사립대인 타마셋대학교에서 디자인스쿨 연구진과 학생 27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영국 케임브릿지대학교와 함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연구진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둘러보며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모델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시설 운영에 탁월함을 표현하였고 앞으로 양 기관은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isit from reasearchers of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On December 17, 2019, 27 researchers and students from the design school of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he researchers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for a sustainable society jointly with Cambridge University in the U.K., toured the Seoul Upcycling Plaza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odel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design. The research team expressed in th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as excellence, and the two organizations plan to expand various cooperation, including joint hosting of international seminars in the future.







해외연수

Global Communication

UNESCO 아태교육원 글로벌 교원 연수

Global Teacher Training for UNESCO Asia-Pacific Education Center

2019년 8월 31일, UNESCO 아태교육원 초청으로 아프리카·아랍·중남미·아태·유럽 지역 ODA대상 25개국 34명의 교사 교육가 34명이 서울생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확산 모델 모색을 위해 이들은 폐기물을 이용한 생활용 놀이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다. 참석자인 아멜리아 라마자니(Amelia LAMAZANI, 아프가니스탄)은 워크숍에 대해 “생활용 소재를 이용해 인형을 만들고 환경을 주제로 한 팀 연극을 연출하며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자국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On August 31, 2019, 34 teachers from 25 countries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the UNESCO Asia-Pacific Education Center. To seek a model for spreading global civic education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y participated in a workshop for a new play using waste materials. “It was a good program to make dolls using new materials, produce environmental-themed team plays, and learn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naturally. I want to do it with my students.” said Amelia LAMAZANI, a participant of the workshop.



ICLEI ACP대상도시 공무원 연수

2019년 9월 3일, ICLEI의 초청으로 ACP대상 3개국 6개 도시 공무원 12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ACP란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mbitious Cities Promise)’을 뜻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대상 도시들의 실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들은 자원순환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체계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활용 산업 육성 등 야심찬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들을 둘러봤다.

Training for government officials of ICLEI ACP target cities

On September 3, 2019, 12 officials from three countries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ICLEI. ACP stands for “Ambiotic Cities Promise” and i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that supports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set and achieve ambitious goal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y took a look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fforts to realize its ambitious goals such as including the operation system of the Seoul Upcycling Plaza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promotion of upcycling industries for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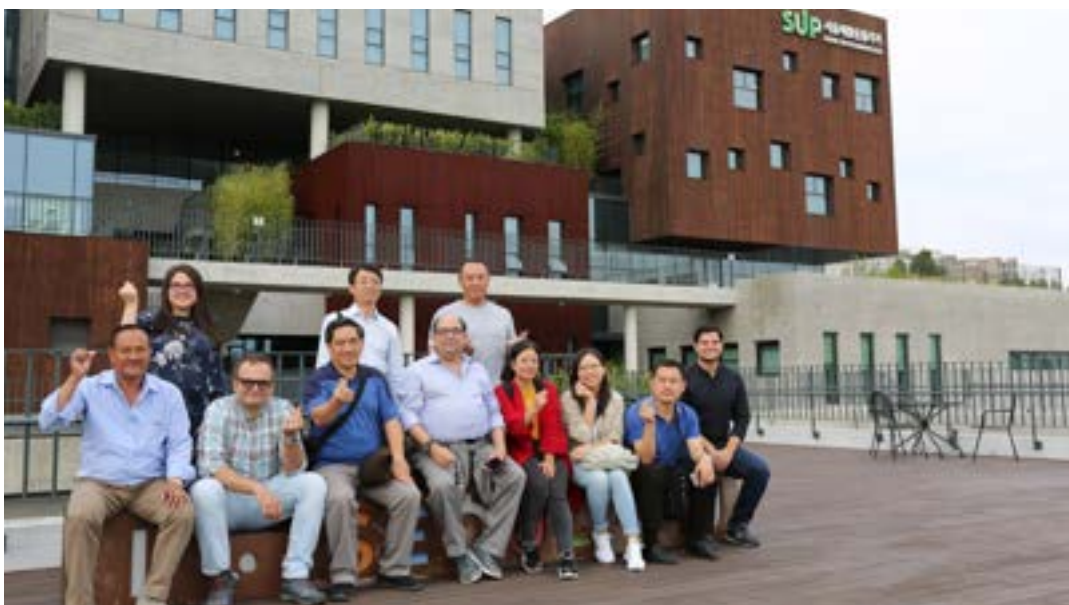


서울시 인재개발원 도시관리과정 글로벌 공무원 연수

2019년 9월 26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초청으로 9개국 11개 도시 공무원 16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이들은 도시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도시 관리 우수사례 중 하나인 이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곳곳을 둘러보며 서울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Training for global officials in urban management process of the Seou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On Sept. 26, 2019, 16 government officials from nine countries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the Seou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They were officials from a department in charge of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and visited one of the city's best practices for urban management. They toured all over the Seoul Upcycling Plaza and said that they were deeply impressed by the city's preemp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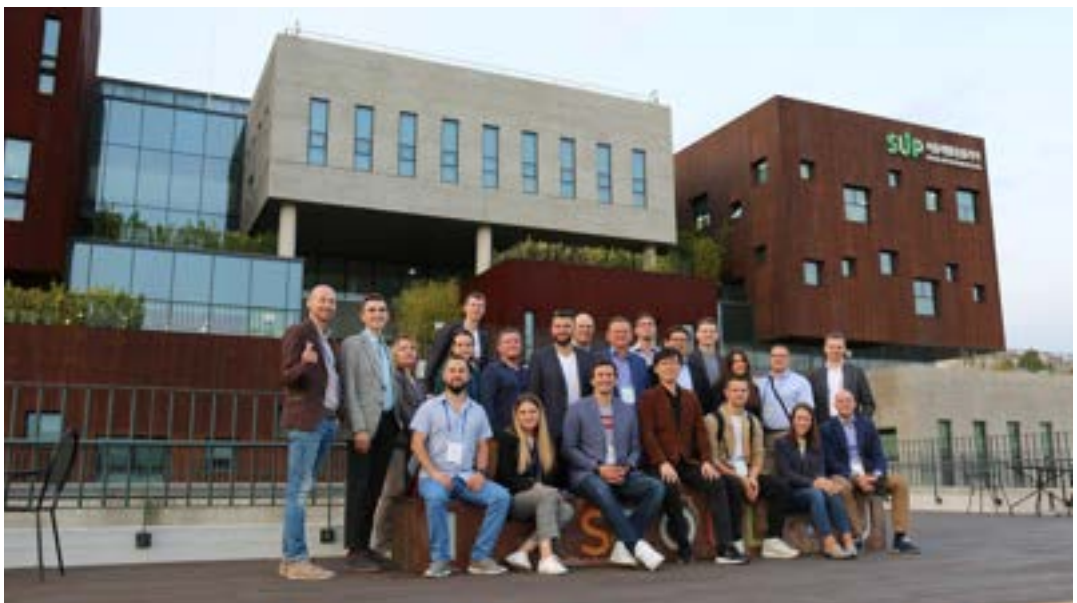


러시아 MMGU 스마트도시과정 공무원단 연수

Public officials training in the Smart City Program of MMGU, Russia

2019년 10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시행정대학교 소속 공무원 등 20명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들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로 새활용과 적정기술이 결합한 새활용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보였다.

On October 24, 2019, 20 officials, including officials from Moscow Metropolitan Governance University, Russia,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The majority of them were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ho are in charge of building a smart city. Thus,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upcycled products that are combined with appropriate technologies.







UNESCO 아태교육원 파키스탄, 한국 교원 연수

2019년 11월 21일, UNESCO 아태교육원의 초청으로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원 11명과 16명이 연합 워크숍을 서울새활용 플라자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입주기업과 함께 버려진 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참여해 버려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Training for Korean Instructors of UNESCO Asia-Pacific Education Center, Pakistan

On November 21, 2019, 11 teachers from South Korea and 16 teachers from Pakistan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for a joint workshop with UNESCO Asia-Pacific Education Institute. They participated in a storytelling workshop using discarded books with resident workshops, and stated that, "it was a precious opportunity to see the unseen value of abandoned resources."



기획재정부 초청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도국 공무원 연수

Seminar for government employees of developing countries for Climate Change Center seminar

2019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 초청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 대상 개도국 공무원들의 연수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이뤄졌다. 11개국 30명으로 이뤄진 방문단은 새활용플라자 곳곳을 둘러보며 소재의 새로운 변신과 제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On December 6, 2019, a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offici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of Climate Change Center took place at the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0 people from 11 countries toured all over the Seoul Upcycling Plaza, showing high interest in the application of upcycling.







덴마크 아이스비아후스 애프터스콜레 학생 연수

Training for students of Eisbjergus Efterskole, Denmark

2019년 12월 11일, 오디세이 민들레학교와 함께 덴마크 아이스비아후스 애프터스콜레(Eisbjergus Efterskole) 소속 학생 22명이 서울생활용플라자에서 생활용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들 2개 학교는 국제 학생 교류의 일환으로 함께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소재은행에서 생활용 연극 워크숍을 함께 진행 하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각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On December 11, 2019, along with the Odyssey Dandelion School, 22 students from the Eisbjergus Efterskole, Denmark participated in the upcycling workshop at Seoul Upcycling Plaza. These two school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ogether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s and had time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environment and how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해외언론취재

Overseas Media Coverage

이라크 국영방송 IMN 취재

Coverage by IMN, Iraq's state-run news agency

2019년 6월 5일, 이라크의 국영방송 IMN의 간판 앵커인 팔리 하디 함자 Pally Hadi HAMZA 기자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언론재단의 국제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 국내를 방문한 그는 석유 기반 경제인 이라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라며 연신 카메라를 들어 촬영했다. 쓰레기 문제는 이라크 역시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새활용을 자신의 조국에도 어서 소개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On June 5, 2019, Pally Hadi HAMZA, a reporter from Iraq's national broadcast IMN, visited Seoul Upcycling Plaza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He took a lot of pictures and said it was a sight he had never seen in Iraq, an oil-based economy. Since the waste issue is also a serious problem in Iraq, he expressed his desire to introduce the upcycling, one of the alternatives, to his country.



중국 관영통신 CCTV-2(경제채널) 취재

2019년 10월 4일, 중국 관영통신 CCTV의 한국지사에서 서울 새활용플라자를 취재했다. CCTV는 주제에 따라 개별 채널들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CCTV-2는 경제전문 채널이다. 취재진은 새활용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소재은행을 집중 취재하였으며 2주 뒤 취재영상은 중국 전역에 방송됐다.

Coverage by CCTV-2, economic channel operated by China Central Televis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4, 2019, the Korean branch of CCTV, China's state-run news agency, covered Seoul Upcycling Plaza. CCTV separates and operates individual channels according to themes. CCTV-2 is an economic channel. The reporters focused on Material Bank, which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upcycling industry, and two weeks later, the video was broadcasted throughout China two weeks later.









에필로그

EPILOGUE

숫자로 보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2019년

133,185명
새활용플라자 방문

Seoul Upcycling Plaza Visitors
133,185 visitors

12,272명
탐방

Tour
12,272 people

14회 4개국
2,895명
페스티벌

Festival
14 festivals 4 countries
2,895 participants

51개 1,426회
32,177명
아카데미

Academy

51 classes 1,426 sessions
32,177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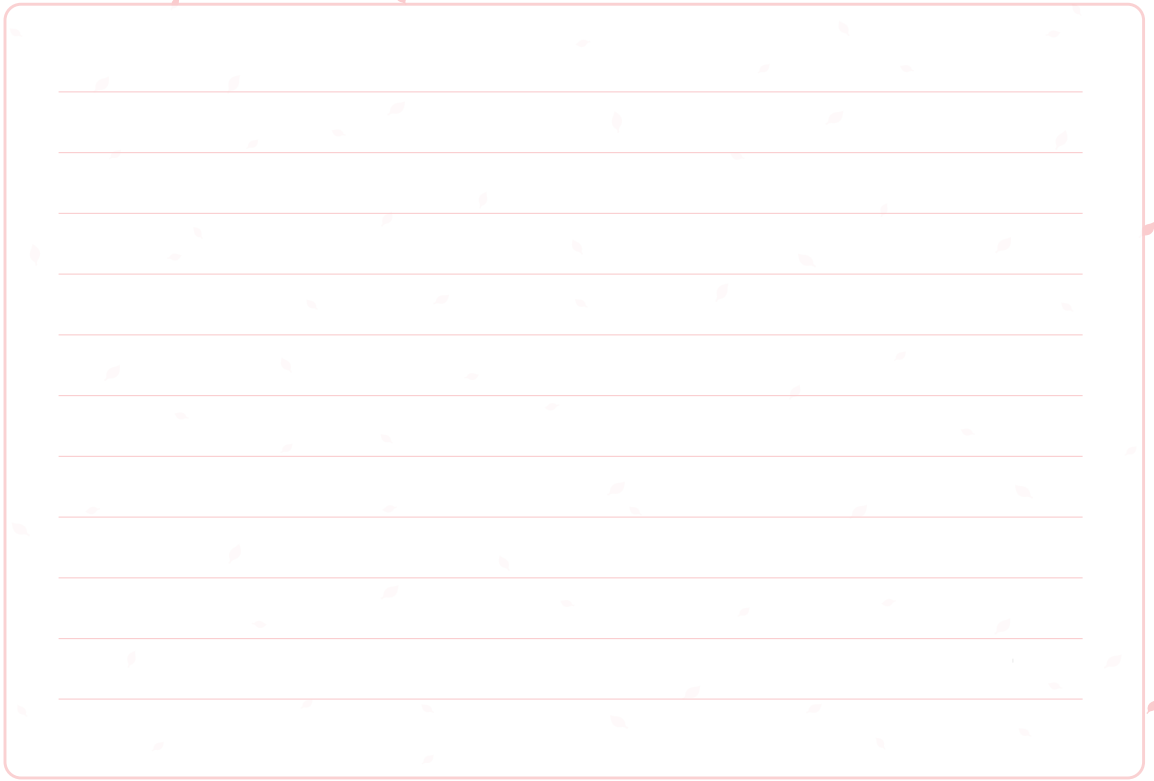
47개국
244명
외국인 방문

Foreign Visitors

47 countries
244 vis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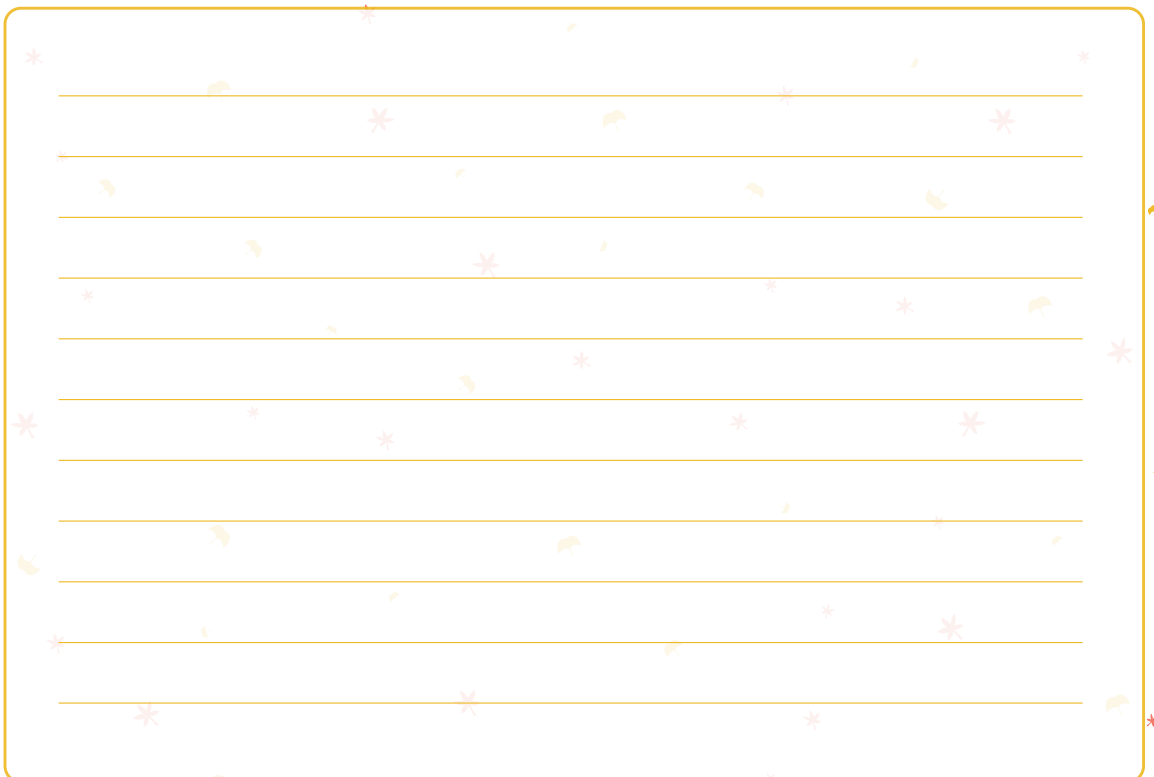
MEMO



A rectangular memo area with a pink border and ten horizontal lines. The background is decorated with small, light pink petals falling from the top.



MEMO



A rectangular memo area with a yellow border and ten horizontal lines. The background is decorated with small, light yellow leaves and stars falling from the top.

SPRING

새활용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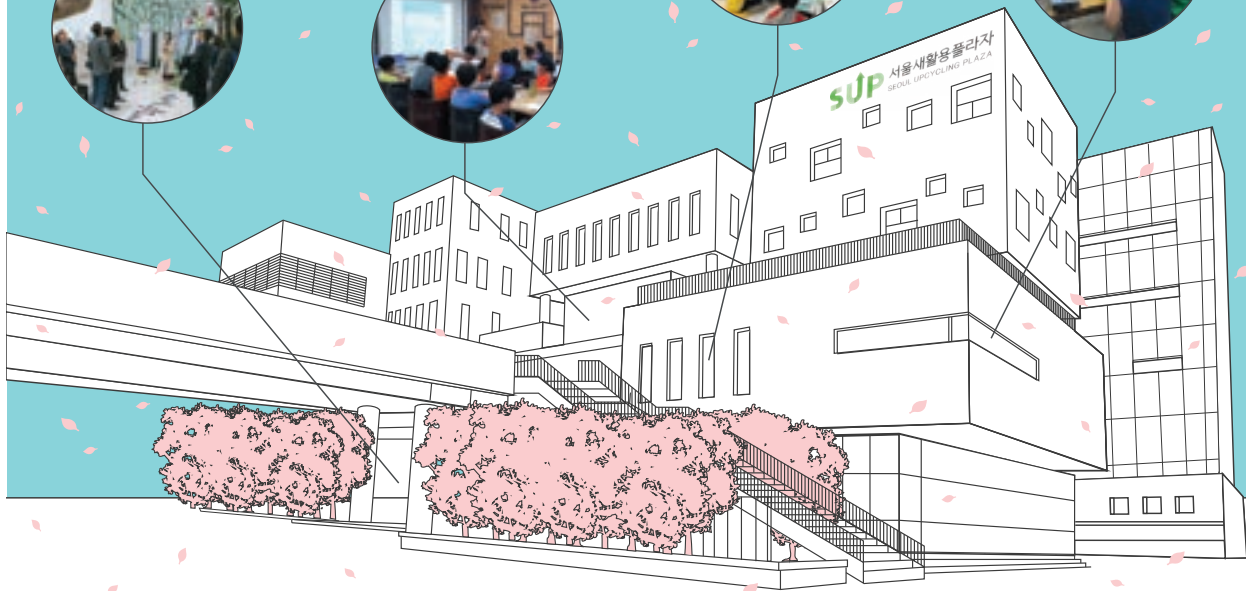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야



새활용상상놀이



소재구조대



FALL

* 개관 2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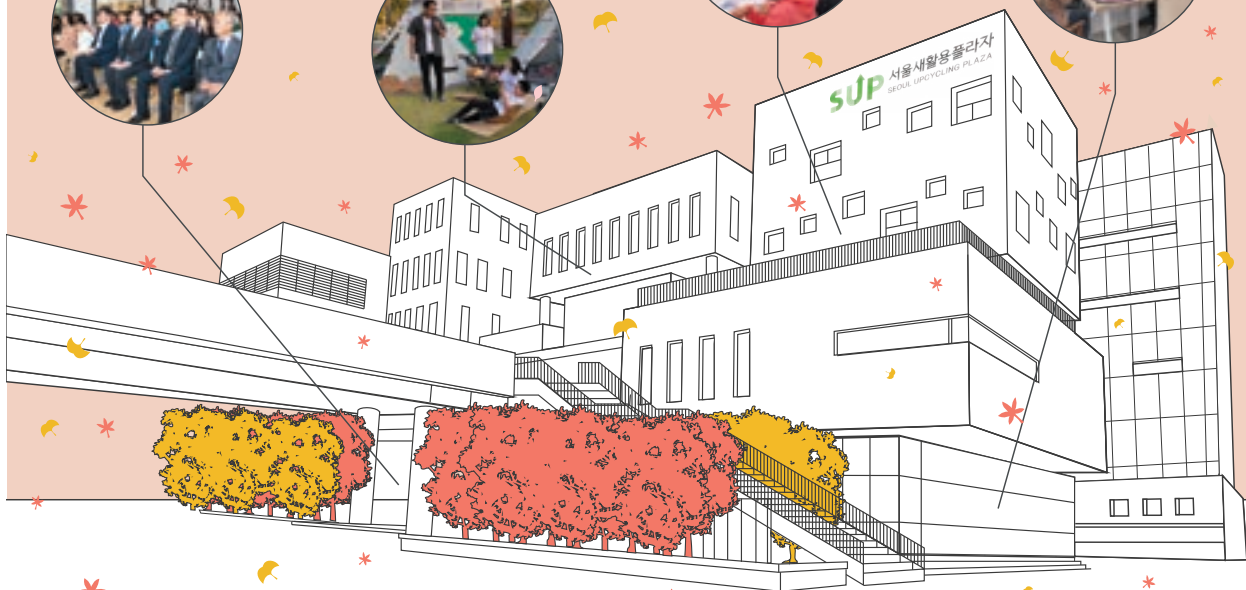
새활용 주말캠프



새활용강사양성 과정



소재해부학교



SUMMER



농부의 시장



상상놀이토



프로듀스 모모



생활용 전시



WINTER

생활용 페스티벌



리엔업사이클숍



생활용브런치



입주기업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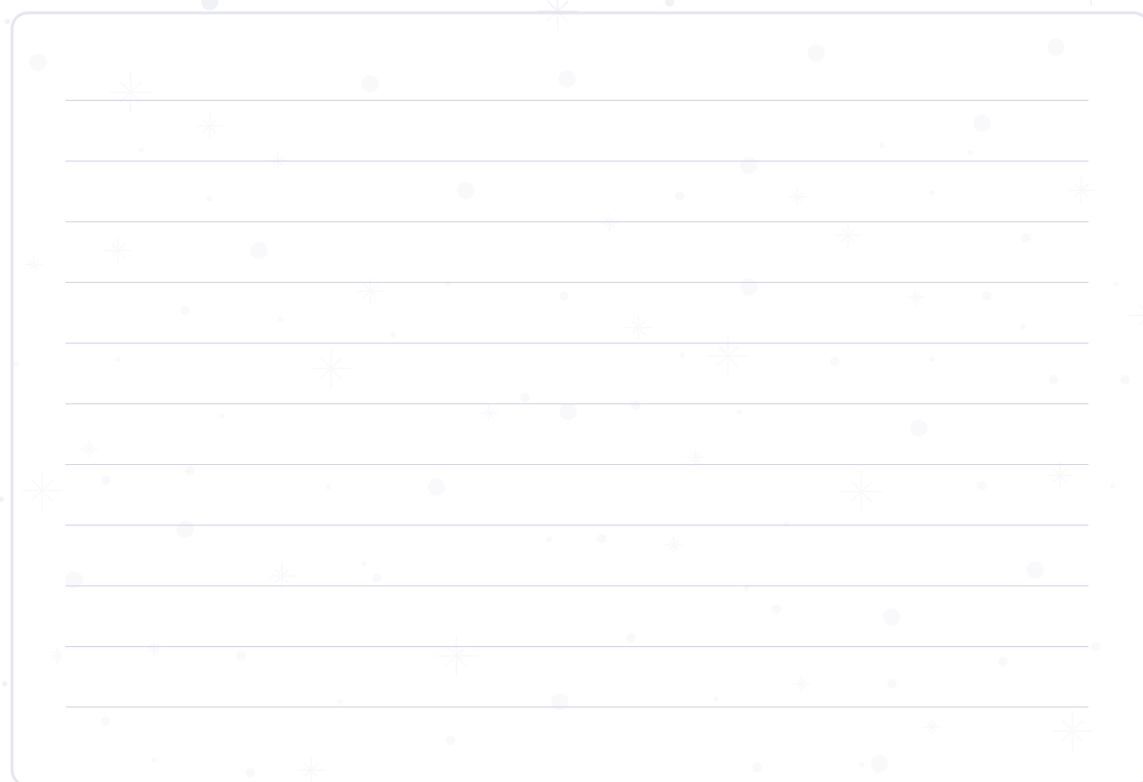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green border and horizontal green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purple border and horizontal purple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ackground is decorated with small purple stars and dots.







2019 서울새활용플라자 아카이빙북
Archiving Book of SUP

2020년 2월 28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재)서울디자인재단

펴낸이 | 최경란

펴낸곳 | (재)서울디자인재단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기획 |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윤대영 유주이 박자일 김지인 오경하 이진경 주경운 최병욱

최정규 김재호 송요욱 김재학 박소이 박소현 임도연 이효진

제작 | 글로벌ACE

제작총괄 | 신세레

제작보조 | 이소연 양세현 송윤진 박지선

디자인 | 김효림

번역 | 이유경 김진영

인쇄 | 이든프린팅

제책 | 이든프린팅

ISBN | 979-11-88219-55-1 비매품

※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용 시 재단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